

문학주간 2024 백서
스핀오프(Spin-off)



스Pin

오프

S핀오프

스핀오프

‘지금-여기’와
——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

문학과 삶의 형태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스핀-오프의’장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차

I. 사업 개요

- 04 1. 문학주간2024 개요
- 06 2. 추진 체계
- 08 3. 프로그램 구성 및 결과

II. 프로그램

- 14 1. 개막식
- 16 2. 주제 스테이지
- 50 3. 스테이지 공모전
- 96 4. 협력 스테이지
- 122 5. 기획전시
- 124 6. 참여 프로그램

III. 결과 및 제언

- 128 1. 만족도 조사
- 142 2. 평가 및 제언
- 148 3. 참여 관객 후기

IV. 홍보

- 152 1. 홍보 개요
- 153 2. 언론홍보
- 161 3. 온라인 홍보
- 180 4. 오프라인 홍보

01

사업 개요

1. 문학주간2024 개요	04
1-1. 사업 목적	
1-2. 행사 개요	
1-3. 기획 의도	
2. 추진 체계	06
2-1. 추진체계도	
2-2. 기획Table 위원회	
3. 프로그램 구성 및 결과	08

1. 문학주간2024 개요

1-1. 사업 목적

- 한국문학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장, 문학주간.
- 문학주간은 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향유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국문학 진흥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감각으로 문학을 경험함으로써 문학의 의미와 가치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문학 진흥을 위한 문학축제의 장 마련
 - 문학인과 문학 향유자, 매개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학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문학계에 활력 제고 및 지속적인 문학 붐 조성

1-2. 행사 개요

행사명	문학주간2024
기간	2024. 9. 27.(금) ~ 2024. 10. 1.(화) 5일간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예술가의 집, 마로니에공원 지하 다목적홀 및 전국 각지
주제	스핀오프(spin-off)
사업 내용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문학계, 예술계, 독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개막토크, 낭독극, 작가대담, 토크, 기획전시 등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제주삼다수, 종로구청
협력	교보문고, (주)문학과지성사, 민음사, 베리테, 은행나무, 안온북스, 알라딘, 위즈덤하우스, 인스크립트, 프로파간다, 국립한국문학관, 한국문학번역원, (사)방정환연구소, (사)국제PEN한국본부
프로그램 수	52건
참여 예술가 수	215명
참여 관객 수	12,437명
언론 홍보	27건
온·오프라인 홍보	개막행사, 폐막행사, 주제 스테이지, 스테이지 공모전, 협력 스테이지, 기획전시, 참여 프로그램 등

1-3. 기획 의도

스핀-오프

일반적으로 스핀 오프는 원작의 내용을 확장해 꾸러지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아니었던 인물이 속편에서는 중심에 서게 되듯이요. 하지만 어떤 근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는 단지 작품에만 한정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에서는 ‘나’ 자신을 예로 들 수 있겠지요. 문학으로 하여금 이전과 달라진 ‘나’, 타자와의 연결고리를 조금 더 단단히 만들고, 닿을 수 없는 이해에 가까워지는 ‘나’ 역시 자신의 스핀 오프를 쓰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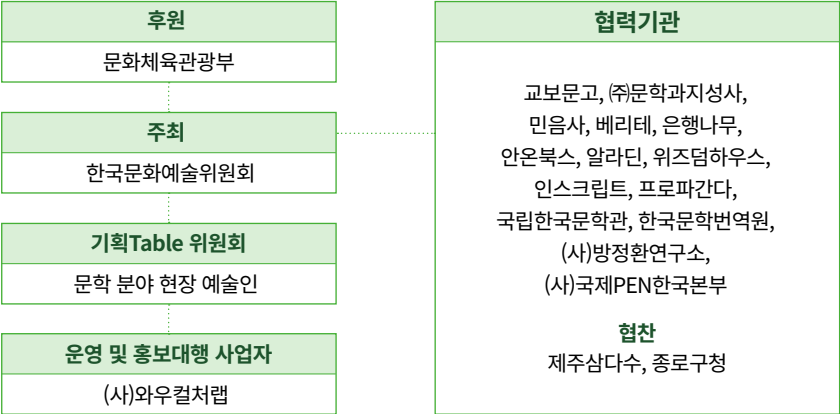
문학 안에서 조우하게 되는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물론, 다가올 시간까지 그 안에 있지요. 지금의 여러 문제들을 반영하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이면까지 낱낱이 살핀다는 점에서 문학은 현실로부터 파생되어 만들어진 스핀 오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어떤 이야기와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책장을 덮을 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문학 바깥의 현실과 다시금 마주할 때, 원본과 파생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어쩌면 현실이야말로 문학의 스핀 오프가 아닐까요? 현실보다 더 큰 상상력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세계를 품은 문학을 우리의 중심에 놓는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지금-여기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학주간2024에서는 ‘스핀 오프’라는 주제 아래 끝나지 않는 다음 장을 써보려 합니다. 다양한 감각으로 문학을 경험하는 이 시간은 향유를 넘어서서 우리의 다음 문장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를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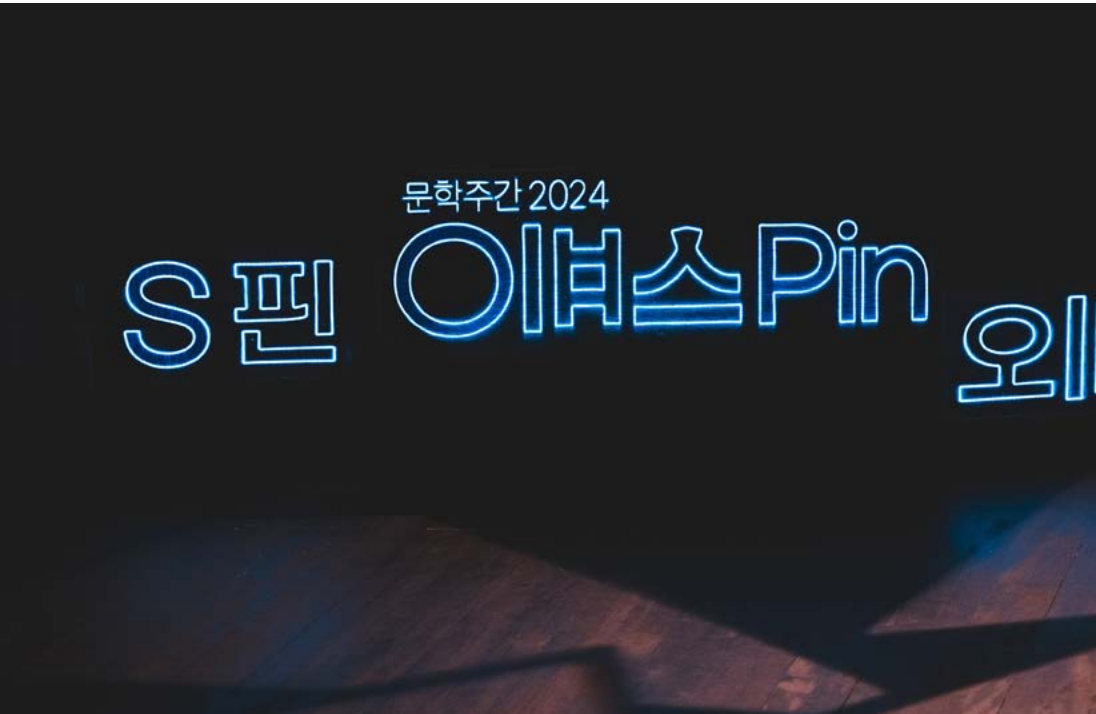
2. 추진체계

2-1. 추진체계도



2-2. 기획Table 위원회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김현	시인	기획위원회 (5인)
2	소유정	문학평론가	
3	양근애	문학평론가, 드라마투르그	
4	한유주	소설가	
5	황예인	문학평론가, 스위밍폴 대표	



3. 프로그램 구성 및 결과

연번	구분	일시	장소	프로그램명	참여자 수
1	개막행사	9/27(금) 19: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낮고 가난한 자리에 남아	94
2	주제 스테이지	9/27(금) 15: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시 보다, 좋은 것	80
3		9/27(금)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사랑’ 외전 쓰기	64
4		9/28(토) 14: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다시 쓰기에 대하여	47
5		9/28(토)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다음 페이지로, 확장되는 소설	64
6		9/28(토) 19: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침묵하는 사이마다	66
7		9/29(일) 14: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극장 외전	67
8		9/29(일) 15: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소설, 역사의 외전: 초선, 카카듀, 강주룡	59
9		9/29(일)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가을을 위한 라이너 노트	76
10		9/29(일)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읽고 쓰고 만들기: 영화와 소설	99
11		9/29(일) 19: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인간 외전	76
12		9/30(월) 17:00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소설이라는 세계 안에서	118
13		9/30(월) 19: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올봄에 헤어진 연인들을 위하여	89
14		10/1(화) 15: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역사의 알고리즘	93
15		10/1(화)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한 편의 시가 다음 면으로 이어질 때	79
16	폐막행사	10/1(화) 19: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우리 결의 파랑	106

연번	구분	일시	장소	프로그램명	참여자 수
17	스테이지 공모전 (대학로형)	9/28(토) 14: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Fire-ing House	50
18		9/29(일) 11:00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시 들어보라	296
19		9/29(일) 11: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카프카 여동생이 그랜드 <변신>속 여동생 그레타의 변(辯)	49
20		9/29(일) 14:00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회전하는 시	257
21		9/29(일) 14: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한시 음악회: 옛 시인과 공명하다	55
22		9/29(일) 17:00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서남 전라도 서사시 『그라시제라』 입체낭독	423
23		9/30(월) 11: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21세기 카프카 사용법	71
24		9/30(월) 11: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날말의 낭독	20
25		9/30(월) 14:00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백 년 동안의 백석	116
26		10/1(화) 14: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X-파일 멀더와 스컬리의 낭독극: “유리로 만들어진 세상”	87
27	스테이지 공모전 (전국형)	9/27(금) 18:30	부산광역시 책과 아이들	Spin-off - 내 안의 금쪽이	11
28		9/27(금) 13:00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및 5.18민주화운동 주요 사적지	현실 속 소설 체험, 그리고 나로 스피노프(spin-off)	10
29		9/28(토) 16:00	강원 강릉시 갤러리감각	이를테면 스피노프의 방식으로	14
30		9/28(토) 14:00	대구광역시 대구무형유산전수교육관	토크콘서트 Spin-OFF: 동부민요	42
31		9/28(토) 16:00	인천광역시 창작집단 발아 LAB실	<연극 in_문학> 부제: 청개구리는 왜 말을 듣지 않는가?	10

3. 프로그램 구성 및 결과

연번	구분	일시	장소	프로그램명	참여자 수
32	스태이지 공모전 (전국형)	9/28(토) 17:00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슈발바흐 시청 이벤트홀	Die zweite Heimat (두 번째 고향)	46
33		9/28(토) 16:00	서울특별시 성북정보도서관 천장산우화극장	철. 문. 업 (철학, 문학 업고 뛰어!)	50
34		9/29(일) 17: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문화정원 커뮤니티공간 들	안톤체홉 <갈매기>의 ‘니나’ 재해석 - 복사골을 떠난 니나를 찾아서	30
35		9/29(일) 8:00	충북 청주시 들꽃요가	소설 잇는 요가	14
36		9/30(월) 19:30	부산광역시 부산청년센터 모락마루	어둠 속에서 꿀꺽!	10
37		9/27(금) 11: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한국여성문학의 목소리	35
38	협력 스태이지	9/27(금) 11: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극장	47
39		9/27(금) 14: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문학집배원x라운지콘서트 - 조성래 · 윤이안 작가 낭독회	29
40		9/28(토) 11: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문학의 울림 : 소리로 읽는 문학	48
41		9/28(토) 15: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문학광장 - 글틴이 뽑은 2024 오늘의 문학 북토크	53
42		9/28(토) 14:00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동요가 있는 한국 아동문학 한마당	396
43		9/28(토)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문학외전(外傳) - 북다&위픽 이야기	51
44		9/29(일) 11: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2024 상반기 Focus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북토크	75
45		9/30(월) 14: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문장의소리 특집공개방송 - 백 투 더 퓨처 (with 김민정 시인 · 황정은 소설가)	76
46		9/30(월)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영화를 보다, 글을 쓰다	78

연번	구분	일시	장소	프로그램명	참여자 수
47	협력 스태이지	10/1(화) 14: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문학의 비하인드 - 출판과 편집, 그리고 서점 이야기	54
48		10/1(화)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문학주간 Classic] BS 없는 BS 낭독회	48
49	기획전시	9/27(금) ~ 10/1(화)	마로니에공원 지하 다목적홀 (좋은공연예술센터 B2)	(전시) 낮의 집 밤의 집	670
		9/28(토) ~ 9/29(일)		(공연) 낮의 집 밤의 집	
50	참여 프로그램	9/27(금) ~ 10/1(화)	마로니에공원 야외	스핀오프 문장 완성하기	1,439
51				야외 북라운지	6,400
52	교보문고	9/27(금) ~ 10/1(화)	마로니에공원 야외	교보문고 책장터	-

02

프로그램

1. 개막식	14
1-1. 개막식 개요	
1-2. 개막식 구성	
2. 주제 스테이지	16
2-1. 구성	
2-2. 추진 절차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3. 스테이지 공모전	50
3-1. 개요	
3-2. 스테이지 공모전 심사 총평	
3-3. 대학로형 세부 프로그램	
3-4. 전국형 세부 프로그램	
4. 협력 스테이지	96
4-1. 구성	
4-2. 협력 프로그램 세부	
5. 기획전시	122
6. 참여 프로그램	124

1. 개막식

1-1. 개막식 개요

프로그램명	문학주간2024 스펀오프
일시	2024. 9. 27.(금) 19:00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내용	1부. 개막 선언(개막 선언 및 개막토크) 2부. 개막 공연
참여자	94명

1-2. 개막식 구성

구분	세부내용
축사	문화체육관광부 신은향 예술정책관
개막선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개막토크	• 문학주간2024 기획Table 위원 4인 초대 토크 — 소유정 평론가, 양근애 평론가, 한유주 소설가, 황예인 평론가
개막공연	• 낮고 가난한 자리에 남아 — 강우근 시인, 신미나 시인, 최현우 시인, 하림 싱어송라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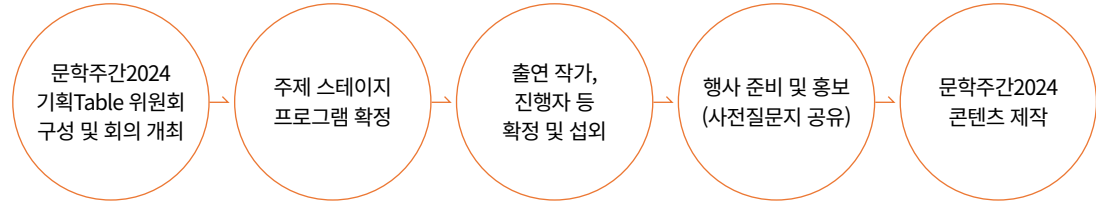
2. 주제 스테이지

2-1. 구성

프로그램명	출연진	일시	장소	관객 수
시 보다, 좋은 것	사회 소유정(평론가) 윤소진(편집자) 출연 송희지(시인) 신미인(시인) 양안다(시인) 여세실(시인) 임유영(시인) 조시현(시인) 차현준(시인)	9/27(금) 15: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80
‘사랑’ 외전 쓰기	사회 황예인(평론가) 출연 권혜영(소설가) 이희주(소설가) 조예은(소설가)	9/27(금)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64
낮고 가난한 자리에 남아	사회 최현우(시인) 출연 강우근(시인) 신미나(시인) 하림(싱어송라이터)	9/27(금) 19: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94
다시 쓰기에 대하여	사회 박인성(평론가) 출연 천희란(소설가) 박민정(소설가)	9/28(토) 14: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47
다음 페이지로, 확장되는 소설	사회 소유정(평론가) 출연 강화길(소설가) 최은미(소설가)	9/28(토)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64
침묵하는 사이마다	출연 윤해서(소설가) 서이제(소설가) 아를(뮤지션)	9/28(토) 19: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66
극장 외전	사회 양근애(연극평론가) 출연 구자혜(작/연출) 신재(연출)	9/29(일) 14: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67
소설, 역사의 외전: 초선, 카카듀, 강주룡	사회 서효인(안온북스 대표) 출연 박서련(소설가) 이정표(뮤지션)	9/29(일) 15: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59
가을을 위한 라이너 노트	사회 김현(시인) 출연 강아슬(싱어송라이터) 최진영(소설가)	9/29(일)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76
읽고 쓰고 만들기: 영화와 소설	사회 이우정(배우/영화감독) 출연 강진아(소설가/영화감독) 임솔아(소설가) 임오정(영화감독)	9/29(일)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99
인간 외전	사회 김민조(연극평론가) 출연 김연재(극작가) 신효진(극작가) 성수연(배우)	9/29(일) 19: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76
소설이라는 세계 안에서	사회 김선영(출판사 펀드 대표) 출연 예소연(소설가) 정기현(소설가) 함윤이(소설가)	9/30(월) 17:00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118
올봄에 헤어진 연인들을 위하여	사회 김현(시인) 출연 고명재(시인) 고선경(시인) 이소연(시인) 전옥진(시인)	9/30(월) 19: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89

프로그램명	출연진	일시	장소	관객 수
역사의 알고리즘	사회 유연주(연극평론가) 출연 정진새(작/연출) 윤현경(조연출) 고다연(배우) 김이현(배우) 박수빈(배우) 조명진(배우)	10/1(화) 15: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93
한 편의 시가 다음 면으로 이어질 때	사회 성현아(평론가) 출연 강성은(시인) 안미옥(시인) 임유영(시인)	10/1(화)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79
우리 곁의 파랑	사회 천선란(소설가) 출연 김태형(연출가) 서연정(뮤지컬배우) 송문선(뮤지컬배우) 진호(가수)	10/1(화) 19: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106

2-2. 추진 절차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개막공연 <낮고 가난한 자리에 남아>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 시	2024. 9. 27.(금) 19:00 ~ 20:30
장 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정병국 위원장, 신미향 예술정책관, 소유정, 양근애, 한유주, 황예인(기획Table 위원), 최현우(시인), 강우근(시인), 신미나(시인), 하림(싱어송라이터)
참여자 소개	최현우(시인) 201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 『사람은 왜 만질 수 없는 날씨를 살게 되나요』, 산문집 『나의 아름다움과 너의 아름다움이 다를지언정』, 그림책 『코코에게』 (공저) 등을 지었다. 강우근(시인) 202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 『너와 바퀴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신미나(시인) 200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 『싱고, 라고 불렀다』,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 시툰 『詩누이』, 『안녕, 해태』 (전3권), 산문집 『다시 살아주세요』 등이 있다. 하림(싱어송라이터) 1996년, 그룹 'Ven'으로 데뷔하였다. 그 이후 2001년 솔로 1집 앨범 [다중인격자], 2004년 2집 앨범 [Whistle In A Maze]를 발표하면서 이름을 알렸으며, '출국', '난치병',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등의 노래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다 년 간의 여행생활을 기반으로 한 월드뮤직 퍼포먼스를 선보여오고 있으며, 문화 기획자로서 2010년 문화기획사 <아틀리에오>를 설립하여 다양한 예술가들과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시인들은 신경림 시인의 시 한 편과 자신의 시 한 편을 읽고, 가수는 노래 부르고. “언덕에 바로 누워 아슬한 푸른 하늘 뜻 없이 바라다가 나는 잊었습네 눈물 도는 노래를” 잊을 수 없는 시인, 故신경림 시인 헌정 낭독 공연.
관객 수	94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사랑’ 외전 쓰기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27.(금) 17:00 ~ 18: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조예은(소설가), 권혜영(소설가), 이희주(소설가), 황예인(평론가)
참여자 소개	조예은(소설가) 2016년 『오버랩 나이프, 나이프』로 제2회 <황금가지 타임리프 공모전> 우수상을, 같은 해 『시프트』로 제4회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커피, 러브, 좀비』, 『트로피컬 나이트』, 장편소설 『뉴서울파크 젤리장수 대학살』, 『스노볼 드라이브』,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 『입속 지느러미』, 『적산가옥의 유령』, 연작 소설집 『깨맨 눈의 마을』, 단편소설 『만조를 기다리며』 등이 있다. 권혜영(소설가) 2020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권혜영은 데뷔작 이후 발표한 첫 작품 「당신이 기대하는 건 여기에 없다」가 2021년 문학과자성사 ‘이 계절의 소설’에 선정되며 일찍이 평단의 주목을 받아 왔다. 소설집 『사랑 파먹기』를 출간했다. 이희주(소설가) 2016년 장편소설 『환상통』으로 제5회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성소년』, 『나의 천사』, 연작소설 『사랑의 세계』, 단편소설 『마유미』 등을 출간했다. 황예인(평론가) 문학평론가. 출판사 스위밍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화진 연작소설 『공룡의 이동 경로』, 앤솔러지 『여름을 열어보니 이야기가 웅크리고 있었지』, 김해인 에세이 『편지: 어떤 만화 편집자 이야기』 등을 출간했다.
프로그램 내용	강렬한 사랑 이야기 – 『사랑 파먹기』, 『환상통』, 『커피, 러브, 좀비』의 세 작가가 모여 이야기하는 ‘뒷이야기’
관객 수	64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 보다, 좋은 것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27.(금) 15:00 ~ 18:30
장 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소유정(평론가), 윤소진(편집자), 송희지(시인), 신이인(시인), 양안다(시인), 여세실(시인), 임유영(시인), 조시현(시인), 차현준(시인)
참여자 소개	여세실(시인) 2021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으로 등단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출간작으로 시집 『휴일에 하는 용서』가 있다. 송희지(시인) 2019년 《시인동네》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썼다. 신이인(시인) 202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 『검은 머리 짐승 사전』이 있다. 양안다(시인) 2014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 『작은 미래의 책』, 『백야의 소문으로 영원히』, 『세계의 끝에서 우리는』, 『숲의 소실점을 향해』, 『천사를 거부하는 우울한 연인에게』, 『몽상과 거울』, 동인 시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가 있다. 창작 동인 ‘빨’로 활동하고 있다. 임유영(시인) 2020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오물렛』 등을 썼다. 조시현(시인) 2018년 《실천문학》 신인상에 단편 소설 「동양식 정원」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9년 상반기 [현대시] 신인상에 시 「섬」이 당선되었다. 작품집 『AnA Vol.01』, 소설집 『이 사랑은 처음이라서』를 함께 썼다. 2020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차세대 예술가 8인에 선정되었다. 차현준(시인) 2022년 《문학과 사회》 신인상에 시 「당귀 방」이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시 보다 2024』에 선정된 일곱 명의 젊은 시인들의 시 쓰기와 읽고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2024 문지문학상 후보작이기도 한 작품들과 주목할 만한 시인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지금의 한국 현대시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길잡이가 되는 시간
관객 수	80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다시 쓰기에 대하여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28.(토) 14:00 ~15: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박인성(평론가), 천희란(소설가), 박민정(소설가)
참여자 소개	박인성(평론가)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아나크로니즘Anachronism의 시간성과 수사학: 1970년대 서사문학의 동시대성에 대한 재구성』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평론 부문으로 등단한 뒤 문학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계간지 『자음과모음』의 편집위원이다. 천희란(소설가) 2015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영의 기원』, 경장편소설 『자동 피아노』가 있다. 2017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박민정(소설가) 2009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단편 소설 『생시몽 백작의 사생활』이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유령이 신체를 얻을 때』, 『아내들의 학교』, 장편소설 『미스 플라이트』, 『서독 이모』가 있다. 2015년 김준성문학상, 문자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세실, 주희』로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했다. 2019년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스핀오프’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작품들을 최근 발표한 작가 두 사람(혹은 셋)이 작업 과정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관객 수	47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다음 페이지로, 확장되는 소설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28.(토) 17:00 ~ 18: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소유정(평론가), 강화길(소설가), 최은미(소설가)
참여자 소개	소유정(평론가) 201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사이’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이제니의 시 읽기」가 당선되어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산문집 『세 개의 바늘』과 비평 연구서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공저)가 있다. 최은미(소설가) 2008년 《현대문학》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너무 아름다운 꿈』, 『목련정전 木蓮正傳』, 『눈으로 만든 사람』, 중편소설 『어제는 봄』, 장편소설 『아홉번째 파도』, 『마주』 등이 있다. 젊은작가상,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강화길(소설가) 201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방」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다른 사람』, 『대불호텔의 유령』, 중편소설 『다정한 유전』, 소설집 『괜찮은 사람』, 『화이트 호스』, 『안진: 세 번의 불』 등이 있다. 한겨레문학상, 구상문학상 젊은작가상, 젊은작가상, 백산애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어떤 소설의 끝은 다음 소설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단편소설 「여기 우리 마주」를 장편소설 『마주』로 확장한 최은미, ‘안진’이라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쌓고 있는 강화길과 함께 확장되는 소설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
관객 수	64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침묵하는 사이마다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 시	2024. 9. 28.(토) 19:00 ~ 20:30
장 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윤해서(소설가), 서이제(소설가), 아를(뮤지션)
참여자 소개	윤해서(소설가) 소설가. 2010년 단편소설 「최초의 자살」로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코러스크로노스』, 장편소설 『움푹한』 『0인칭의 자리』, 『암송』, 『그』 등이 있다. 2021년 김현문학패를 받았다. 서이제(소설가) 2018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에 중편소설 「셀룰로이드 필름을 위한 선」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소설집 『0%를 향하여』 등을 펴냈다. 젊은작가상, 오늘의작가상, 제45회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아를(뮤지션) 2013년 정규앨범 [들]을 발매했다.
프로그램 내용	낯선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는 뮤지션 아를의 연주와 아름답고 실험적인 소설을 쓰는 두 소설가의 낭독이 어우러진 공연
관객 수	66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가을을 위한 라이너 노트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 시	2024. 9. 29.(일) 17:00~18: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김현(시인), 강아술(싱어송라이터), 최진영(소설가)
참여자 소개	김현(시인) 2009년 《작가세계》로 등단했다. 시집 『글로리홀』, 『입술을 열면』, 『호시절』, 『낮의 해변에서 혼자』, 『다 먹을 때쯤 영원의 머리가 든 매운탕이 나온다』, 『장송행진곡』, 소설집 『고스트 듀엣』, 『고유한 형태』, 산문집 『걱정 말고 다녀와』 『아무튼, 스웨터』, 『질문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 『어른이라는 뜻밖의 일』, 『다정하기 싫어서 다정하게』, 『당신의 자리는 비워둘게요(공저)』가 있다. 김준성문학상,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강아술(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 정규 앨범으로 [당신이 놓고 왔던 짧은 기억] [정직한 마음] [사랑의 시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 등이 있고, 드라마 <청춘시대>, <서른, 아홉>, <모범택시> 등의 사운드트랙에도 참여했다. 최진영(소설가) 2006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했다. 장편소설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끝나지 않는 노래』, 『원도』, 『구의 증명』, 『해가 지는 곳으로』, 『이제야 언니에게』, 『내가 되는 꿈』, 『단 한 사람』, 소설집 『팽이』, 『겨울방학』, 『일주일』 『비상문』, 『오로라』가 있다. 한겨레문학상, 이상문학상, 만해문학상, 백신애문학상, 신동엽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소설가와 가수가 듀엣이 되어 꾸미는 무대 문학은 노래의 시작이 되고, 노래는 문학의 시작이 되고. 어떤 무대는 삶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관객 수	76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극장 외전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29.(일) 14:00 ~ 15:30
장 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양근애(연극평론가), 구자혜(작/연출), 신재(연출)
참여자 소개	양근애(연극평론가) 연극평론가와 드라마투르그로 활동하며 명지대 문예창작학과에서 희곡을 가르치고 있다.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신파의 세기>, <우리의 아름다웠던 날들에 관하여> 등에 참여했고 연극평론집으로 『‘이후’의 연극, 달라진 세계』 (2020)가 있다. 구자혜(작/연출) 희곡을 쓰고 연출을 한다. 가해자 연작으로 불리는 <킬링 타임> <commercial, definitely> <윤리의 감각> <가해자 탐구_부록:사과문작성가이드>를 거치고 난 후, 사라진 개를 찾는 <그로토프스키 트레이닝>을 통해 존재의 목소리를 듣는 쪽으로 모퉁이를 돌았다. 미투 이후 가해자들이 돌아오는 세계를 그린 <타즈매니아 타이거>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천착해 온 무대 위 재현의 논리를 다루는 <오직 관객만을 위한 두산아트센터 스트리밍서비스공연> 등을 썼다. 또한 동물의 고통과 동물 재현의 윤리를 다룬 희곡을 썼다. 그 외 <곡 비>, <디스 디스토피아>, <21세기... 연극 말이다> 등을 썼다. 신재(연출) 2013년, 복직투쟁 농성 중인 쿨트콜택 해고노동자들과 연극<구일만 햄릿>을 올리며 연출가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0set프로젝트’를 이끌며 2016년부터 장애와 비장애에 경계에 관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해화동1번지 동인으로 활동했고 <불편한 입장들>, <나는 인간>, <관람 모드-보는 방식>, <배우는 사람>, <등장인물> 등을 만들었다. 동아연극상과 백상연극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얼마 전 안산에서 공연된 <세익스피어 소네트>(구자혜)는 안산 올림픽체육관과 4.16 생명 공원을 ‘걷는 연극’이다. 배우 혹은 시민과 함께 걸으며 무수히 많은 자기의 소네트를 짓는 존재들을 만나는 동안 과거의 시간이, 매일의 사건이 떠오른다. 0set프로젝트(신재)의 연극은 해화동을, 안산을, 광장을, 거리를 ‘걷는 연극’이다. 극장 안으로 초대받지 못한 존재들을 바깥의 극장을 전유함으로써 환대하는 공연들은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구자혜와 신재의 작업들을 돌아보면서 극장 안팎의, 아니 바깥의 연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관객 수	67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읽고 쓰고 만들기: 영화와 소설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29.(일) 17:00 ~ 18:30
장 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이우정(배우/영화감독), 강진아(소설가/영화감독), 임솔아(소설가), 임오정(영화감독)
참여자 소개	이우정(배우/감독) 2006년부터 상업영화 편집보, 장단편 독립영화 주조연 배우로 활동했다. 단편 <송한나>(2008)로 첫 영화 연출을 시작했으며, 단편 <애드벌룬>(2011)으로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선재상을 수상했다. 이후에도 여러 편의 단편을 연출하고, 주조연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제작한 옴니버스 장편 <서울연애>(2014)에서 <서울생활>을 연출했다. <최선의 삶>은 첫 장편 데뷔작이다. 강진아(소설가/감독) 다수의 단편영화와 장편영화를 연출했다. 대표작으로 『환상 속의 그대』가 있다. 『오늘의 엄마』는 첫 장편소설이며, 이어서 2021년 『미러볼 아래서』를 출간했다. 2023년 장편소설 『mymy』로 제11회 교보문고 스토리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임솔아(소설가) 소설가이자 시인이다. 2013년 ‘중앙신인문학상’(시 부문)과 2015년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눈과 사람과 눈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 중편소설 『집승처럼』, 장편소설 『최선의 삶』, 『나는 지금도 거기 있어』, 시집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 『갯패킹』 등을 펴냈다. 신동엽문학상·문지문학상·젊은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임오정(감독) 영화감독. 대표작으로는 영화 <지옥만세>가 있다. 2009년 제8회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거짓말>(2009)로 최우수작품상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 제15회 대구단편영화제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2013)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이야기란 무엇일까? 창작자들은 다른 장르에서 어떤 영감 혹은 영향을 받을까?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장르의 한계 혹은 새로운 상상력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서로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4인이 자유롭게 수다 떠는 자리.
관객 수	99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소설, 역사의 외전: 초선, 카카듀, 강주룡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 시	2024. 9. 29.(일) 15:00 ~ 16:30
장 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서효인(안온박스 대표), 박서련(소설가), 이정표(뮤지션)
참여자 소개	서효인(안온박스 대표) 시인, 출판사 안온박스 대표. 김혼비 산문집 『다정소감』과 정세랑 미니픽션 『아라의 소설』, 박서련 장편소설 『카카듀』 등의 책을 출간하였다. 시인으로 『여수』, 『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혐오하고』, 『거기에는 없다』 등의 시집을 출간하였다. 박서련(소설가) 지은 책으로 장편소설 『체공녀 강주룡』, 『마르타의 일』, 『더 설리 클럽』, 『코믹 헤븐에 어서 오세요』, 『마법소녀 은퇴합니다』, 『프로젝트 브이』, 『카카듀』, 『페월: 초선전』, 소설집 『호르몬이 그랬어』,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나, 나, 마들렌』, 『고백루프』 등이 있다. 2018년 한겨레문학상, 2021년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2023년 이상문학상 우수상 등을 받았다. 이정표(뮤지션)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 예술인력으로 선정되는 등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가수, 연주자, 작곡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8년 <Like A Butterfly>를 시작으로, <특별한 독후감>, <Milestone>, <경성살롱> 등의 정규앨범을 발매하였다. K-POP과 드라마 OST 작사/작곡 또한 겸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탁월한 이야기꾼 박서련이 길어 올린 역사 속 인물과 장소,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풍미한 여가수들의 매력적인 가창법을 계승, 재해석해 온 뮤지션 이정표의 노래가 함께하는 무대
관객 수	59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인간 외전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29.(일) 19:00 ~ 20:30
장 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김민조(연극평론가), 김연재(극작가), 성수연(배우), 신호진(극작가)
참여자 소개	김민조(평론가) 2018년부터 연극 비평을 시작하였다. 동시대 퀴어, 페미니즘, 장애 연극, 포스트 휴먼 연극 등 흐름에 맞춰서 의미 있는 반응을 생산하는 비평가가 되고자 한다. 김연재(극작가) 극작가. 희곡에서의 여성적 글쓰기를 실천하며 문자, 말, 몸의 사이를 탐구한다. 극단 동 월요연기연구실에서 인류세 이후의 연극 만들기를 실험하고 있다. <낙과죽기>, <복도 굴뚝 유골함>, <매립지> 등을 쓰고 공연했다. 『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이음), 『한쪽 발은 무덤을 딛고 나는 서 있네』 (나선프레스, 근간)를 썼다. 성수연(배우) 배우이자 창작자. 연극 <한꺼번에 두 주인을>(2012), <몇 가지 방식의 대화들>(2014), <비포 애프터>(2015), <엑트리스 원: 국민 로봇배우 1호>(2019), <로드킬 인 더 씨어터>(2021) 등에 참여했으며, 제8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신인연기상(2015), 제52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 연기자상(2016), 2019년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2019)을 수상했다. 신호진(극작가) 극작가. 극작가 동인 (괄호) 소속. 희곡 <톡>, <머핀과 치와와>, <탈피>, <밤에 먹는 무화과> 등을 썼고, 희곡집 『여자는 울지 않는다』 (공저)를 냈다.
프로그램 내용	오랫동안 인간이 점유해 온 무대에 비인간 객체들이 틈입해 들어온다. 동물, 식물, 광물, 로봇... 작가는 포스트휴먼을 상상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지우고 허물고 다시 쓴다. 그리고 배우는 인간 아닌 존재를 연기한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비인간 극작술을 보여준 작가 김연재, 신호진과 비인간 연기의 문을 연 배우 성수연과 함께 비인간 연극의 가능과 불가능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
관객 수	76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올봄에 헤어진 연인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30.(월) 19:00 ~ 20: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김현(시인), 고명재(시인), 고선경(시인), 이소연(시인), 전옥진(시인)
참여자 소개	김현(시인) 2009년 《작가세계》로 등단했다. 시집 『글로리홀』, 『입술을 열면』, 『호시절』, 『낮의 해변에서 혼자』, 『다 먹을 때쯤 영원의 머리가 든 매운탕이 나온다』, 『장송행진곡』, 소설집 『고스트 듀엣』, 『고유한 형태』, 산문집 『걱정 말고 다녀와』, 『아무튼, 스웨터』, 『질문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 『어른이라는 뜻밖의 일』, 『다정하기 싫어서 다정하게』, 『당신의 자리는 비워둘게요(공저)』가 있다. 김준성문학상,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고명재(시인) 202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 산문집 『너무 보고 플 땀 눈이 온다』가 있다. 고선경(시인) 202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시 「력키슈퍼」로 등단했다. 시집 『샤워젤과 소다수』를 출간했다. 이소연(시인) 2014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 『거의 모든 기쁨』, 『콜리플라워』, 『은지와 소연』(공저), 산문집 『너무 예뻐서 마음에 품는 단어』, 『고라니라니』(공저)가 있다. 양성평등문화상 신진여성문화인상을 수상했다. 전옥진(시인) 2014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여름의 사실』, 시산문집 『선릉과 정릉』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시 좋아하세요?” 현실의 사랑에서 파생된 시. 그런 시들 덕분에 새로이 시작되는 현실의 사랑.
관객 수	89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소설이라는 세계 안에서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30.(월) 17:00 ~ 18:30
장 소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참여자	김선영(출판사 핀드 대표), 예소연(소설가), 정기현(소설가), 함윤이(소설가)
참여자 소개	김선영(출판사 핀드 대표) 출판사 '핀드'의 대표로, 한국문학 편집자로 활동해오고 있다. 춤에 관한 에세이집 『아무튼, 스윙』을 출간하였다. 예소연(소설가) 2021년 《현대문학》 6월호에 소설 「도블」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해, 2024년 제25회 이효석문학상, 2023년 제13회 문지문학상, 2023년 제5회 황금드래곤문학상을 수상했다. 동시대의 감수성을 증언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장편소설 『고양이와 사막의 자매들』, 소설집 『사랑과 결함』을 출간했다. 정기현(소설가) 2023년 문학 웹진 《LIM》에 단편소설 「농부의 피」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듬해 여름에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문학과지성사 '이 계절의 소설'에 선정되었다. 은은한 광기와 리드미컬한 문체로 일찌감치 독자를 사로잡고 있으며, 첫 소설집을 준비중이다. 함윤이(소설가) 2022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되돌아오는 꿈」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이듬해 봄 「자개장의 용도」로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다원예술 프로젝트 『서울집』을 기획 및 집필했으며, 스튜디오 '목소'와 '풀옵션'의 텍스트를 맡고 있다. 첫 소설집을 준비중이다.
프로그램 내용	처음은 늘 설레는 법, 반짝이는 세 명의 신인이 이야기하는 편집하고 소설 쓰는 삶.
관객 수	118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한 편의 시가 다음 면으로 이어질 때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10. 1.(화) 17:00 ~ 18: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성현아(평론가), 강성은(시인), 안미옥(시인), 임유영(시인)
참여자 소개	성현아(평론가) 2021년 《경향신문》,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강성은(시인) 2005년 계간 《문학동네》로 등단했다. 시집 『구두를 신고 잠이 들었다』, 『단지 조금 이상한』, 『Lo-fi』, 『별일 없습니다 이따금 눈이 내리고요』, 장편소설 『나의 잠과는 무관하게』가 있다. 안미옥(시인) 201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 『온』, 『힌트 없음』,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산문집 『조금 더 사랑하는 쪽으로』 등이 있다. 김준성문학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임유영(시인) 2020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오물렛』 등을 썼다.
프로그램 내용	쓰는 사람이기 전에 읽는 사람이었던 시인들. 그들을 있게 한 시와 시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한 편의 시가(한 명의 시인이) 어떻게 다음의 시를(다음의 시인을) 불러오는지를 경험하는 시간.
관객 수	79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역사의 알고리즘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 시	2024. 10. 1.(화) 15:00 ~ 16:30
장 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유연주(연극평론가), 정진새(작/연출), 윤현경(조연출), 고다연(배우), 김이현(배우), 박수빈(배우), 조명진(배우)
참여자 소개	유연주(연극평론가) 연극평론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연극을 꿈꾼다. 정진새(작/연출) 극작가, 연출가. 극단문 소속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엑트리스원>, <엑트리스투>,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때> 등의 SF 연극을 창작하였고, <신파의 세기>,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과 같은 작품이 있다. 2021년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 2022년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수상했다. 윤현경(조연출) <시스터 엑트리스> 조연출. 청년단 소속으로 2024 연극 <크리스천스> 조연출로 데뷔했다. 고다연(배우) 배우. 2020년 뮤지컬 <미스 그린>의 멀티 역으로 데뷔하였다. 연극 <시스터 엑트리스>에서 힐데 역을 맡았고 <우주로 간 스킨답서스>, <be 인간>, <맥주한켄>, <애프터 마리아>에 출연했다. 김이현(배우) 배우.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다. <시스터 엑트리스> 마리아, 샤일록 역으로 데뷔했다. 박수빈(배우) 연극배우. <시스터 엑트리스> 이브 역으로 데뷔했다. 조명진(배우) 연극배우. <시스터 엑트리스>에서 까탈 역을 맡았다. 2022년 대학 졸업 후 <올랜도>의 작가 역으로 데뷔했고 음악극 <유토피아>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활동을 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연극의 죽음과 로봇 배우의 탄생을 이야기했던 정진새 작/연출 <엑트리스원: 국민로봇배우 1호>, <엑트리스투: 악역전문로봇>의 스핀-오프 <시스터 엑트리스>를 낭독공연으로 만나보는 시간. 연극이 금지된 중세, 수도원의 과학 수사대는 과연 연극을, 아니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관객 수	93명



2. 주제 스테이지

2-3. 주제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폐막식] 우리 곁의 파랑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 시	2024. 10. 1.(화) 19:00~20:30
장 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천선란(소설가), 김태형(연출가), 서연정(뮤지컬배우), 송문선(뮤지컬배우), 진호(가수)
참여자 소개	천선란(소설가) 2019년 《브릿G》에 장편소설 《무너진 다리》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천 개의 파랑》,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 《나인》, 《랑과 나의 사막》, 소설집 《어떤 물질의 사랑》, 《노랜드》, 연작소설 《이끼숲》 등이 있다. 제4회 한국 과학문학상 장편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태형(연출가) 연극연출가. 2007년 연극 <오월엔 결혼할거야>로 데뷔하여, 연극, 뮤지컬, 창극, 오페라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국내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로 2021년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연출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 작품으로는 최초로 영국 웨스트엔드에 진출하였다. 이 외에도 뮤지컬 <천 개의 파랑>, <개와 고양이의 시간>, 연극 <히스토리보이즈> 등을 연출하였다. 서연정(뮤지컬배우) 뮤지컬배우. 서울예술단 소속으로 2017년 뮤지컬 <서른즈음에>의 앙상블 역으로 데뷔하였다. 이후 뮤지컬 <굿 셰вра 금순아>의 귀향, <금란방>의 매화, <신과 함께>의 덕춘, <천 개의 파랑>의 연재 등으로 분하였다. 송문선(뮤지컬배우) 퓨전 국악그룹 <미지> 보컬 출신의 뮤지컬배우이다. 2016년 서울예술단에 입단하여 <윤동주, 달을 쏘다>의 선화, <국경의 남쪽>의 연화 역 등에 발탁되었다. <곤짜이, 이상>에서 이상의 여동생 옥희, 뮤지컬 <신과 함께_이승편>의 조왕신, <다원 영의 악의 기원>의 루미, <금란방>의 매화 등으로 분하였다. 진호(가수)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 <펜타곤>의 메인보컬로 뮤지컬 <천 개의 파랑>의 콜리로 분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천선란의 소설 『천 개의 파랑』을 원작으로 하는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을 이끈 연출가와 배우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작품의 원작자 천선란이 뮤지컬로 재해석된 <천 개의 파랑>에 대해 배우 및 연출가에게 묻는다. 텍스트를 살아 숨 쉬는 언어와 몸짓으로 만들기 위한 <천 개의 파랑> 팀의 비하인드를 들여볼 수 있는 무대.
관객 수	106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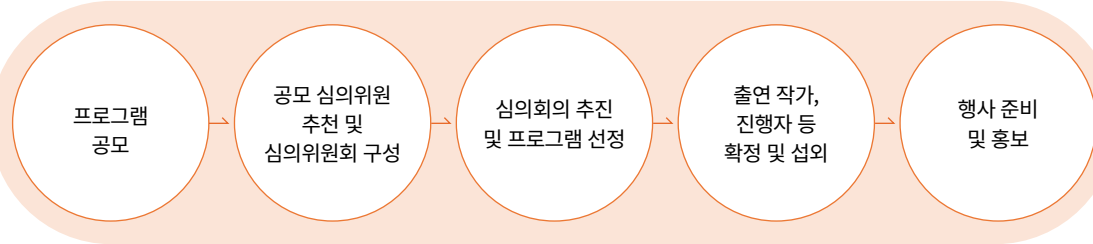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도 문인과 문학 향유자, 매개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학 축제의 장, <문학주간2024>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특히 작가와 독자, 그 외 문학 향유자가 상호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및 제작, 출연하는 무대를 선보였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스핀오프(spin-off)’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를 환영하였다. 특히 무대와 객석, 쓰는 이와 읽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문학의 가치를 추구하는 스테이지가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감각으로 새로운 형식의 문학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채워진 시간이었다.

행사명	문학주간2024 스핀오프(spin-off)
추진목적	- 전국 규모 국민 참여형 연례 문학축제 개최로 문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인 문학 진흥 불 조성 - 문인과 문학 향유자, 매개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학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문학계에 활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기간	2024. 9. 27.(금) ~ 2024. 10. 1.(화)
지원규모	- 20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 - 프로그램별 최대 2,000,000원 지원
신청기간	2024. 7. 8.(월) ~ 2024. 7. 22.(화) 11:00까지
신청대상	-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 분야 창작자 및 향유자(팀 참여도 가능) -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및 기획자의 경우에도 자유롭게 참여 가능
신청내용	문학작품을 통해 소통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50분 내외 자유 형식의 오프라인 진행 프로그램
신청유형	1. 대학로형 -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또는 대학로 인근 실내 공간에서 진행 - 공간대관 및 기본 세팅 사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기본적인 조명, 음향 등) 2. 전국형 - 마로니에공원 외 공간에서 자유롭게 진행 - 수도권 외 지역 프로그램 우대 ※ 프로그램의 온·오프라인 병행 희망 시 선정 후 사무처 협의 진행

운영방법	프로그램 제안서 검토/심사평가→약정 체결→프로그램 진행→결과보고서→프로그램 예산 지급(사후) - 관객 참가비는 무료 운영 권고 - 프로그램 운영 최소 2~3주 전 홍보 진행 ※ 문학주간 공식 SNS채널(블로그)을 활용한 홍보 포함 - 프로그램 운영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선정자 대상OT를 통해 세부내용 안내
선발 팀 수	대학로형 10팀 / 전국형 10팀 총 20팀

공모 프로그램 추진 절차



대학로형

프로그램명	팀명	출연진	일시	장소	관객 수
Fire-ing House	장소통역사	최추영(소설가) 익수케(미디어아티스트) 윤태균(사운드아티스트) 최리외(번역가) 김진설(디자이너)	9/28(토) 14: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50
시 들어보라	프로젝트 보라	이지아(시인, 극작가) 김지윤(시인, 평론가) 황수아(시인, 극작가) 조은영(시인) 강백수(시인, 가수) 고윤희(배우) 권겸민(배우)	9/29(일) 11:00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296
카프카 여동생이 그랬다 - <변신>속 여동생 그레타의 변(辯)	낭독의 내심	이민경(극작가) 김해미(배우) 전성환(배우) 이진홍(배우) 임정아(무대디자이너)	9/29(일) 11:00	예술가의집3층 다목적홀	49
회전하는 시	회전하는 시	강우근(시인) 김희수(작가) 신이인(시인) 유선헤(시인)	9/29(일) 14:00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257
한시 음악회: 옛 시인과 공명하다	기린스튜디오	함그동밴드 배이화(작곡가/음악감독) 민경찬(작곡가/음악감독) 몽게(싱어송라이터) 김미성(첼리스트)	9/29(일) 14:00	예술가의집2층 라운지	55
서남 전라도 서사시 『그라시재라』 입체낭독	그라시재라	조정(시인) 박사(작가) 임근아(배우) 김지애(배우) 목정윤(배우) 김선화(배우) 김가빈(배우) 윤숙희((전)파주여성민우회 대표) 진명희(다큐멘터리 방송작가) 최은영(고양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9/29(일) 17:00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423
21세기 카프카 사용법	창작동인 겸	이소연(시인) 이서하(시인) 주민현(시인) 전영규(평론가)	9/30(월) 11:00	예술가의집2층 라운지	71
날말의 낭독	이예진	이예진(시인)	9/30(월) 11:00	예술가의집3층 다목적홀	20
백 년 동안의 백석	팀 분리수거	임지은(시인) 강혜빈(시인) 김은지(시인) 한연희(시인)	9/30(월) 14:00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116
X-파일 멀더와 스컬리의 낭독극 : “유리로 만들어진 세상”	T9-H 엔터테인먼트	서혜정(성우) 이규화(성우) 강현철(프로듀서) 이호영(작가/연출) 이용석(뮤지션) 상지윤(작가/극단운영) 강미선(배우) 배인규(배우) 서태원(배우) 강예영(싱어송라이터) 이동하(무대/영상디자이너)	10/1(화) 14:00	예술가의집3층 다목적홀	87

전국형

프로그램명	팀명	출연진	일시	장소	관객 수
Spin-off - 내 안의 금쪽이	창작동인어흥	한아(작가) 이자경(아동문학 작가) 이태성(뮤지션) 전현미(작곡가, 음악감독)	9/27(금) 18:30	부산광역시 책과 아이들	11
현실 속 소설 체험, 그리고 나로 스핀오프(spin-off)	소년이온다	오현진(교수) 이근희(평론가) 권혁민(대학 교직원) 박지훈(칼럼니스트)	9/27(금) 12:00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및 5.18민주화운동 주요 사적지	10
이를테면 스핀 오프의 방식으로	팀남향	이효영(시인, 사진가) 권민경(시인) 송지현(소설가) 송재량(사진가) 나디아(뮤지션)	9/28(토) 16:00	강원 강릉시 갤러리감각	14
토크콘서트 Spin-OFF: 동부민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연합회	박수관(대구무형유산보유자) 김용기(평론가) 이생강(기획자)	9/28(토) 14:00	대구광역시 대구무형유산 전수교육관	42
<연극 in_문학> 부제: 청개구리는 왜 말을 듣지 않는가?	해우	정주희(프리랜서 기획자, 연극배우) 김동재(프리랜서 배우, 교육자) 윤혜지(미술교육가, 동화작가)	9/28(토) 16:00	인천광역시 창작집단 발아 LAB실	10
Die zweite Heimat (두 번째 고향)	호이테 Heute-오늘	박소진(시인) 노미자(시조시인) 최군자(시조시인) 최영애(서양화가) 이지은(서예가) 전예진(바이올리니스트)	9/28(토) 17:00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슈발바흐 시청 이벤트홀	46
철. 문. 업 (철학, 문학 업고 뛰어!)	인문ing	김미월(소설가) 안광복(철학자) 양연식(연출가) 김은정(연극배우) 박성일(연극배우) 장경천(피아니스트)	9/28(토) 16:00	서울특별시 성북정보도서관 천장산우화극장	50
안톤체홉 <갈매기>의 ‘니나’ 재해석 - 복사골을 떠난 니나를 찾아서	이다해	이다해(배우, 연출 기획자) 김영승(작가, 연출) 강수민(음향 엔지니어) 이영옥(지역문화예술단체 운영) 이종환(무대감독)	9/29(일) 17: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문화정원 커뮤니티공간들	30
소설 잇는 요가	정빛그림	정빛그림(소설가) 김은지(요가원 운영) 유지연(우디앤마마 출판사 대표)	9/29(일) 8:00	충북 청주시 들꽃요가	14
어둠 속에서 꿀꺽!	기억과 부엌사이	김미양(기획자, 작가) 김리엘(오디오 콘텐츠 크리에이터) 김병용(영상 감독) 양송민(기획 보조, 스텝)	9/30(월) 19:30	부산광역시 부산청년센터 모락마루	10

3. 스테이지 공모전

3-2. 스테이지 공모전 심사 총평

심사위원	김효나 (소설가) 서윤후 (시인) 서효인 (안온복스 대표) 이오진 (연극연출가) 조대한 (평론가)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2024년 문학주간 스테이지 프로그램 공모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2024. 7. 31.(수) 14:00 ~ 16:30,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심의 총평	문학을 새롭게 향유할 수 있는 연례 문학축제 ‘문학주간 스테이지’는 매년 참신하고 활기찬 프로그램으로 독자들을 만나왔다. 문학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진귀한 자리이자, 문학의 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스핀 오프(spin-off)’라는 주제로 프로그램 공모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64건(대학로형 33건, 전국형 31건)의 프로그램 기획이 접수되었다. 다섯 명의 심사위원회는 각각 기획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개별평가를 진행한 뒤, 합산된 점수를 토대로 대면 심사를 거쳐 총 20건의 프로그램(대학로형10건, 전국형 10건)을 선정하였다. 2024년 문학주간 스테이지의 주제 ‘스핀 오프(spin-off)’에 걸맞은 참신하고 새로운 기획들을 엿볼 수 있었다. 주제에 대한 이해도부터 작품을 어떻게 재해석해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고루 갖춘 프로그램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텍스트를 무대로 옮겨올 때 나눌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해당 기획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있는지도 기준이 되었다. 문학과 인접해 있는 다양한 예술 장르가 접목된 기획부터, 의미 있는 고전 작품을 시의적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기획, 참여자들이 직접 작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먼저 만나볼 수 있었다. 전국형에서는 해외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역 문화를 흡수한 기획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형태가 세분화됨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어떤 신선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획인지, 문학주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함을 지녔는지도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20건의 프로그램은, 해당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성을 지닌 기획들이었다. 참여하는 독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문학의 의미를 확산할 수 있다는 데에 기대감을 주었으며, 사업을 구현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지원서 자체만으로 프로그램이 지닌 장점을 충분히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띤 마음으로 공모한 지원자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아울러, 선정된 프로그램이 다가올 문학주간 스테이지에서 다양한 독자들과 만나 문학을 매개로 공감하고, 교류하는 가교 역할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선정된 분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2024
문학주간
스테이지
SPIN-OFF
공모전

2024 문학주간
접수기간 2024. 7. 8.(월) ~ 7. 2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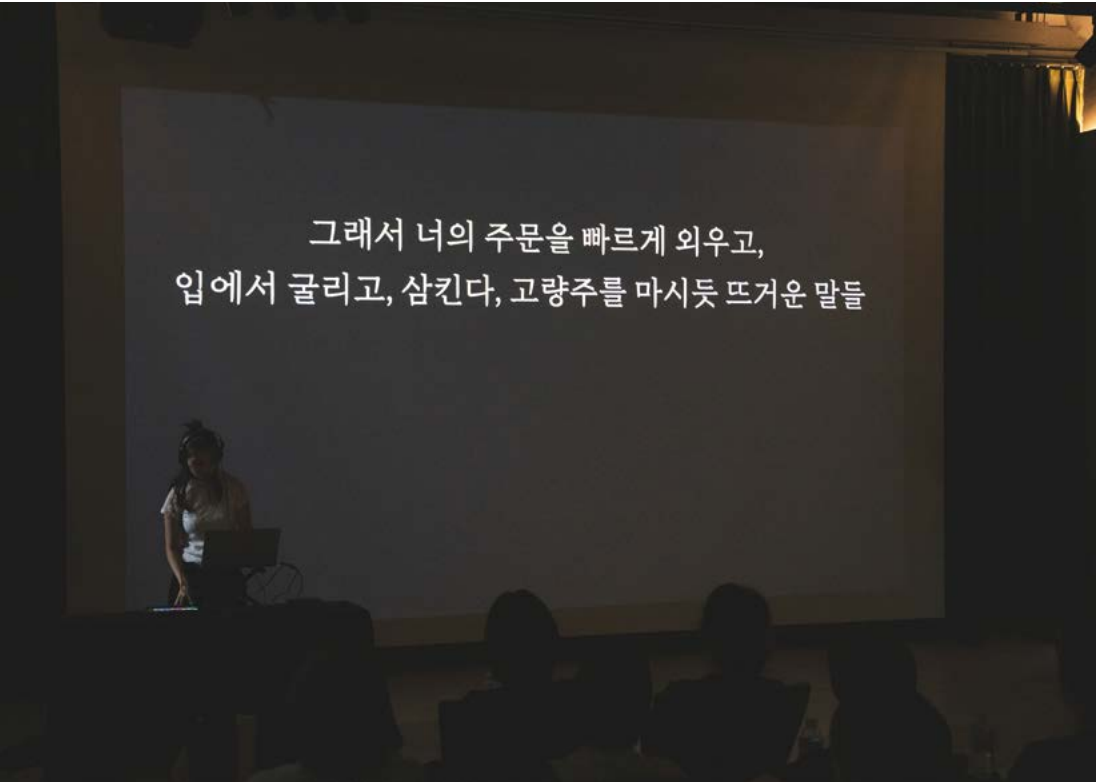
지원 내용
20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예정)
프로그램별 최대 2,000,000원 지원

2024 문학주간
접수기간 2024. 7. 8.(월) ~ 7. 22.(월) 11:00까지
운영기간 2024. 9. 27.(금) ~ 10. 1.(화)
※ '문학주간' 기간 내 운영, 구체적인 일정은 선정 후 협의 예정
접수방법 - 온라인 : 이메일 제출 (arkomunhak@arko.or.kr)
- 오프라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누주 본원 (진라남도 나누시 빛가람로 640) 1층 접수처
결과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www.arko.or.kr) 공지
제출서류 프로그램 제안서 1부(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포함)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T. 061-900-2331
E. arkomunhak@arko.or.kr

3. 스테이지 공모전

3-3. 대학로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Fire-ing House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 시	2024. 9. 28.(토) 14:00 ~ 15:30
장 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장소통역사 최추영(소설가), 익수케(미디어아티스트) 윤태균(사운드아티스트),최리외(번역가), 김진설(디자이너)
참여자 소개	최추영(소설가) 장소통역사 소속 ·소설 『공포워크숍』 발표(『문학3』, 2020), 소설 『무심과 영원』 (『초 단위의 동물 (열림원)』, 2023) 발표 ·낭독-상연극 <단 하나의 대지> 총괄 기획 및 글 ·웹진 비유 <아름 단위 나누기> 연재 총괄 기획 및 글 익수케(미디어 아티스트) 장소통역사 소속 ·개인전<력중력(Altered Gravity)>(팩션, 서울, 2023) ·의향서 Letter of Intent : 익수케 Ik Soo Kaay(10의n승 세운상가, 서울, 2024) 외 다수 전시 참여. 윤태균 Einox(사운드 아티스트) ·2023 China Tour (Oil Club 등) ·2022 Lapita Festival 참여 (Tokyo) ·EP <Meta>(Affin, 2020) ·사운드 관련 전시 기획 다수 최리외(번역가) ·2023 문학주간 ‘막간의 소리들’ 기획, 진행 ·<Y/N>, <당신의 소설에 도롱뇽이 없다면>, <벌들의 음악> 등 문학 단행본 번역 ·<악인의 서사> 공저 참여 김진설(디자이너) ·Youtube <나무주연상> 운영 중
프로그램 내용	2021년에 제작한 ‘fire-ing House’를 재각색한 실시간 이미지 DJ 공연이다. 최추영과 익수케는 '불안'과 '장소'라는 주제 안에서 5년 동안 기억을 공유하고 작업을 진전해 왔다. 최추영의 소설을 단순히 이미지로의 소재(멜감) 아닌 확장의 소재 기반으로 둔다. 다시 말해, 공동 작업 방식으로 소설이 주는 감각에 집중하여 시각작가 익수케 의해 사운드가 각인된 이미지 오브제로 재구성된다. 종이를 벗어나는 문학이 사라짐을 감내하며 전달할 수 있는 문학+시각적 실험을 시도한다. 사운드에 반응하는 실시간 영상 DJ를 관람하는 방식을 관람객에게 선보이며, 장소통역사의 문학과 미디어아트의 연결성을 조명한다.
관객 수	50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3. 대학로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 들어보라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 시	2024. 9. 29.(일) 11:00 ~ 12:30
장 소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참여자	프로젝트 보라ㅣ이지아(시인, 극작가), 김지윤(시인, 평론가) 황수아(시인, 극작가), 조은영(시인), 강백수(시인, 가수), 고윤희(배우), 권경민(배우)
참여자 소개	이지아(시인, 극작가) 《월간문학》회극 당선, 《쿨투라》시 당선, 시집 『오투퀴르』, 『이렇게나 뽀송해』, 『아기늑대와 걸어가기』, 『한국 시극 작품에 나타난 공간성』 김지윤(시인, 평론가) 《문학사상》시부문 신인상, 《서울신문》신춘문예 비평 당선, 시와시학상 수상,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학전공 교수 황수아(시인, 극작가) 《문학수첩》시부문 신인상, 《조선일보》신춘문예 회극부문 당선, 아르고 창작산실 대본공모 당선, 시집 『윈트겐행 열차』 조은영(시인) 《시인수첩》신인상 수상, EBS 중학 프리미엄 강사,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 박사, 고려대학교 출강,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객원연구원 강백수(시인, 가수) 시집 『그러거나 말거나 키스를』, 앨범 <서툰말> <설은> <헛것> 외 다수 고윤희(배우) 연극<웰킨>, <미친 식당>, <장례외전>외 다수 권경민(배우) 연극 <진천사는 추천석>, <가족사진>, <구덩이>외 다수
프로그램 내용	텍스트로만 접하던 기존의 시 향유 방식을 영상과 소리와 몸짓으로 확대해, 들려준다. 다양한 감각으로 문학을 경험하는 시간은 향유를 넘어선 문학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관객 수	296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3. 대학로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카프카 여동생이 그랴다 - <변신>속 여동생 그레타의 변(辯)
프로그램 유형	기타(낭독형과 참여형 결합)
일 시	2024. 9. 29.(일) 11:00 ~ 12:30
장 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낭독의 내심 이민경(극작가), 김해미(배우), 전성환(배우) 이진홍(배우), 임정아(무대디자이너)
참여자 소개	이민경(극작가) 희곡 『구덩이 꽃, 어디로』 (2024)를 쓰고, 국립국악원 『정악사색』 (2023) 등 무대 디자인을 보조했다. 김해미(배우) 연극 『재난 이후의 사서함 : 분실된 8720에 대하여』 (2022), 『생활풍경』 (2021) 등에 출연했다. 전성환(배우) 연극 『울니버스도 환승이 되나요?』 (2021), 『번아웃 발생시 대피행동요령』 (2023) 등에 출연했다. 이진홍(배우) 현재 2024년, 국립극단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 (2019) 등에 출연했다. 임정아(무대디자이너) 『Late Company』 (2024), 『Shakespeare's Nigga』 (2023) 등의 무대를 디자인했고 주로 캐나다에서 활동한다.
프로그램 내용	작년 한 해 “사랑하는 사람이 바퀴벌레가 된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일명 ‘바퀴벌레 챌린지’가 유행했다. 소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의 여동생은 벌레로 변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오빠를 박멸해야 할 해충 취급하는 비정한 캐릭터로 여겨져 왔다. 한 개인의 슬픔조차 콘텐츠로 소비되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그 여동생을 주인공으로 한 『변신』 번외작을 쓰고,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한다.
관객 수	49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3. 대학로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회전하는 시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일 시	2024. 9. 29.(일) 14:00 ~ 15:30
장 소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참여자	회전하는 시 강우근(시인), 김희수(작가), 신이인(시인), 유선혜(시인)
참여자 소개	강우근(시인) 202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너와 바뀌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산문집 『애정 일기』 (공저)이 있다. 김희수(작가)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재학, 산문집 『애정 일기』 (공저)이 있다. 신이인(시인) 202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시집 『검은 머리 짐승 사전』, 산문집 『이듬해 봄』 등이 있다. 유선혜(시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2022년 《현대문학》 신인추천 등단, 산문집 『애정 일기』 (공저), 시집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십시오』 (근간)
프로그램 내용	시를 쓸 때 여러 목소리를 냅니다. 시는 세상에 떠다니는 목소리를 빌려와 수행적으로 쓰는 행위다. 시를 쓰는 사람의 자아는 언제 형성되는 것일까?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속 등장인물의 목소리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인물은 서랍 속에 적어둔 일기처럼 내면 깊숙이 머물러 있지만, 시를 쓸 때 시의 화자로 종종 스피노프(spin-off)다. <회전하는 시>에서는 성장배경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던 영상 콘텐츠 속 등장인물이 시의 화자로 변모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 과정을 통해 쓰게 된 시를 낭독한다.
관객 수	257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3.
대학로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한시 음악회: 옛 시인과 공명하다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 시	2024. 9. 29.(일) 14:00 ~ 15:30
장 소	예술가의 집 2층 라운지
참여자	기린 스튜디오 I 배이화(작곡가/음악감독), 민경찬(작곡가/음악감독) 몽게(싱어송라이터), 김미성(첼리스트)
참여자 소개	배이화(작곡가/음악감독) · 창작집단 기린 스튜디오 대표 · 성평등 동요채널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 프로듀서 민경찬(작곡가/음악감독) · 예술 공동체 씨앗의 꿈 컴퍼니 대표 · 섬마을 인생학교 협력교장 몽게(싱어송라이터) · <몽게>1집 및 <츄르>, <별똥별> 싱글 발매 · <몽게 수필> 저자 김미성(첼리스트) · Stentor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첼로 · 프랑스 Creteil 국립음악원 디플로마&최고연주자과정 1위
프로그램 내용	아시아권에서 두루 창작되고 한반도에서도 양적, 질적인 면에서 주요한 문학적 유산인 한시. 한자가 상용되지 않는 오늘날이지만 정약용, 허난설헌, 김병연(김삿갓)을 비롯한 시인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고 있다. 수십 번 강산이 변한 후의 시간 속을 사는 음악가들이 그 이야기들에 공명한다. 세심하게 번역된 입말에 노래가락을 입혀 스피노프를 만들고 오늘의 사람들의 가슴에 닿는다.
관객 수	55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3. 대학로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서남 전라도 서사시 『그라시재라』 입체낭독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 시	2024. 9. 29.(일) 17:00 ~ 18:30
장 소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참여자	그라시재라 I 조정(시인), 박사(작가), 유용선(작가), 임근아(배우), 김지애(배우), 목정윤(배우), 김선화(배우), 김가빈(배우), 윤숙희((전)파주여성민우회 대표), 진명희(다큐멘터리 방송작가), 최은영(고양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참여자 소개	조정(시인, 환경운동가) 시집 『이발소 그림처럼』, 『그라시재라』, 『마법사의 제자들이 겹질을 깨고 나오라』 등. 환경동화 『너랑 나랑 평화랑』 박사(작가) 『나에게 여행을』, 『가꾼다는 것』, 『치킨에 다리가 하나여도 웃을 수 있다면』,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등 다수 유용선(작가) 임근아(배우) 연극 『엘렉트라』, 『수전노』, 『세 마녀 이야기』 등. 영화 『마더』, 『새드무비』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강사 역임. 김지애(배우) 연극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외투』, 『맥베스와 세 마녀』, 『보이책 날다』 외. 극단 <간만에 연극>. 목정윤(배우) 『사천의 선인』, 『정의의 여인들』, 『배심원들』, 『투명인간(뮤지컬)』, 등 다수 김선화(배우) <달뜨다>, <절름발이 천사>, <리어왕, 안티고네>, <블루아워>, <그림자>, <데카메론> 등 김선화(배우) <친절한 에이미 선생님의 하루>, <안개가 걷히면> 외 윤숙희((전)파주여성민우회 대표) 국민주권당 전국위원. 진명희(다큐멘터리 전문 방송작가) KBS 환경스페셜 & 사람과 사람들, EBS 하나뿐인지구& 세계테마기행 등 최은영(고양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국제슬로푸드 고양지부 지부장, 사단법인 사람나무 이사, 더희망포럼국수봉사 사무국장, 고양FM 팟캐스터로 활동 중

3-2. 대학로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시집 『그라시재라』는 1960년대 당시 40대 전후의 여성들이 남도사투리로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강점기, 농민혁명, 한국전쟁 전후, 60년대 당시까지 격랑의 세월이 고스란히 시대적 배경으로 반영되어 희비극을 자아낸다. 이를 대화 낭독에 그치지 않고 무대 설정과 배우들의 연기를 곁들인 작은 연극 형태로 선보인다.
관객 수	423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3. 대학로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1세기 카프카 사용법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참여형
일 시	2024. 9. 30.(월) 11:00 ~ 12: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창작동인 겸 I 이소연(시인), 이서하(시인), 주민현(시인), 전영규(평론가)
참여자 소개	이소연(시인) 2014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에 시 부문으로 등단. 시집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 『거의 모든 기쁨』, 『콜리플라워』가 있다. 이서하(시인) 2016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에 시 부문으로 등단. 시집 『진짜 같은 마음』, 『조금 진전 있음』, 『마음 연장』이 있다. 주민현(시인) 2017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에 시 부문으로 등단. 시집 『킬트, 그리고 킬트』, 『멀리 가는 느낌이 좋아』가 있다. 전영규(평론가) 2017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평론 부문으로 등단. 평론집을 준비 중이다.
프로그램 내용	카프카 타게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창작동인 겸은 카프카 「변신」 이후의 이야기를 다양한 버전으로 관객들과 함께 상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카프카의 변신 서사는 현대에 들어와 다음과 같은 신박한 바퀴벌레 밈(meme)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약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확장해 겸 동인은 ‘바퀴벌레’의 자리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넣어 본다. 코딱지를 닦은 유령. 콜리플라워, 가장 위험한 상자, 킬트, 수건, 백 년 동안 꺼진 전구, 멀리 가는 고래. 관객들도 ‘바퀴벌레’의 자리에 상상하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자리를 넣어보며 새로운 존재의 자리를 탐색해 본다. ‘21세기 카프카 사용법’이라 불리는 우리의 작업은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되어버린 그레고르의 다양한 스펀오프 버전을 실행하는 흥미로운 과정이다.
관객 수	71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3. 대학로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날말의 낭독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일 시	2024. 9. 30.(월) 11:00 ~ 12:30
장 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이예진
참여자 소개	이예진(시인) 202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발표하며 작품활동 시작. 2025년 첫 시집(문학동네) 출간 예정
프로그램 내용	하나의 단어에는 언제나 다양한 의미가 붙는다. 사전적 의미와 문맥에 따라서 다르다. 원래 의도와 ‘내’가 생각한 의도가 충돌하고 섞이며 ‘나만의 스펀오프’를 만들어 낸다. 시는 이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각자의 경험이나 이야기, 최근에 읽은 책 등 다양한 의미와 생활 속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다. <날말의 낭독>은 주어진 단어의 기존 의미를 허물고 각자 새로운 의미를 덧붙여보는 시간이다.
관객 수	20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3.
대학로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백 년 동안의 백석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30.(월) 14:00 ~ 15:30
장 소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참여자	팀 분리수거 임지은(시인), 강혜빈(시인), 김은지(시인), 한연희(시인)
참여자 소개	임지은(시인) 시집 『무구함과 소보로』, 『때때로 캥거루』, 『이 시는 누워 있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가 있다. 강혜빈(시인) 시집 『밤의 팔레트』, 『미래는 허망을 한다』가 있다. 사진가 ‘파란피paranpee’. 김은지(시인) 시집 『책방에서 빗소리를 들었다』, 『고구마와 고마워는 두 글자나 같네』, 『여름 외 투』, 『아주 커다란 잔에 맥주 마시기』가 있다. 한연희(시인) 시집 『폭설이었다 그다음은』, 『희귀종 눈물귀신버섯』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2024년인 현재로부터 딱 백 년 전인 1924년에 발표된 백석 시를 읽고 그 시로부터 출발한 네 명의 시인의 네 개의 시를 쓴다. 백 년 전 백석을 스핀오프 한 시 낭독회!
관객 수	116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3. 대학로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X·파일 멀더와 스컬리의 낭독극: “유리로 만들어진 세상”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일 시	2024. 10. 1.(화) 14:00 ~ 15:30
장 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T9-H 엔터테인먼트 서혜정(성우), 이규화(성우), 강현철(프로듀서), 이호영(작가/연출), 이용석(뮤지션), 상지윤(작가), 강미선(배우), 배인규(배우), 서태원(배우), 강예영(싱어송라이터), 이동하(무대/영상디자이너)
참여자 소개	서혜정(성우) 대표작: <X파일> ‘스컬리’, <롤러코스터> 중 남녀탐구생활, 영화 <보디가드> ‘휘트니 휴스턴’ 역 수상: 2011 한국방송대상 성우/나레이션상, 2011 한국PD협회 성우상, 2001 KBS 외화 더빙상, 2000 KBS 최우수 성우상 수상 이규화(성우) 대표작: <X파일> ‘멀더’ 역 외 외화 더빙 ‘존 트라볼타’, ‘데이비드 듀코브니’ 등 전담 수상: 2014년 방송연예대상 라디오 부문 특별상 등 수상 강현철(프로듀서) ·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제 10회 한국뮤지컬대상 최우수작품상 수상 · 뮤지컬 <연탄길> *제4회 더 뮤지컬어워즈 소극장창작뮤지컬상 · 연극 <친정엄마> 제작 · 오디오 드라마 <참아주세요, 대공> 연출 이호영(작가/연출) 극단 [달을 품다] 대표 · 2005년 5월. 한일 문화 교류전 감독(코엑스) · <신의 아그네스>, 뮤지컬 <러브어게인> 외 50편 극작 및 연출 이용석(뮤지션) · 오디오 드라마 <참아주세요, 대공> 음악감독 · 오디오 소설 <캣츠파다 유니버스> 1-10 음악감독 · K-POP 싱어송라이터 및 프로듀서 *멜론 기준 저작권 등록곡 200곡 이상 외 상지윤(작가), 강미선(배우), 배인규(배우), 서태원(배우), 강예영(싱어송라이터), 이동하(무대/영상디자이너)

3-2. 대학로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X·파일의 멀더(이규화 성우)와 스컬리(서혜정 성우)가 ‘모리스 웨스트’의 소설 『유리로 만들어진 세상』 속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융’과 ‘마그다’로 마주한다면 어떨까? 라는 거짓말 같은 상상을 실현해 보고자 기획했다. 한때는 외과 의사였지만 ‘가학성 성도착증’에 시달리는 마틸다가 융을 찾았던 그 ‘용기’를 ‘용기’ 삼아 TV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운명으로 살아가는 두 성우를 브라운 밖 무대에서 관능적이고 치명적인 서스펜스 심리극 형태의 2인극으로 관객들에게 동정 혹은 외면을 실험한다.
관객 수	87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4. 전국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Spin-off - 내 안의 금쪽이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참여형, 기타(연극치료, 토크, 밴드공연)
일시	2024. 9. 27.(금) 18:30 ~ 20:00
장소	책과 아이들 (부산)
참여자	창작동인 어흥 한아(작가), 이자경(아동문학 작가) 이태성(뮤지션), 전현미(작곡가, 음악감독)
참여자 소개	한아(작가) MBC창작동화대상, 부산아동문학상, 『라온미르호의 아이들』 외 <동동동 북(book)을 올려라> 등 문학 행사 기획 및 진행 다수 이안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이자경(아동문학 작가) 부산아동문학 신인상, 황금펜아동문학상, 부산아동문학상 수상 『주인공처럼 주인공답게』, 『거북이가 간다』 외. 동요, 가곡 작사가 치유적 그림책 읽기 강사, 카운슬러 자격증보유, 웰다잉 강사 지도사 1급 보유 이태성(뮤지션) 부산시립극단 상임단원. 현미밴드 보컬 2019 부산연극상 젊은연극인상. 2016 부산연극제 최우수연기상 2014, 2015 부산연극제 우수상 2023 부산버스킹페스타 최우수상(현미밴드) 전현미(작곡가, 음악감독) 현미밴드 대표. 작곡가. 음악감독 2024 발레컬<운수 좋은날> 작.편곡, 연주 2022 어르신 뮤지컬 만들기 수업 <인생은 뮤지컬> 2012, 2013 부산연극제 무대예술상 2023 부산버스킹페스타 최우수상(현미밴드)
프로그램 내용	과거의 나로 돌아가 그때 못했던 결정적인 말을 실현하고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고 심리적인 치유로 이어지길, 타자와 입장을 바꾸어 역할극을 함으로써 조금이나 상대 방을 이해하는 시간.
관객 수	11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4. 전국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현실 속 소설 체험, 그리고 나로 스펀오프(spin-off)
프로그램 유형	강연형, 참여형
일 시	2024. 9. 27.(금) 13:00 ~ 19:00
장 소	조선대학교 및 5.18민주화운동 주요 사적지 (광주)
참여자	소년이 온다! 오현진(교수), 이근희(평론가), 권혁민(대학 교직원), 박지훈(칼럼니스트)
참여자 소개	오현진(교수) 현)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현) 조선대 글쓰기센터 센터장 이근희(평론가) 현) 조선대 강사, 조선대 글쓰기센터 튜터 202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등단(평론) 조선대 문예창작학과(평론)박사(수료) 권혁민(대학 교직원) 전) 2011~2022년 5.18기념재단(교육문화/기획예산 팀장) 현) 조선대 글쓰기센터 총괄, 전문튜터[문예창작학과(소설) 박사(수료)] 박지훈(칼럼니스트) 『썬1980』 편집위원, 『광주in』 영화 칼럼니스트 조선대 글쓰기센터 튜터[(조선대 문예창작학과 석사(수료))]
프로그램 내용	1980년의 ‘광주’, 그리고 2024년의 ‘광주’, 소설 속에 그려진 80년 당시의 학생들과 현재의 학생들이 마주하는, 세대 스펀오프(spin-off) 한강의 『소년이 온다』 출간 10주년을 맞아, 출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현재의 대학생들이 소설을 함께 낭독하고, 생각을 나누고, 80년 5월의 그 역사적인 공간을 함께 거닐어 본다.
관객 수	10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4. 전국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이를테면 스펀 오프의 방식으로
프로그램 유형	기타(전시 및 공연)
일 시	2024. 9. 28.(토) 16:00 ~ 17:30
장 소	갤러리감각 (강릉)
참여자	팀 남향 이효영(시인, 사진가), 권민경(시인), 송지현(소설가) 송재량(사진가), 나디아(뮤지션)
참여자 소개	이효영(시인, 사진가) 시집 『당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집 『나는 산책 중에도 길을 잃어요』가 있다. 사진 개인전 <허니문 501호, 2021> 등을 열었다. 권민경(시인, 미술평론가) 시집 『베개는 얼마나 많은 꿈을 견뎌냈나요』, 시집 『꿈을 꾸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되었다』, 시집 『온갖 열망이 온갖 실수가』이 수필집 『등고선 없는 지도를 쥐고』, 수필집 『울고 나서 다시 만나』가 있다. 송지현(소설가) 소설집 『이를테면 에필로그의 방식으로』, 소설집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 수필집 『동해 생활』이 있다. 송재량(사진가) 사진 그룹전 <Cluster_돌아온 아빠 프로젝트, 2021>, <마주:대하는 방식, 2022> <순간, 2024>을 열었다. 나디아(뮤지션) 시를 노래하는 <트루베르>에서 활동했다. 앨범 <트루베르, 우리가 사는 별> <트루베르, 목소리 숨소리>등 다수 발표.
프로그램 내용	본업 외에도 스펀 오프 격인 ‘부캐’(副 Characte, 멀티 페르소나)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강릉에서 모였다. ‘사진과 시 -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시와 낭독, 음악이 함께하는 본 프로그램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 공연.
관객 수	14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4. 전국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토크콘서트 Spin-OFF: 동부민요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무대형, 참여형
일 시	2024. 9. 28.(토) 14:00 ~ 15:30
장 소	대구무형유산전수교육관 전시실 (대구)
참여자	(사)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 주운숙(대구무형유산보유자), 박수관(대구무형유산보유자), 김웅기(평론가), 이생강(기획자), 탐썬(랩아티스트)
참여자 소개	주운숙(대구무형유산보유자) 대구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2023 국립극장 주최 주운숙의 동초제 홍보가 '완창 판소리' 2023 동초제 심청가 연합회 '심청의 효 소리로 전하다' 박수관(대구무형유산보유자) 대구무형유산 동부민요 보유자 대구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좌교수 역임 러시아 국립글링카음대 명예음악학박사·명예교수 김웅기(평론가) 정치학박사, 예술사회학, 평론가 아트플러그 이사장, mM아트센터 기획자문위원 역임 이생강(문화예술기획자) 미학, 기획자 '나, 여기, 우리'(2023) 미디어 전시 기획, '한치각, 두치각' 복합문화공간 운영 탐썬(랩아티스트) SHOW ME THE MONEY 역대 참가자 2022년 4집 '코리안 셰프 (KOREAN CHEF)' 발매 2023년 4.5집 '코리안 셰프 II (KOREAN CHEF II)' 발매 2024년 EP '말투' 발매
프로그램 내용	'Spin-OFF : 동부민요' 토크콘서트를 통해 문학과 전통 공연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학은 현실 문제를 반영하고 이면을 살피며, 동부민요는 그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문학과 공연의 융합을 통해 감정의 해방과 치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으로, 참가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데 영감을 주고자 한다.
관객 수	42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4. 전국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연극 in_문학> 부제: 청개구리는 왜 말을 듣지 않는가?
프로그램 유형	강연형, 참여형
일 시	2024. 9. 28.(토) 16:00 ~ 17:30
장 소	창작집단 발아 LAB실 (인천)
참여자	해우ㅣ정주희(프리랜서 기획자, 연극배우), 김동재(프리랜서 배우, 교육자) 윤혜지(미술교육가, 동화작가)
참여자 소개	정주희(프리랜서 기획자, 연극배우) 시민참여 연극 아카데미 배우소(所) 대표. 2024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 수상자 김동재(프리랜서 배우, 교육자) 프리랜서 연극, 영화 배우, 직장인 극단 공연 연출, 초중고 예술강사, 동랑연극제 대상 수상 윤혜지(미술 교육가/동화 작가) 유아교육 전공, 어른을 위한 동화책 작가(『수평선과 수직선의 사랑이야기』 작가)
프로그램 내용	동화 『청개구리 이야기』와 인형극을 통해 성격 형성의 보이지 않는 이면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누구나 한번쯤 고민했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해보는 시간.
관객 수	10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4. 전국형 세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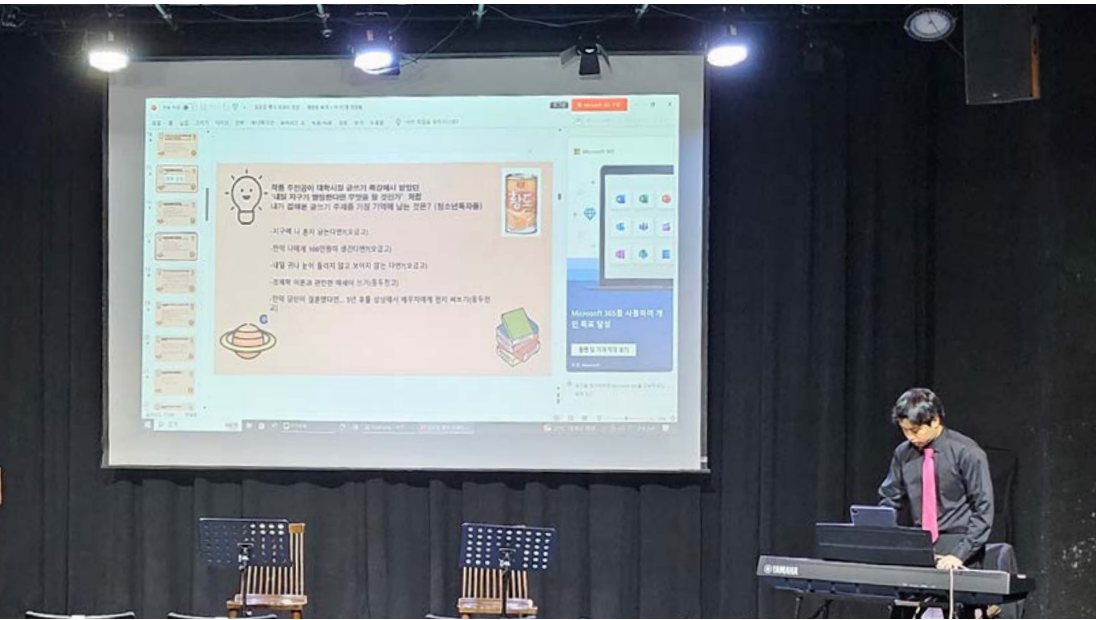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Die zweite Heimat(두 번째 고향)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무대형, 참여형
일 시	2024. 9. 28.(토) 17:00 ~ 18:30
장 소	독일, 슈발바흐 시청 이벤트홀
참여자	호이테 Heute-오늘 I 박소진(시인), 노미자(시조시인) 최군자(시조시인), 최영애(서양화가), 이지은(서예가), 전예진(바이올리니스트)
참여자 소개	박소진 (시인) 포엠포엠 신인상 등단(2016), 시집 『사이, 시선의 간극』 (세종도서, 단편소설집 『누구나 아는 라라』, 매일경제 <박소진 시인의 독일 에세이> 연재, 재독한국문인회 회원 노미자(시조시인) 재독한국문인회 회장, 세계전통시인협회 시조시인, 재독간호협회 설립 및 상임고문 대통령 표창 수상(1997) 최군자(시조시인) 재독한국문인회 총무, 회원. 재독한국유럽문인회 회원, 세계전통시인협회 영국본부 백일장 장려상 수상(2024) 최영애(서양화가) 한국·개인전(금호미술관, 경인미술관, 관훈미술관 등), 독일·Sodener Museum 아티스트 그룹 소속 개인전/그룹 10회 이상 <대표작> Lotus> 이지은(서예가) 프랑크푸르트 샘물회 임원 그룹전시 3회, 대한민국 서예문화대전 캘리그래피 부문 특선(2024) 전예진(바이올리니스트)
프로그램 내용	1960년대, ‘우리’는 고향을 두고 타향으로 왔다. ‘우리’는 역사이자 근원이다. 간호사로 독일로 이주해 정착한 ‘재독 1세대’의 삶은 2024년의 현재와 스핀 오프한다. 그들이 독일로 건너왔던 1960년의 시공간으로부터 시작된 타향에서의 삶의 대화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 스핀 오프한다. 이것은 동시에 늘 청자가 필요했던 이민자들의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스핀오프며, 이것은 관객들과 무대 사이에서 ‘감각’을 통해 교감되며 이때 관객도 무대의 참여자로서 1960년대의 삶의 주인공들과 스핀오프한다.
관객 수	46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4. 전국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철. 문. 업(철학, 문학 업고 뛰어!)
프로그램 유형	강연형, 무대형
일 시	2024. 9. 28.(토) 16:00 ~ 18:00
장 소	성북정보도서관 천장산우극장 (서울)
참여자	인문ing! 김미월(소설가), 안광복(철학자), 양연식(연출가) 김은정(연극배우), 박성일(연극배우), 장경천(피아니스트)
참여자 소개	김미월(소설가) 『여덟 번째 방』, 『일주일의 세계』, 『서울 동굴 가이드』, 『옛 애인의 선물 바자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등 출간 안광복(철학자) 『열일곱 살의 인생론』,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 『철학으로 휴식하라』, 『도서관 옆 철학 카페』 등 출간 양연식(연출가) <문학성큼성큼>, <롤루랄라 문학카페 유랑극장>, <히든클래식>, <철학카페에서 작가들 만나다> 등 연출 김은정(연극 배우) <출입국사무소의 오이디푸스>, <미세스 엠알아이>, <괴물b>, <구름 한가운데> 등 출연 박성일(연극 배우) <한도열차>, <정의의 사람들>, <의자는 잘못 없다>,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공연 <문학성큼성큼> 등 출연 장경천(피아니스트) 밴드 몽돌 키보디스트, MBC충북 '정오의 희망곡', 랫츠락페스티벌, GIMF 등 출연, 가수 '정예원' 키보드 세션
프로그램 내용	안광복 철학자가 김미월 소설가의 단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존 사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철학의 시선으로 풀어내고, 연극 대본으로 각색된 소설을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로 관객에게 들려주며, 소설의 정조에 어울리는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관객 수	50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4. 전국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안톤체홉 <갈매기>의 '니나' 재해석 - 복사골을 떠난 니나를 찾아서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무대형
일 시	2024. 9. 29.(일) 17:00 ~ 18:20
장 소	조치원 문화정원 커뮤니티공간 뜰 (세종)
참여자	이다해 이다해(배우, 연출 기획자), 김영승(작가, 연출), 강수민(음향 엔지니어), 이영옥(지역문화예술단체 운영), 이종환(무대감독)
참여자 소개	이다해(배우, 연출 기획자)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 <비정규식량분배자> 출연, 은상 수상 소리음악극 <Shape of love> 연출, 출연, 안무감독 클래식X미디어아트 <빛의 살롱> 도슨트, 배우 안광복(철학자) 청소년뮤지컬 <샤인, 드림, 스마일> 작, 연출 연극 <괜찮아? 괜찮아> 작, 연출 뮤지컬 <실레~로맨쓰> 각색, 연출 강수민(음향 엔지니어) 노동고용부 <워라벨을 위한 노동요 및 뮤직비디오 제작> 음향감독, 믹싱, 단편영화 <지나친 것> 사운드 디자인, 믹싱 이영옥(지역문화예술 단체운영) 세종시 단체 <문화예술창작집단 다;다> 대표 이종환(무대감독) 세종시 청소년 뮤지컬 '청소년 파업의 날' 무대감독
프로그램 내용	안톤 체홉의 '갈매기' 속 니나 캐릭터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세종시의 풍경을 배경으로 세종시 출신 배우의 삶과 의지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와 현재, 도시와 시골, 젊음과 나이들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니나의 이야기를 통해 문학과 현실의 연결고리를 탐구하고 현실에 반영하며 문학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조적 경험을 제공한다.
관객 수	30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4.

전국형
세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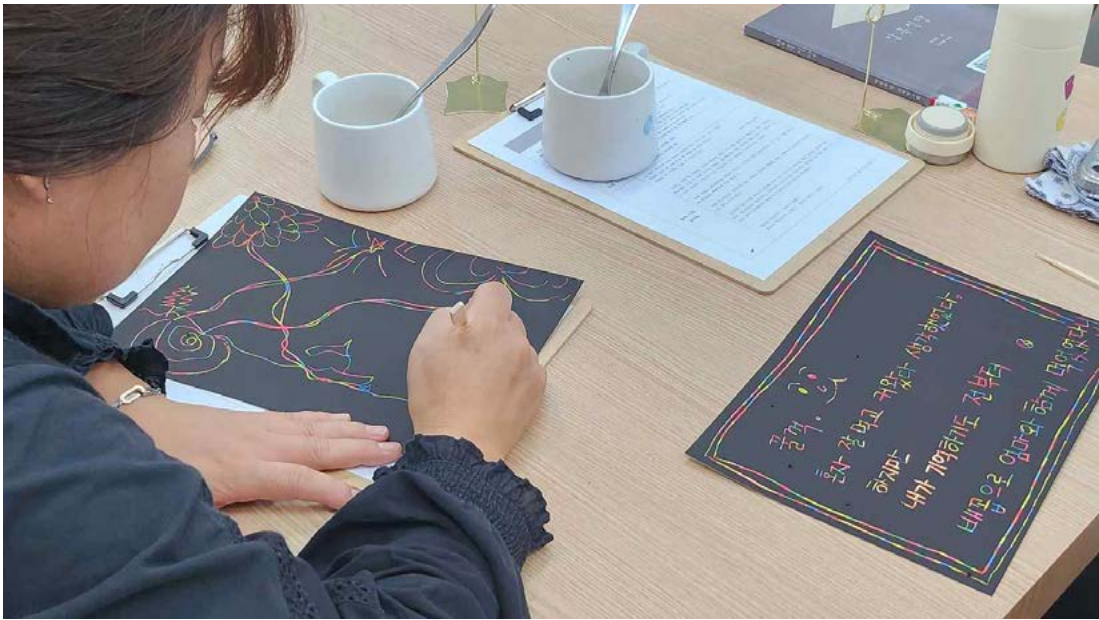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소설 잇는 요가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일 시	2024. 9. 29.(일) 8:00 ~ 10:00
장 소	들꽃 요가 (청주)
참여자	정빛그림 정빛그림(소설가), 김은지(요가원 운영), 유지연(우디앤맘마 출판사 대표)
참여자 소개	정빛그림(소설가) 단편 소설집 『빛의 시간』과 『가장 행복한 곳으로』가 있다. 김은지(요가원 운영) <들꽃 요가> 운영, 독서모임 <들꽃> 운영 유지연(우디앤맘마 출판사 대표) 단행본 『나를 돌보는 다정한 시간』, 『가장 행복한 곳으로』와 계간지 『웍미업』 출간
프로그램 내용	요가원을 배경으로 한 요가 소설인 레인 미첼의 『요가하는 여자들』을 읽고 소설 속에 나오는 동작을 수련한 뒤 글을 낭독하고 직접 창작한다.
관객 수	14명



3. 스테이지 공모전

3-4. 전국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어둠 속에서 꿀꺽!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일 시	2024. 9. 30.(월) 19:30 ~ 21:00
장 소	부산청년센터 모락마루 (부산)
참여자	기억과 부엌 사이 김미양(기획자, 작가), 김리엘(오디오 콘텐츠 크리에이터), 김병용(영상 감독), 양송민(기획보조 및 스태프)
참여자 소개	김미양(기획자, 작가) 기억과 부엌 사이 대표. 에세이집 『입가에 어둠이 새겨질 때』 출간. ‘영혼의 식탁에서 글쓰기’, ‘우리가족 문학식탁-다른 님은’ 등 음식과 문학을 연결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리엘(오디오 콘텐츠 크리에이터) 낭독모임 ‘슬기로운 낭독생활’을 4년째 이끌고 있으며, 인문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이다. 김병용(영상 감독) 북텐츠 대표. KBS 1TV <대담한 사람들> 촬영감독을 맡고 있으며, 요산 김정환, 이규정 등 부산 문학인 영상 아카이브 작업에 다수 참여했다. 양송민(기획보조 및 스태프) <영도 기획자의 집> 수료
프로그램 내용	인간은 어둠 속 열 달을 버틴 후에야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러분은 텃줄을 통해 영양분을 전해 받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누군가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스피노자의 생(生), 그것을 새로이 감각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가려 봅시다. 어둠 속에서 음식물을 꿀꺽 삼키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관객 수	10명



4. 협력 스테이지

4-1. 구성

기관명	프로그램명	출연진	일시	장소	관객 수
민음사	한국여성문학의 목소리	사회 박혜진(평론가) 출연 김화진(소설가) 서이제(소설가)	9/27(금) 11: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35
한국문학번역원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극장	사회 김성현(뮤지컬배우) 출연 손보미(소설가)	9/27(금) 11: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47
문학광장 (문학집배원)	문학집배원x라운지콘서트 - 조성래·윤이안 작가 낭독회	사회 김연(시인) 천운영(소설가) 출연 조성래(시인) 윤이안(소설가)	9/27(금) 14: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29
국립한국문학관	문학의 울림: 소리로 읽는 문학	사회 안재연(국립한국문학관 전시운영부 업무 총괄) 출연 서윤후(시인) 김화진(소설가)	9/28(토) 11: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48
글틴	문학광장 - 글틴이 뽑은 2024 오늘의 문학 북토크	사회 정병국(위원장) 출연 고선경(시인) 김멜라(소설가) 글틴 청소년 4명	9/28(토) 15:00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53
방정환연구소	동요가 있는 한국 아동문학 한마당	출연 장재욱(작가) 이혜술(작가) 이영미(작가) 박상재(작가) 이주영(작가) 장성유(작가) 신민경(작가) 장경선(작가) 김정(작가) 박지숙(작가) 박정미(작가) 최수주(작가) 김진문(작가) 지상선(작가) 윤일호(작가) 안수연(작가) 안선희(작가) 함영연(작가) 최현숙(작가) 이선영(작가) 정선희(작가)	9/28(토) 14:00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396
위즈덤하우스 / 교보문고	문학외전(外傳) - 북다&위픽 이야기	사회 이희주(소설가) 출연 광선희(위픽 편집자) 김정은(북다 편집자)	9/28(토)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51
문학계 인사	2024 상반기 Focus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북토크	사회 이희우(평론가) 출연 김기태(소설가)	9/29(일) 11: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75
문학광장 (문장의소리)	문장의소리 특집공개방송 - 백 투 더 퓨처 (with 김민정 시인· 황정은 소설가)	구성 유계영(시인) 우다영(소설가) 문은강(소설가) 출연 김민정(시인) 황정은(소설가)	9/30(월) 14: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76

기관명	프로그램명	출연진	일시	장소	관객 수
안온박스	영화를 보다, 글을 쓰다	출연 김종혁(소설가)	9/30(월) 17: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78
마리서사 프로파간다 인스크립트 베리테	문학의 비하인드 - 출판과 편집, 그리고 서점 이야기	사회 임현주(책방 마리서사) 출연 김광철(출판사 프로파간다) 박세인(회곡서점 인스크립트) 정진리(출판사 베리테)	10/1(화) 14:00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54
문학계 인사	[문학주간 Classic] BS 없는 BS 낭독회	사회 강지희(평론가) 출연 배수아(소설가) 양근애(드라마투르그) 목소(사운드디자이너)	10/1(화) 17:00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48

4. 협력 스테이지

4-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민음사 협력] 한국여성문학의 목소리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27.(금) 11:00 ~ 12: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박혜진(평론가), 김화진(소설가), 서이제(소설가)
참여자 소개	박혜진(평론가) 문학 평론가, 문학 편집자. 『언더스토리』, 『이제 그것을 보았어』를 쓰고, 『82년생 김지영』, 『딸에 대하여』 등을 편집했다. 2011년부터 출판사 민음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당선됐고, 제19회 젊은평론가상, 제67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김화진(소설가) 202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나주에 대하여』가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나주에 대하여』, 연작소설 『공룡의 이동 경로』, 장편소설 『동경』이 있다. 『나주에 대하여』로 제47회 오늘의작가상을 수상했다. 서이제(소설가) 199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다. 2018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에 중편소설 『셀룰로이드 필름을 위한 선』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소설집 『0%를 향하여』 등을 펴냈다. 젊은작가상, 오늘의작가상, 제45회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여성주의와 여성문학 연구를 지속해 온 학자들이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을 엮어낸<한국여성문학선집>의 작품들을 여성 작가들의 목소리로 듣는 낭독/토크 프로그램.
관객 수	35명



4. 협력 스테이지

4-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한국문학번역원 협력]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극장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일 시	2024. 9. 27.(금) 11:00 ~ 12:30
장 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김성현(뮤지컬 배우), 손보미(소설가)
참여자 소개	김성현(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 뮤지컬 <HIS STORY>, <나를 닮은 여름에게>, <다시, 동물원>, <스페셜 딜리버리>, <김종욱 찾기> 등에 출연했다. 교보문고 '6분 클래식' 및 '6분 새문학' 낭독, 교보문고 '낭만서점' 진행, 북콘서트 'GREAT 토크 with 낭만서점' 외 다수의 북콘서트에 참여하였다. 손보미(소설가) 2009년 《21세기문학》으로 신인상을 수상하고,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담요」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그들에게 린디합을』과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 『맨해튼의 반딧불이』, 중편소설 「우연의 신」, 장편소설 『디어 랄프 로렌』을 출간했다. 2012년 젊은작가상 대상, 2013년 젊은작가상, 2014년 젊은작가상, 2015년 젊은작가상, 제46회 한국일보문학상, 제21회 김준성문학상, 제25회 대산문학상, 2022년 제45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손보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작가와 예술가가 낭독을 시연한 후, 낭독의 팁과 기술을 전수하며 참여자 낭독을 함께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작가, 예술가, 참여자가 함께 낭독극장을 만들어 작품 속 장면을 완성하는 프로그램.
관객 수	47명



4. 협력 스테이지

4-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문학광장 협력] 문학집배원x라운지콘서트 - 조성래 · 윤이안 작가 낭독회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일 시	2024. 9. 27.(금) 14:00 ~ 15: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김언(시인/사회), 조성래(시인), 천운영(소설가), 윤이안(소설가)
참여자 소개	김언(사회) 1998년 《시와사상》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숨쉬는 무덤』, 『거인』, 『소설을 쓰자』, 『모두가 움직인다』, 『한 문장』,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 『백자에게』, 시론집 『시는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평론집 『폭력과 매력의 글쓰기를 넘어』, 비평연구서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오규원의 현재성과 현대성』(공저), 산문집 『누구나 가슴에 문장이 있다』 등을 썼다. 미당문학상, 박인환문학상, 김현문학패, 대산문학상 등을 받았다.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성래(시인) 2022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다. 천운영(소설가) 200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바늘」이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소설집 『바늘』, 『명랑』, 『그녀의 눈물 사용법』, 『엄마도 아시다시피』, 장편소설 『잘 가라 서커스』, 『생강』을 냈다. 신동엽창작상(2003), 올해의 예술상(2004) 등을 수상했다. 윤이안(소설가) 2016년 단편소설 「사랑 때문에 죽은 이는 아무도 없다」로 등단했다. 소설집 『세 번째 장례』, 『별과 빛이 같이』, 기후 위기 문제를 다룬 미스터리 장편소설 『온난한 날들』을 썼으며 앤솔러지 『SF 김승옥』에 참여했다.
프로그램 내용	문학집배원 김언 시인, 천운영 소설가가 선정한 9월의 작가인 조성래 시인과 윤이안 소설가의 작품 낭독회. 조성래 시인의 첫 시집 『천국어 사전』이 들려주는 고단한 청춘의 목소리와 윤이안 소설가의 기후소설 『온난한 날들』이 말하는 환경과 생태 서사를 저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관련 대담을 문학집배원과 나눈다.
관객 수	29명



4. 협력 스테이지

4-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국립한국문학관 협력] 문학의 올림: 소리로 읽는 문학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28.(토) 11:00 ~ 12: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안재연(국립한국문학관 전시운영부 업무 총괄), 서윤후(시인), 김화진(소설가)
참여자 소개	안재연(국립한국문학관 전시운영부 업무 총괄) 서윤후(시인) 2009년 《현대시》로 등단했으며 시집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 『휴가저택』, 『소소소 小小小』, 『무한한 밤 홀로 미러볼 커네』와 산문집 『햇빛세입자』,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 『쓰기 일기』 등을 펴냈다. 제19회 <박인환문학상>을 수상했다. 김화진(소설가) 202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나주에 대하여」가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나주에 대하여』, 연작소설 『공룡의 이동 경로』, 장편소설 『동경』이 있다. 『나주에 대하여』로 제47회 오늘의작가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가을이 무르익는 한적한 오후, 한국문학 대표 작품을 서윤후 시인, 김화진 소설가의 낭독으로 감상한다. 시인, 소설가의 창작에 있어 영감의 원천이 된 옛 문학작품을 작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간.
관객 수	48명



4. 협력 스테이지

4-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글틴 협력] 문학광장 - 글틴이 뽑은 2024 오늘의 문학 북토크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28.(토) 15:00 ~ 16:30
장 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참여자	정병국(예술위 위원장), 고선경(시인), 김멜라(소설가), 글틴 청소년 4명
참여자 소개	정병국(예술위 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제16대~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제45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도 역임했다. 고선경(시인) 202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시 「력키슈퍼」로 등단했다. 시집 『샤워젤과 소다수』를 출간했다. 김멜라(소설가) 2014년 《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을 통해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소설집 『적어도 두 번』, 『공공연한 고양이』 등이 있다. 『소설 보다:봄2021』을 함께 썼다. 젊은작가상, 문지문학상,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글틴 청소년 4명
프로그램 내용	글틴이 뽑은 2024 오늘의 문학으로 선정된 고선경 시인의 『샤워젤과 소다수』와 김멜라 소설가의 『제 꿈 꾸세요』에 대한 작품 추천사와 작가에게 쓴 편지를 같이 무대에 오른 글틴 청소년이 읽고, 또 작가와 이야기 나누는 청소년 참여형 북토크.
관객 수	53명



4. 협력 스테이지

4-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정환연구소 협력] 동요가 있는 한국 아동문학 한마당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참여형
일 시	2024. 9. 28.(토) 14:00 ~ 16:00
장 소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참여자	장재욱(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혜슬(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영미(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박상재(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주영(작가) 어린이문화연대 장성유(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신민경(작가) 어린이문화연대 장경선(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김 정(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박지숙(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박정미(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최수주(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김진문(작가) 어린이문화연대 지상선(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윤일호(작가) 어린이문화연대 안수연(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안선희(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함영연(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최현숙(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선영(작가) 어린이문화연대 정선희(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프로그램 내용	한국 아동문학가와 어린이 문학 예술 여러 분야 예술가들이 어울려 펼치는 <동요가 있는 한국 아동문학 한마당>을 마련. 아동문학 작가의 프리마켓과 어린이 책활동, 작품 낭독과 동요 무대, 방정환 북토크, 최현숙 작가의 북아트 체험 등 재미있게 피어나는 아동문학 스테이지.
관객 수	396명



4. 협력 스테이지

4-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위즈덤하우스/교보문고 협력] 문학외전(外傳) - 복다&위픽 이야기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28.(토) 17:00 ~ 18:30
장 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이희주(작가), 광선희(위픽 편집자), 김정은(복다 편집자)
참여자 소개	이희주(작가) 2016년 장편소설 『환상통』으로 제5회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성소년』, 『나의 천사』, 연작소설 『사랑의 세계』, 단편소설 『마유미』 등을 출간했다. 광선희(위픽 편집자) 위즈덤하우스 스토리독자팀과 함께 단편소설 시리즈 ‘위픽’을 기획하고 만든다. 매주 수요일, 단편소설과 편집자들의 일상을 담은 뉴스레터 <위픽WEFIC>을 발행하고 있다. 담당한 위픽으로는 『크리스마스 캐러셀』, 『마유미』 등이 있다. 김정은(복다 편집자)
프로그램 내용	교보에서 기존 질서에 얽매임 없이 다양하게 변주된 책을 만드는 <복다>, 그리고 위즈덤하우스가 만드는 단편소설 시리즈 <위픽>. 두 시리즈 모두에 참여했던 이희주 작가가 그 사이에서 두 시리즈를 묻고, 두 시리즈 편집자 2인이 출판과 편집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관객 수	51명



4. 협력 스테이지

4-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024 상반기 Focus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북토크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29.(일) 11:00 ~ 12: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이희우(평론가), 김기태(소설가)
참여자 소개	이희우(평론가) 문학평론가. 2020년 《문학과사회》에 평론을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김기태(소설가) 202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무겁고 높은」이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24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작품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의 비하인드에 초점을 맞춘 김기태 작가와 이희우 평론가의 토크 프로그램. 작가 김기태의 작품집필 방식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등을 폭넓게 이야기하며,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독자들과 나눈다.
관객 수	75명



4. 협력 스테이지

4-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문학광장 협력] 문장의소리 특집공개방송 - 백 투 더 퓨처 (with 김민정 시인 · 황정은 소설가)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9. 30.(월) 14:00 ~ 15: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유계영 (연출), 우다영(DJ), 문은강(구성작가), 김민정(시인), 황정은(소설가)
참여자 소개	유계영(연출) 2010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등단했다. 시집 『온갖 것들의 낮』, 『이제는 순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과 산문집 『꼭대기의 수줍음』이 있다. 우다영(DJ) 2014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지은 책으로 소설집 『밤의 정조와 연인들』, 『앨리스 앨리스 하고 부르면』, 중편소설 『북해에서』가 있으며, 앤솔러지 『열다섯, 그럴 나이』, 『초월하는 세계의 사랑』 등에 참여했다. 문은강(구성작가) 201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벨러스트』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김민정(시인) 1999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시 ‘검은 나나의 꿈’ 외 9편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가 있다. 박인환문학상을 수상했다. 황정은(소설가)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소설’, ‘올해의 문제소설’에 선정되고, 한국일보 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등 굵직한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200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마더』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소설집 『일곱시 삼십이분 코끼리열차』, 『파씨의 입문』, 『아무도 아닌』, 장편소설 『백의 그림자』, 『아만적인 앨리스씨』, 『계속해보겠습니다』, 연작 소설 『디디의 우산』 등을 썼다. 만해문학상, 신동엽문학상, 대산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김유정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젊은작가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내용	2005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장수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의 20주년을 예비하며 역대 문장의 소리 DJ 출신 작가인 김민정 시인과 황정은 소설가를 초청해 우다영 DJ와 '어제와 오늘의 문장의 소리'를 나눠보는 공개 라디오.
관객 수	76명



4. 협력 스테이지

4-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안온복스 협력] 영화를 보다, 글을 쓰다
프로그램 유형	강연형
일 시	2024. 9. 30.(월) 17:00 ~ 18: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김중혁(소설가)
참여자 소개	김중혁(소설가) 2000년 《문학과사회》에 중편소설 「펭귄뉴스」를 발표하며 데뷔했다. 「엇박자 D」로 김유정문학상을, 「1F/B1」으로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대상을, 「요요」로 이효석문학상을, 『가짜 팔로 하는 포옹』으로 동인문학상을, 「휴가 중인 시체」로 심훈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 『대책 없이 해피엔딩』(공저), 『모든 게 노래』, 『메이드 인 공장』, 『바디무빙』, 『무엇이든 쓰게 된다』, 소설집 『펭귄뉴스』, 『악기들의 도서관』, 『1F/B1 일층, 지하 일층』, 『가짜 팔로 하는 포옹』, 장편소설 『좀비들』, 『미스터 모노레일』,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나는 농담이다』, 시리즈 소설 『내일은 초인간』 등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김중혁 리뷰 에세이 『영화 보고 오는 길에 글을 썼습니다』를 중심으로 좋은 영화와 좋은 문학, 좋은 삶의 가능성을 독자와 이야기 나눈다.
관객 수	78명



4. 협력 스테이지

4-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문학의 비하인드 - 출판과 편집, 그리고 서점 이야기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일 시	2024. 10. 1.(화) 14:00~15:30
장 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참여자	임현주 (책방 마리서사 대표), 김광철 (출판사 프로파간다 대표), 박세인 (희곡서점 인스크립트 대표), 정진리 (출판사 베리테 대표)
참여자 소개	임현주(책방 마리서사 대표) 편집자로 일하다 2017년부터 군산에서 '책방 마리서사'를 운영하고 있다. 김광철 (출판사 프로파간다 대표) 독립출판사 '프로파간다'의 대표. 2007년 프로파간다 출판사를 설립하여 홍대를 기반으로 운영하다가, 2021년 군산으로 이주하여 책방 '그래픽숍'을 오픈했다. 잡지 <GRAPIC그래픽>을 창간했다. 이후에도 <에센스 B국어사전>, <탐정사전>, <비트주세요>, <대사극장> 등 독특한 소재의 책들을 발간하며, 시각문화와 하위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세인 (희곡서점 인스크립트 대표) 주로 배우로 활동하며, 희곡가게 '인스크립트'를 운영 중이다. 정진리 (출판사 베리테 대표) 출판사 베리테의 대표. 소설 전문 문예지 <소설의 발견>을 발간했다.
프로그램 내용	문학작품을 출판하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연결하는 출판사와 서점의 이야기. 새로운 시도와 결과물로 주목받는 3개 출판사/서점 대표님들을 모시고 지역에서 문학을 하는 경험, 작가 생태계를 더 나아가게 만들기 위한 작지만 성실한 노력, 이를 통한 결과물과 고민들을 진솔하게 나눈다.
관객 수	54명



4. 협력 스테이지

4-2.

협력 스테이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문학주간 Classic] BS 없는 BS 낭독회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일 시	2024. 10. 1.(화) 17:00 ~ 18:30
장 소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참여자	배수아(소설가), 양근애(평론가), 강지희(평론가), 목소(사운드 디자이너)
참여자 소개	배수아(소설가) 1993년 《소설과사상》에 '천구백팔십팔년의 어두운 방'이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03년 한국일보 문학상을, 2004년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철수』, 『붉은 손 클럽』, 『동물원 키티』, 『이바나』,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당나귀들』, 『독학자』, 『홀』, 『에세이스트의 책상』, 『북쪽 거실』, 『올빼미의 없음』, 『서울의 낮은 언덕들』,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 『밀레나, 밀레나, 황홀한』, 『뱀과 물』, 『멀리 있다 우루는 늦을 것이다』 등을 썼고, 사데크 헤다야트의 『눈먼 부엉이』,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의 서』, 프란츠 카프카의 『꿈』, W. G. 제발트의 『현기증. 감정들』 『자연을 따라. 기초시』, 로베르트 발저의 『산책자』,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달 갈과 닭』, 『G. H. 에 따른 수난』, 아글라야 페테라니의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 등을 옮겼다. 양근애(평론가) 연극평론가와 드라마투르그로 활동하며 명지대 문예창작학과에서 희곡을 가르치고 있다.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신파의 세기>, <우리의 아름다웠던 날들에 관하여> 등에 참여했고 연극평론집으로 『‘이후’의 연극, 달라진 세계』(2020)가 있다. 강지희(평론가) 문학평론가. 평론집으로 『파토스의 그림자』가 있다. 목소(사운드디자이너) 사운드 디자이너. 듣기의 연습을 통해 ‘들리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질문을 수행 중이다. <홍평국전>, <흙사람>, <인정투쟁>, 예술가 편>,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스푸트니크> 등에 사운드 디자인으로 참여했다.
프로그램 내용	작가로서 개성적인 문체와 자기만의 세계를 확고하게 보여주어 왔던 배수아 작가의 작품들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 독자들이 직접 뽑은 문장들을 독일에 계신 작가님과 함께 읽고 나누는 공감각적 낭독 프로그램.
관객 수	48명



5. 기획전시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낮의 집, 밤의 집』 이머시브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 유형	전시 및 공연
일시	(전시) 2024. 9. 27.(금) ~ 2024. 10. 1.(화) 10:00 ~ 19:00 (공연) 2024. 9. 28.(토) ~ 2024. 9. 29.(일) 16:00 ~ 16:30 2회 공연
장소	마로니에공원 지하 다목적홀(좋은공연안내센터 B2)
참여자	강혜련(배우), 고권금(안무가), 한수정(아트디렉터)
참여자 소개	강혜련(배우) 긍정적인 에너지와 섬세한 감정해석 능력으로 높은 몰입도를 선사하며 다양한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배우. 연극 <은의 허>, <더 라스트리턴>, <덜메이드>, <번아웃에 관한 농담> 외 다수 고권금(안무가) 이동하는 공간으로서의 몸에 관심이 있으며 상상과 물질의 이동, 감각과 무의식의 이동이 만들어내는 역동을 좋아한다. 흙과 돌, 아스팔트를 매개로 춤을 추고 글을 쓴다. 《나는 나를 기대합니다》(노들장애인야학, 2023), 《양파망에 들어간 아이》(예술집, 2022), 《버티는몸: 기꺼이 그대와》(인디아트홀 공, 2021) 외 다수 한수정(아트디렉터) 페인팅, 판화, 디자인, 문화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두 개의 집을 가진 하나의 몸이 있다. 익숙한 요소들로 채워져 있지만 대칭 구조의 설정으로 낯설을 끌어내는 ‘낮의 집, 밤의 집’ 공간 구석구석 문학의 언어들이 메어져 있다. 우리는 언어로 옷을 입고 언어를 먹고 언어를 뱉어내며 언어에 기대어진 세계를 살아간다. ‘꿈’일지도 모르는 세계이다. 인간은 누구나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위에, 한 인간이 자신의 참 존재를 인식하고 만나는 찰나의 순간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혼돈을 전시와 공연,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깊숙이 들어온 관객과의 호흡을 통하여 완성하고자 한다. 관객들은 전시공간을 활보하며 적극적으로 문장을 찾아내고 만지고 읽고 적을 수 있다. 주말 양일간, 총 2회에 걸쳐 전시공간 안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몸과 장소가 맺고 있는 관계를 탐구하는 안무가 고권금, 매 작품마다 뛰어난 감정 해석 능력으로 높은 몰입도를 선사하는 배우 강혜련이 함께한다.
관객 수	670명



6. 참여 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스핀오프 문장 완성하기 & 야외 북라운지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일시	2024. 9. 27.(금) ~ 2024. 10. 1.(화) 10:00 ~ 19:00
장소	마로니에공원 일대
프로그램 내용	스핀오프 문장 완성하기 문학주간2024 주제인 ‘스핀오프’ 작가의 문장을 자신의 문장으로 새롭게 완성해보는 컨셉. 야외 북라운지 마로니에공원 야외광장에 책장, 파라솔,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여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결과	참여 인원 7,839명 *문학주간 프로그램 기간 대학로 지역 유동인구 통계자료를 근거로 추산



03

결과 및 제언

1. 만족도 조사	128
1-1. 개요	
1-2. 내용	
1-3. 응답자 특성	
1-4. 만족도 조사	
2. 평가 및 제언	142
2-1. 사업 평가	
2-2. 기획Table 위원 제언	
3. 참여 관객 후기	148

1. 만족도 조사

1-1.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문학주간2024 축제 관람객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조사표본	583명
조사기간	2024. 9. 27.(금) ~ 2024. 10. 1.(화)

1-2. 내용

구 분	내 용
문학주간 정보 취득 및 방문 관련	· 사전 인지 여부 · 정보 습득 경로 · 참여 계기 · 문학주간 행사 참여 경험 ·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
운영 관련 평가	· 문학주간2024 주제의 적절성 · 행사 프로그램 운영 · 행사 홍보의 우수성 ·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 · 다른 책 축제와의 차별성
프로그램 내용 평가	· 문학주간2024 행사 주제의 적절성 ·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의 적합성 ·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인 우수성 · 프로그램의 주제 및 성격의 적합성
사업 평가	· 행사 취지에 맞는 운영 여부 · 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 영향 · 향후 행사 참여 의향
문학주간 사업 평가	· 문학주간2024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기타	· 문학주간2024에 대해 좋았던 점이나 건의하고 싶은 의견

1-3.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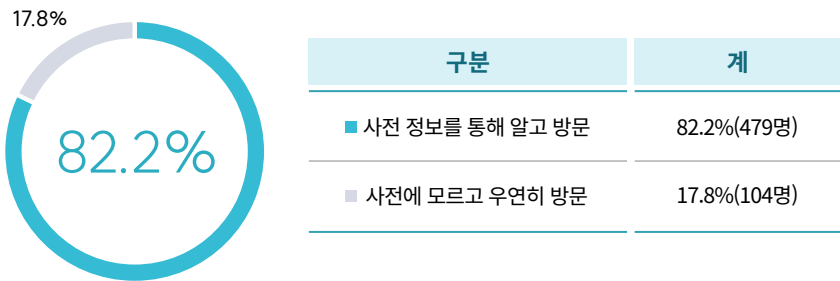
		백분율	응답건 수
합계		100%	583
성별	여성	78.6%	458
	남성	18.4%	107
	응답하고 싶지 않음	3.1%	18
연령대	10대	3.3%	19
	20대	37.9%	221
	30대	29.0%	169
	40대	18.2%	106
	50대 이상	11.7%	68
직업	대학생/대학원생	24.9%	145
	직장인 및 자영업	48.7%	284
	문화예술계종사자	5.5%	32
	초중고생	3.1%	18
	주부	7.0%	41
	무직	7.7%	45
	기타	3.1%	18
거주 지역	서울	68.6%	400
	경기	22.6%	132
	인천	3.8%	22
	강원	0.5%	3
	대전·충청	2.1%	12
	부산·울산·경상	1.0%	6
	전라	1.2%	7
	제주	0.2%	1

1. 만족도 조사

1-4. 만족도 조사

사전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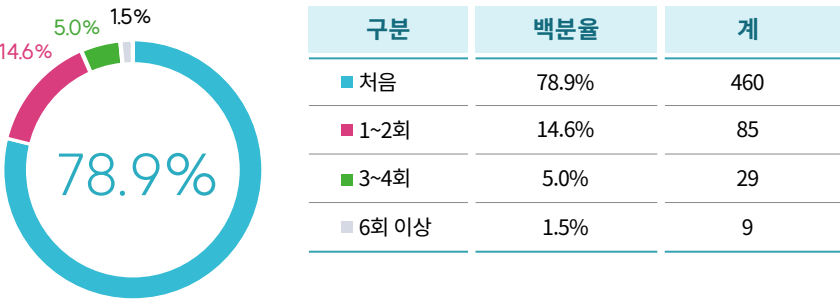
Q1. 문학주간2024 행사를 알고 계셨는지요?



문학주간2024 사전 인지여부는 전체 응답자(N=583) 중 82.2%가 압도적으로 사전 정보를 통해 알고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2023년 대비 사전 인지를 통한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참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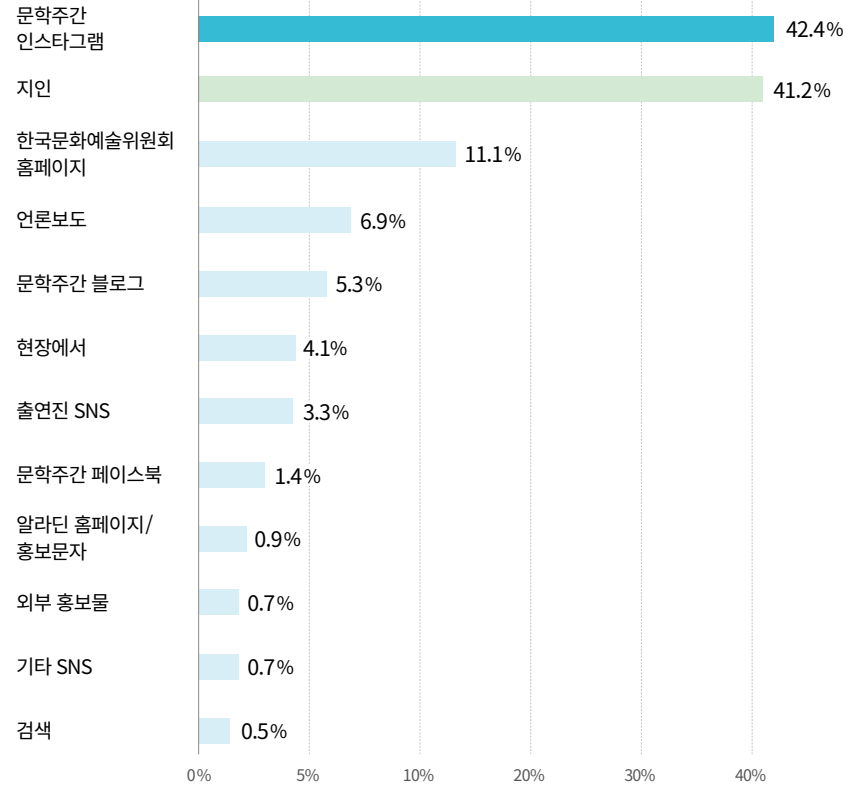
Q2. 2016년부터 진행된 문학주간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문학주간2024 참여 횟수는 응답자(N=583) 중 78.9%가 올해 처음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2회 이하(14.6%), 3~4회(5.0%) 순으로 나타남

정보 습득 경로

Q3. 문학주간2024 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는지요? (2개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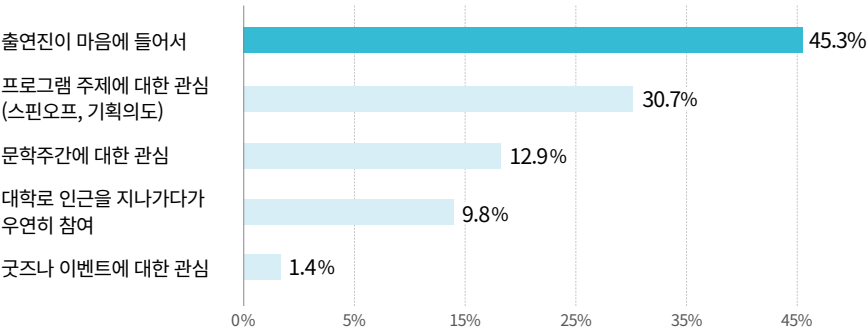
문학주간에 대한 정보 주요 경로는 ‘문학주간 인스타그램’이 42.4%로 가장 높았고, ‘지인’이 4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홈페이지’가 11.1%, 언론보도가 6.9% 순으로 나타남. ‘지인’을 통한 참여가 2023년 대비(2023, 7.4%) 33.8% 상승함

1. 만족도 조사

1-4. 만족도 조사

참여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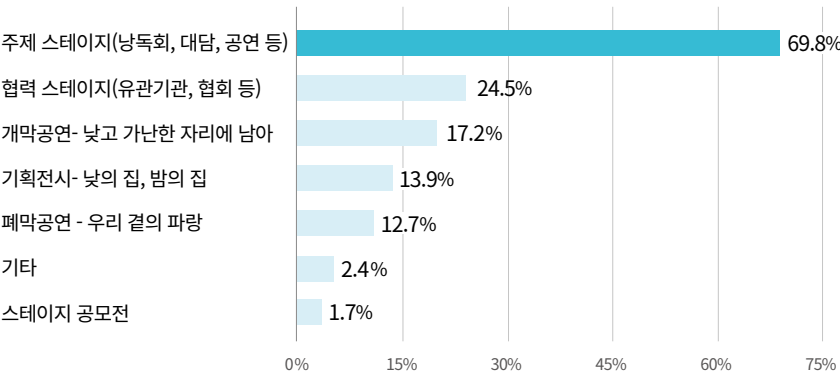
Q4. 문학주간2024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문학주간 참여 계기로는 ‘출연진이 마음에 들어서’가 45.3%로 가장 높았고, ‘주제에 대한 관심’이 30.7%, ‘문학주간에 대한 관심’ 12.9% 순으로 나타남.

관심 프로그램

Q5. 문학주간2024 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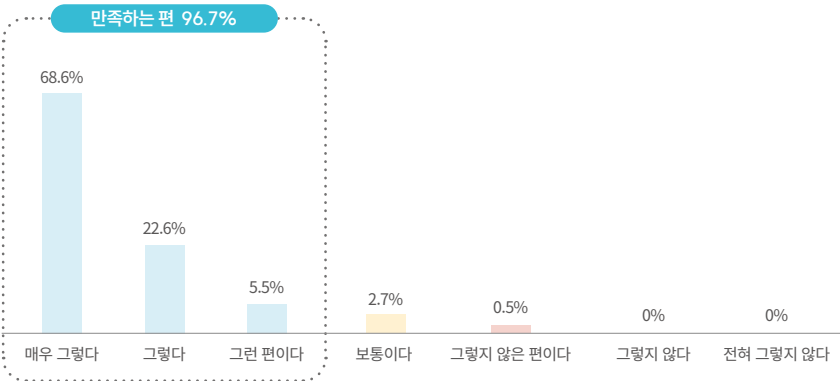


관심 프로그램으로는 전체 응답자(N=583) 중 ‘주제 스테이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 스테이지 24.5%가 이어짐.
2023년 대비 주제 스테이지의 참여(2023, 22.8%)가 크게 상승함.
기타 항목에 스테이지 공모전 프로그램명으로 작성해 준 결과는 ‘스테이지 공모전’으로 취합함.

1-4.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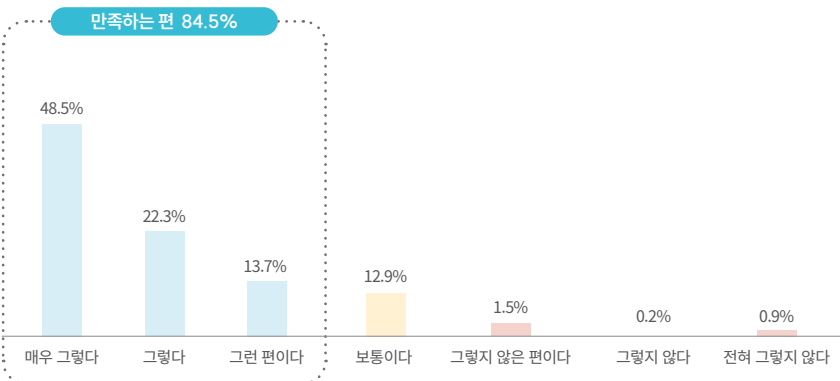
세부 항목별 프로그램 운영 측면

Q6-1. 행사 진행 및 운영요원 등이 잘 운영되었다.



‘행사 진행 및 운영요원 등이 잘 운영되었다’는 응답에 ‘만족하는 편’이 96.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은 0.5%로 매우 낮게 나타남.

Q6-2. 행사의 홍보가 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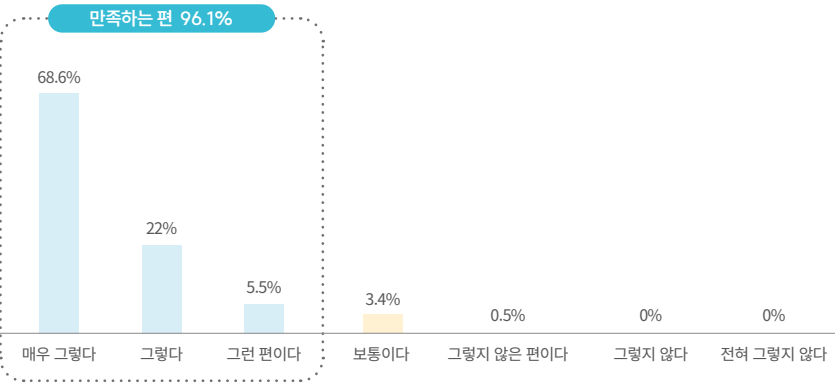


‘행사의 홍보가 잘 되었다’는 응답에 ‘만족하는 편’이 84.5%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은 2.6%로 낮게 나타남.

1.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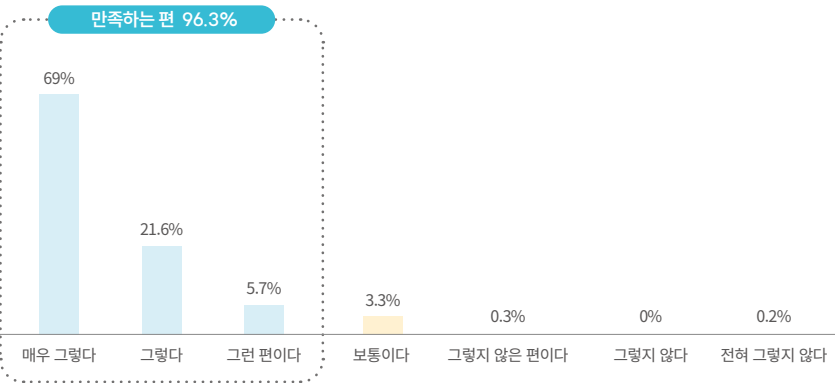
1-4.
만족도 조사
세부 항목별
프로그램 운영 측면

Q6-3.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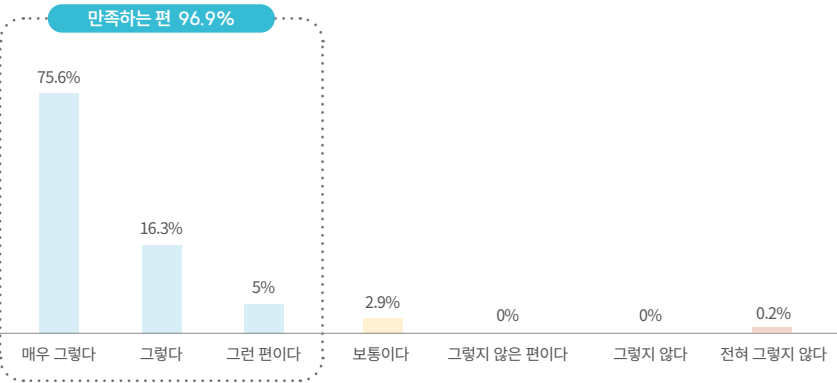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에 ‘만족하는 편’이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은 0.5%로 매우 낮게 나타남.

Q6-4. 다른 행사와 구별되는 의미나 차별성이 있다.



‘다른 행사와의 차별성’에 대한 응답은 ‘만족하는 편’이 96.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은 0.5%로 매우 낮게 나타남.

Q6-5. 행사 프로그램 기획이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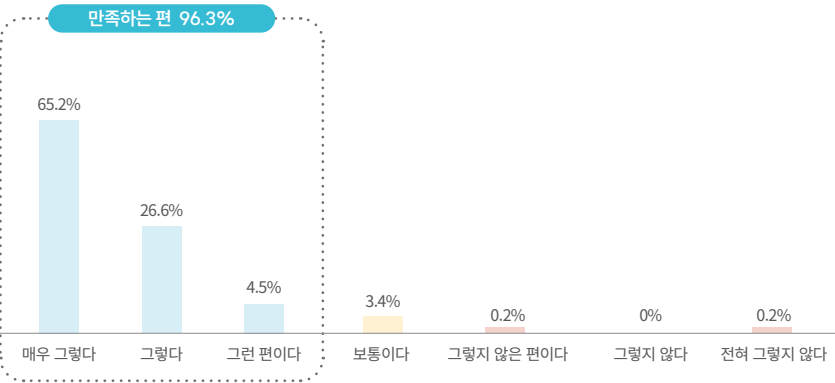


‘행사 프로그램 기획이 매력적이다’에 대한 응답은 ‘만족하는 편’이 96.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은 0.2%로 매우 낮게 나타남.

1.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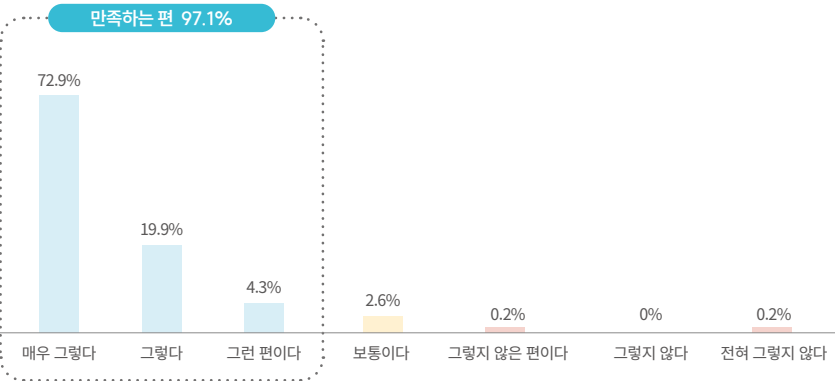
1-4. 만족도 조사
세부 항목별 프로그램 내용 측면

Q7-1. ‘스핀오프’ 라는 행사 주제가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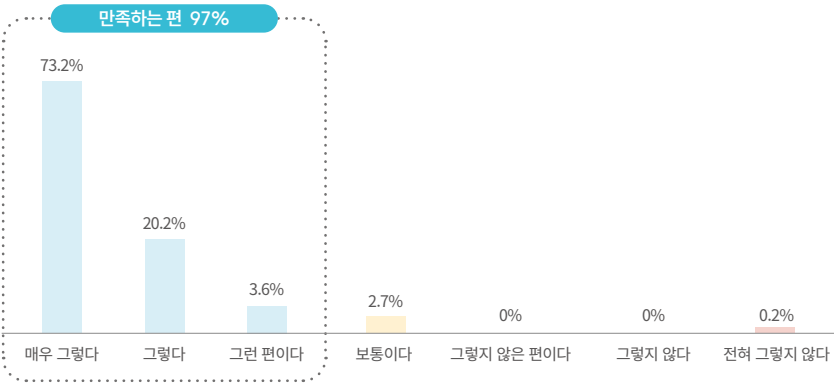
‘스핀오프-라는 행사 주제가 적절하다’에 대한 응답은 ‘만족하는 편’이 96.3%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은 0.4%로 낮게 나타남.

Q7-2. 참여한 패널이 프로그램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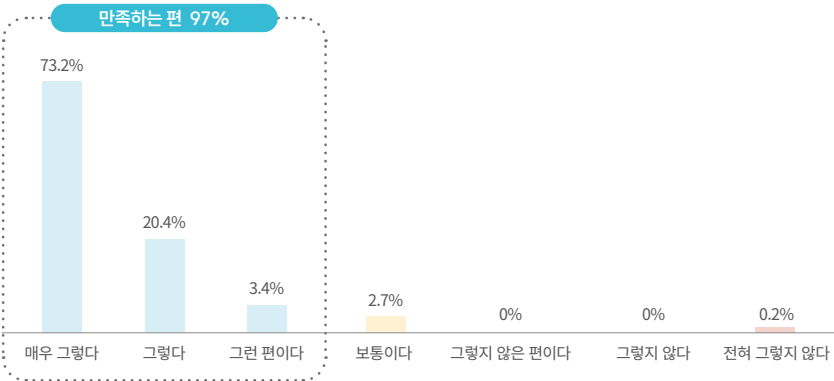
‘참여한 패널이 프로그램에 적합하다’에 대한 응답은 ‘만족하는 편’이 97.1%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은 0.3%로 낮게 나타남.

Q7-3. 프로그램 내용이 우수하다.



‘프로그램 내용이 우수하다’에 대한 응답은 ‘만족하는 편’이 97%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은 0.2%로 낮게 나타남.

Q7-4.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제 및 성격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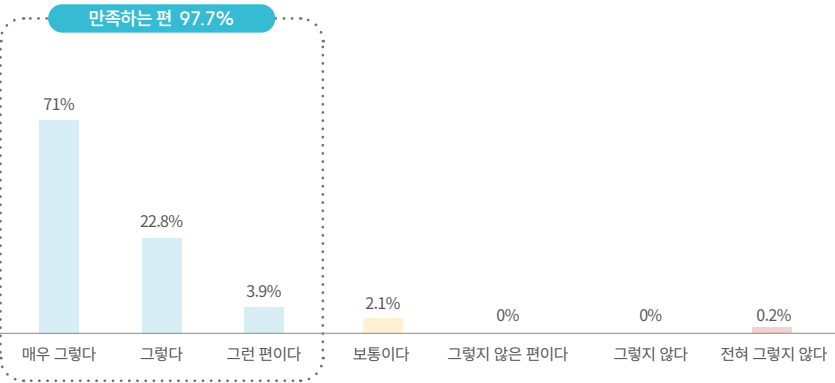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제 및 성격에 적합하다’에 대한 응답은 ‘만족하는 편’이 97%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은 0.2%로 낮게 나타남.

1.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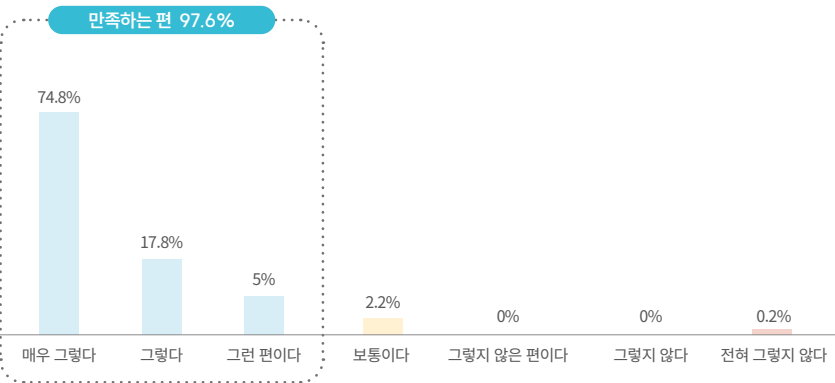
1-4. 만족도 조사
세부 항목별
사업에 대한 항목

Q8-1. 문학향유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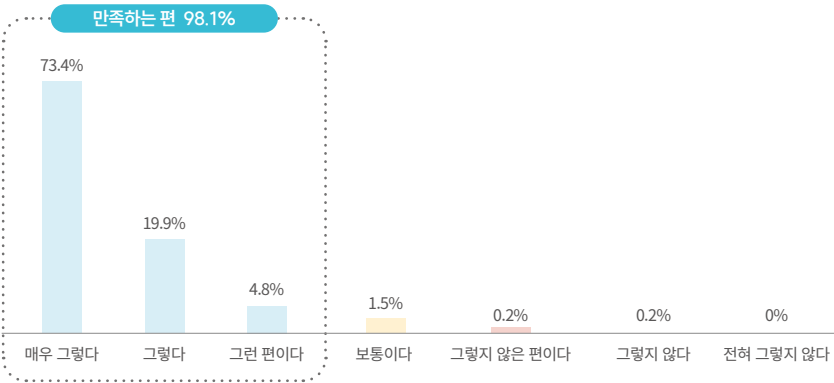
‘문학향유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었다’에 대한 응답은 ‘만족하는 편’이 97.7%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은 0.2%로 낮게 나타남.

Q8-2.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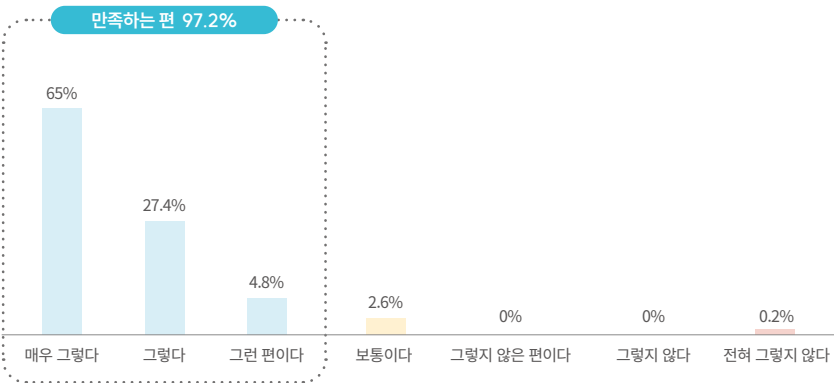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에 대한 응답은 ‘만족하는 편’이 97.6%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은 0.2%로 낮게 나타남.

Q8-3. 내년에 이 문학주간에 다시 참여할 것이다.



‘내년에 문학주간에 다시 참여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은 ‘만족하는 편’이 98.1%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은 0.4%로 낮게 나타남.

Q9. 앞서 평가하신 모든 항목을 종합해서 <문학주간2024 스펀오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내년에 문학주간에 다시 참여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은 ‘만족하는 편’이 97.2%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편’은 0.2%로 낮게 나타남.

1. 만족도 조사

1-4. 만족도 조사
세부의견 및 건의사항

운영	대학로에 왔다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시의 빈칸을 채워보는 이벤트도 좋았고 증정품인 틴케이스와 인센스 페이퍼도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 북라운지를 두고 공원에서 좋은 날 별과 바람을 쫓으며 독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문학주간 기획 중 이 기획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행사가 꽤 넓고 여러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시끄럽거나, 소위 어그로가 강하지 않아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요원분들과 스태프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나 자막이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계단)
	조명과 공간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나의 조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낭독 시에 집중될 수 있도록 조명을 연출해 주신 것이 좋았습니다.
	마로니에 공원과 예술가의 집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좋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시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내용	주제 스펀오프, 그에 대한 설명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문학이 필요한지,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 들어있는지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문학분야와 음악, 미술, 공연예술 분야가 콜라보되니 훨씬 풍부하고 깊은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좋았고 모르던 작가님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좋은 행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했던 프로그램 통해 작가님들 낭독을 직접 듣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서, 또 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 참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서로 오고가는 소통이 좋았고 다양한 추첨을 통한 진행이 좋았다 낭독이었지만 참여형 진행이었기에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사업	문외한인 사람도 가까이 시를 사랑하게 되는 행사였습니다. 오래오래 지속되어 같이 나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책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표현과 소통이 좋았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내년에는 지역에서 부산에서도 개최해 주세요! 지역작가들과의 협업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구성의 행사를 미처 알지 못해 아쉽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행사와 구성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처음 참여인데 내년에도 시간 내어 참여하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더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	프로그램 소개가 사전에 좀 더 자세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지 미리 알 수 있으면 독자도 좀 더 준비해서 참가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예약으로 들어왔는데 예약 미리보기가 불편했다. 상세 정보는 인스타그램 안 하면 블로그로 봐야 하는데 여기까지 찾아오는 접근성이 떨어졌다.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나 블로그도 홍보 링크 상단에 있으면 좋겠다.
	홍보물이 멋져요.
	홍보, 마케팅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상세 설명이 브로셔에 부족해요. 블로그 말고 행사 안내 홈페이지가 따로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2. 평가 및 제언

2-1. 사업 평가

문학주간2024 평가 및 제언
행사 기획 및 운영의 원활성 문학주간 준비는 주제 선정부터 프로그램 기획 및 섭외까지 약 3개월의 기간 소요되었으며, 행사 한 달 전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은 계획된 일정과 목표를 충족하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문학, 미술, 음악, 공연 등에 걸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행사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참가자 만족도를 높였다. 그러나, 각 기획의 세부 실행 단계에서 실행 방안 및 소통의 어려움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 장소 지원으로 공간 및 오프라인 홍보 강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의 장소 지원은 사업 초기부터 안전하고 다양한 기획을 가능케 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특히 아르코 미술관의 야외 LED 홍보 지원은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주차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수 조정 및 예산 운영의 효율화 대학로 현장에서 총 42개, 전국 단위로는 총 52개의 프로그램이 5일간 진행되었으며, 대학로 일대에서는 하루 평균 7~1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신중한 선별과 전략적 자원 배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깊이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공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올해도 20개 팀(대학로형 10개, 전국형10개)의 공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문학 장르와 다양성을 시도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감각을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였다. 향후에는 각 프로그램의 고유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전국형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 기획Table 위원 제언

김현
‘2024 문학주간’ 기획위원 제안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수개월 이어진 준비 기간 동안 큰 불편함과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분들이(김나영, 박현일, 한송이, 강지수) 행사 준비에 있어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또한 행사 전반에 걸친 업무 파악이 구체적이면서도 폭넓게 되어 있던 터라 우왕좌왕하지 않고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와우컬처 랩(이현진, 한수정, 옥지수 등)’ 역시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 준비부터 홍보, 전시 기획, 굿즈 제작, 현장 운영 등을 무리 없이 매끄럽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소유정, 양근애, 한유주, 황예인 기획위원들 간의 합도 잘 맞았습니다. 주제(스핀오프) 선정부터 개별 프로그램 기획 및 일정 조정까지 어떻게 보면 무척 복잡하고 피로할 일을 굉장히 간결하고 흔쾌한 일로 만든 것이 그런 합의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전체 주제를 아우르면서도 각 분야에 맞는, 동시에 해당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융합적인 프로그램을 독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 것 역시 문학주간을 대하는 기획위원들 진심과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획했던 프로그램들이 독자들의 너른 호응을 얻은 것을 기분 좋은 성취로 생각합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선보일 수도 있는 다회성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좋았습니다. 독자들에게 현실의 스핀오프를, 문학의 스핀오프를, 책의 스핀오프를 사유토록 하고 체험토록 한 이번 행사가 10주년으로 이어지는 2025년도 문학주간의 튼튼한 발판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2. 평가 및 제언

2-2. 기획Table 위원 제언

소유정
2024년 여름을 생각하면 자신 있게 문학주간을 떠올릴 것 같다. 무더운 여름을 견디며 가을의 한 주를 채울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동안 나는 여러 번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혼자 해야 하는 일로 채워진 일상에서 문학주간을 꾸리는 이들과 보내는 시간만큼은 작지만 넉넉한 소속감 안에 있었다. 올해 문학주간은 ‘스핀 오프(spin-off)’라는 주제 아래 기획되었다. 문학과 현실, 현실과 문학을 넘나들며 삶의 페이지를 확장시켜 보자는 의도로 제안한 키워드였다. 처음의 가벼운 생각보다 더 좋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024 문학주간은 부족함 없이 채워졌다. 참여자로 또 관객으로도 프로그램을 지켜보며 5일 동안 문학주간 안에 살았다. 여름부터 지켜온 ‘함께 있다’는 느낌이 이어졌고, 이 역시 확장된 ‘우리’로서의 스핀 오프라는 걸 알았다. 문학주간이 끝나고 나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는 일들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도 간혹 떠올린다. 매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뜨거운 여름, 미소 짓는 얼굴로 읽고 말하던 마로니에 공원의 무대들을. 그 모든 시간들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여러분과 함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의 일부를 누린 것으로 나 역시 다음 페이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양근애
2024년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문학주간_‘스핀오프’를 기획했던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그만큼 뜨거웠고 힘들었고 인상적이었다. 농담 같지만, ‘온 여름을 다 바쳐’ 기획한 이 일에 나는 진심이였다. 내가 맡은 일은 문학 장르 중 희곡 분야인 듯하지만, 문학으로서의 희곡이 아니라 연극 공연으로 생성되는 장르로서 희곡 작품과 극작가들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기획 일을 수락했다. 그러나 아르코 소극장이 섭외되고 ‘공연성’이나 ‘연행성’에 관한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움찔했다. 연극을 만드는 일처럼, 여러 사람의 에너지를 원기옥처럼 모아 세상에 없는 공간을 그리는 일을 그것도 문학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다니. 사실 작년 ‘소리채집’ 때 일부 프로그램을 관람하긴 했지만 문학주간 기획의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덤벼들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막상 기획 회의에 들어갔을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주간 팀, 와우컬처랩 관계자분들, 그리고 기획위원들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커졌다. 하나의 주제로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그런 일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크기만큼 그림을 그리고 그 조각들이 커다란, 그러나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는 신기한 모양의 캘리그램이 되리라는 상상에 내맡기는 일. 스핀오프라는 주제에 맞게 여러 ‘외전’들을 준비하면서 희곡/연극계 바깥으로 점선이 그어지는 일의 잠재성에 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기획의 일은 ‘기획’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섭외 연락과 몇 번의 사전 미팅, 그리고 체크, 또 체크. 개막일이 다가오고 폐막식이 끝날 때까지 주머니에서 나오고 또 나오는 볼펜처럼 어쩐지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초조해졌다. 그리고 이제 문학주간_스핀오프를 돌아본다. 생각만큼 훌륭하고 멋진 프로그램도 있었고 생각 외로 흥미로웠던 프로그램도 많았고 여러모로 아쉬웠던 프로그램도 있었다. 빠듯한 예산으로 훌륭한 작가들을 모시면서 송구했지만, 더 많은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커졌다. 기획 당시에는 미처 제안하지 못했으나, 장르별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충을 다독여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날씨가 무척 좋았고 그래서인지 예약해 놓고 참여하지 않는 관객들의 무심함이 아속하기도 했다. 내가 기획한 프로그램 챙기느라 다른 기획 위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놓친 것은 내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이 일을 마쳤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팀원들이 있었기에 이 행사가 더 나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특히 뛰어난 전문성으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고 보석 같은 작가들의 이름을 밀어 올리던 김현, 소유정, 한유주, 황예인 기획위원에게 많이 배웠다. 문학 가까이 에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고 연극과 문학이 손잡는 일에 관해 말할 수 있어 기뻛고 아쉬움을 남기며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2025년에는 문학주간이 10회를 맞는다고 한다. 그간의 시행착오와 노하우들을 잘 익히고 발효시켜 ‘2025’만의 신선한 주제로 새로운 문학주간의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현실과 문학을 끝없이 왕래하는 스핀오프의 시간 속에서 2025 문학주간을 기다려본다.

2. 평가 및 제언

2-2. 기획Table 위원 제언

한유주

저는 2024 문학주간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첫 제안을 받고 (tmi지만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 겠다고 결심한 일도 있었고 해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 에서 덜컥 수락했습니다. 이후 박헌일 차장님을 만나 행사에 대한 완벽에 가까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다른 기획위원분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르고 소극장과 예술가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행사가 진행된다는 점도, 기획위원 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문학의 여러 세부 장르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고요. 박헌일 차장님께서 보내주신 전년도 문학주간 백서와 유튜브에 올라 와 있는 몇몇 영상 자료를 통해 점차 감을 잡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황예인 선생 님이 먼저 제출하신 제언을 참고했는데요, 저 역시 첫 회의에 제출하는 기획위원 제안서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들을 좀더 상세히 안내하는 지침(?)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이들 대부분이 저처럼 회사 생활을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기획위원들이 맡은 업무 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가급적 세세한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무더운 여름에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술했듯 오랫동안 회사에 다녀본 적이 없어 매주 진행되는 회의는 제게 조금 버거우면서도 즐거운 이벤트였습니다. 서로 의견을 내고 대화하고 조율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와우컬처랩에서 전문가의 솜씨로 매끄럽고 유연하게 진행하시는 모습과 다른 기획위원들이 번득이 는 아이디어와 지식을 선보이실 때마다 감탄했었고요. 저도 뭔가 했겠지만 아무튼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스핀오프>라는 주제가 선정된 후 저는 두 번의 대담과 한 번의 공연을 기획하게 되 었는데,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섭외가 완료되면서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붙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다른 기획위원들께서 긍정하시거나 때 로는 살을 붙여주시기까지 했었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끌어주는 경험이 소중했습니다. 다만 행사비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었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음악 공연의 경우 악기를 들고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북토크나 대담의 경 우에도 사회자건 출연자건 서로의 작품을 잘 알아야 하니까 도서 지원 등의 형식으로 출연료 외의 수 당(?)이 책정되면 어떨까 싶어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마침내 2024 문학주간이 개막했고, 개막 공연, 정말 좋았습니다. 아르고 소극장이 그렇게 아늑한 장 소인줄 잘 몰랐어요. 하림 씨의 연주와 노래도 <낮고 가난한 자리에 남아>라는 주제와 잘 어우러졌 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기 중이라 수업과 행사 를 병행해야 했는데, 제가 기획한 행사 참석도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획 위원들의 프로그램에도, 일반 공모로 기획된 프로그램에도 참석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여러 행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피로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에 여 유가 좀 생긴다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려봅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 문학주간을 함께 만드신 모든 분들을 거의 처음 뵈었는데 요, 늘 흥미진진하고 즐겁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님들과 와우컬처랩 분들, 다른 네 분의 기획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뜻깊은 행사 가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황예인

지난여름 2024 문학 주간 기획위원 제안을 받았다. 지난해 가을 동료 출판인들 및 작가들의 에스앤 에스 계정을 통해 대략 어떤 분위기의 행사인지 파악하고 있었지만, 기획위원이 정확히 어떠한 역할 을 하는지는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다. 이름 그대로 올해의 주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되겠지 짐작하는 정도. 출판 분야로 제안받은 것이기에, 시/소설/연극/평론 등 다른 분야의 작가를 만나 그들의 관심사를 듣고 시야를 확장하고 싶다는 마음에 수락하게 되었다. 전년도의 문학 주간 자료를 메일로 받아보았고, 미팅을 통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상세히 설명 을 들었기에 수락 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보완하면 어떨까. 보통 원고 청탁서에는 원고의 종류 및 매수, 마감 기한, 고료 혹은 계약금의 항목이 들어 있다. 기획위원 제안서에는 활동 기간 및 업무 내용(기획 및 실무(회의 참여/작가 섭외/작가 응대/ 경우에 따라 공연 큐시트 작성 등), 활동비 등이 적힐 수 있으리라. 이러한 제안서가 먼저 제공된다면, 제안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이후 회의 및 실무 진행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수차례 모였으나, 주제를 정하고 각자 기획한 3개의 프로그램을 공유, 상의하기 위해 모였던 회의들 이 기억에 가장 남아 있다. 주제를 정하는 과정은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한 번도 합을 맞춰본 적 없던 기획위원들이 각자의 관심사와 취향, 전문 영역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해서 긴 시간의 대화가 힘든 만큼 의의도 컸다고 생각한다. 필요할 때 개입하여 논의가 빠르게 또는 진득하게 진행될 수 있 도록 힘써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보통 문학 행사의 경우 북토크 위주의 행사를 기획하기에, 공연을 필수적으로 짜야 한다는 점이 상당 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이미 수차례 문학 주간을 꾸려온 분들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정확히 어떤 상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그 압박감 덕분에 작가와 꼭 어울리는 뮤지션을 찾 고, 소극장에 맞춤형 공연을 기획할 수 있었던 점은 성과라 생각한다. 혹 기록을 위해 공연 상황을 촬영해둔 영상이 있다면 회의중 이를 기획위원들에게 공유하여 직접 감 상하는 경험을 마련해주면 어떨까? 공연 기획시 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날 담당한 행사와 개막식이 겹쳐, 행사에 참여한 작가들의 배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행사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한 자리에 모인 다양한 작가들을 다음에 다시 만나는 일은 어렵기에, 끝난 후 차라도 한잔하면서 함께 평가하고 수고를 감사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막식에 모든 기획위원이 참여하기에, 기획위원이 담당한 행사와 시간이 겹치 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모든 행사를 다 가볼 수는 없었지만, 발단은 행사장마다 와우컬처랩 분들의 역할과 노고가 느껴져 대 단하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중한 전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활동해나갈 수 있 도록 관련 사업의 예산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겨본다.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덕 분에 유쾌한 자극을 수시로 받을 수 있었고, 좁은 시야가 조금이나마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좋은 자 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25년에는 문학과 문학 주 간을 사랑하는 관객으로 문학 주간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3. 참여 관객 후기

“ 처음 참가한 문학주간 행사,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한국어성문학의 목소리 협력 스테이지 참석 및 행사 공간을 다녀왔는데요. 박혜진 평론가님의 사회와 김화진, 서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로 구성된 협력스테이지 재밌었습니다. 작가님들의 문학작품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즐거웠어요. 평론가님의 진행도 매끄럽고 지루하지 않고 좋았어요.

협력 스테이지 | 한국어성문학의 목소리

“ 이희주, 조예은, 권혜영 작가를 한 자리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했다. 스위밍풀의 대표분도 진행이 유려하셨다.

주제 스테이지 | ‘사랑’ 외전 쓰기

“ 복다, 위픽 대담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출판인이 아니라 단순 독자였는데 출판 기획, 제작 등 세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세 분 다 떨린다고 하셨지만 이희주 소설가의 진행까지 흡입을 데 없었어요. 분량상 생각된 질문들은 SNS를 통해서라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많은 분량의 대본지가 넘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꼭꼭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복다, 위픽, 이희주 선생님 불러주세요

협력 스테이지 | 문학외전(外傳) - 복다&위픽 이야기

“ 카프카 여동생이 그랜드! 너무 재밌게 잘 참여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작가님의 힘인가요! 배우들 덕분에 몰입도 잘됐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재해석을 알려주셔서 너무 신선하고, 덕분에 깊게 몰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 너무 좋으셨어요. 작품도 재밌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스테이지 공모전 | 카프카 여동생이 그랜드<변신>속 여동생 그레타의 변(變)

“ 폐막공연 너무 좋았습니다. 책과 원작을 바탕으로 한 가무극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 개의 파랑의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공연을 이미 보았지만, 이번 기회에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막행사 | 우리 곁의 파랑

“ ‘읽고 만들고 쓰기, 영화와 소설’ 출연진분들 모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협력 스테이지 | 읽고 쓰고 만들기: 영화와 소설

“ 배수아 작가님 행사 너무 좋았습니다

배수아 작가님 프로그램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협력 스테이지 | [문학주간 Classic] BS 없는 BS 낭독회

“ 옛 시인과 공명하다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시를 현대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해 녹여내 더욱 와닿았습니다.

옛 시인과 공명할 수 있던 한시 음악회를 통해 옛 시를 신명나고 감미롭게 재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이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스테이지 공모전 | 한시 음악회: 옛 시인과 공명하다

“ 출연진의 발성과 발음으로 인해 집중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을 울리는 연기력이 좋았고 새로운 장르의 시도가 좋았다.

유리로 만든 세상 앵클 공연 기대합니다.

스테이지 공모전 | X-파일 멀더와 스킨리의 낭독극: “유리로 만들어진 세상”

“ 북토크(박서련 작가)와 공연이 잘 어우러져 좋았습니다.

협력 스테이지 | 소설, 역사의 외전: 초선, 카카듀, 강주룡

“ <울봄에 헤어진 연인들을 위하여> 세션 너무 재밌었습니다. 깔깔 웃으면서 봤습니다~!

봄에 이별한 사람들 후속 기획 시급합니다!

주제 스테이지 | 울봄에 헤어진 연인들을 위하여

“ 다양한 장르 특히 희곡 연극이 포함되어 좋았다.

다채로운 의견이 오가는 시간! 문학주간2024 참 좋았습니다.

주제 스테이지 | 인간 외전

“ 문학 글귀를 사용한 전시가 의미 있었다.

전시장 공연이 인상깊고 글귀를 거울에 대보는 이벤트가 좋았어요.

기획 전시 <낮의집 밤의집> 공연과 관련한 해설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전시 | 낮의집 밤의집

04

홍보

1. 홍보 개요	152
2. 언론 홍보	153
3. 온라인 홍보	161
3-1. SNS 운영	
3-2. 인스타그램	
3-3. 블로그	
3-4. 페이스북	
3-5. 홈페이지	
3-6. 알라딘	
3-7. 네이버 예약	
3-8. 영상홍보	
3-9. 커뮤니티 홍보	
3-10. 이벤트	
4. 오프라인 홍보	180
4-1. 인쇄 홍보물	
4-2. 옥외 홍보물	
4-3. 현장 제작물	

1. 홍보 개요

홍보 개요

언론 홍보	언론기사 26건
	기획기사 1건
온라인 홍보	인스타그램 총 60건
	블로그 총 53건
	페이스북 총 42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주말랭이 뉴스레터 발송: 65,912건 오픈: 29,433건
	알라딘 댓글 이벤트 참여 2,995건
	유튜브 콘텐츠 발행 6건
	커뮤니티 홍보 24건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예약 평균 예약률 70%
	콜투라 지면광고
	문학동네 지면광고
	대학로예술극장 앞 대형 포스터 게시
	옥외 현수기 종로 일대
	옥외 현수기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옥외 LED 영상 및 키비주얼 송출

2. 언론 홍보

언론 홍보 보도 리스트 총 26건

보도일자	매체	기사명	URL
9/24	뉴시스	문학주간2024 '스핀오프' 27일 개막...아르코 예술극장	https://www.newsis.com/
9/24	이데일리	문학주간 2024-스핀오프' 27일 개막...190명 문학·예술인 참여	https://www.edaily.co.kr
9/24	파이낸셜뉴스	문학과 예술의 만남, 확장되는 서사..문학주간2024 ‘스핀오프’	https://www.fnnews.com/
9/24	국제뉴스	문학주간 2024 ‘스핀오프’ 9.27~10.1 개최	https://www.gukjenews.com/
9/24	미디어펜	문학주간 2024 ‘스핀오프’, 아르코 예술극장서 특별 공연	https://www.mediapen.com/
9/24	이로UNET	문학주간 '2024스핀오프' 개막...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융합 선보여	https://www.eroun.net/
9/24	뉴스저널리즘	'소설로 확장하는 현실' 아르코 문학주간 27일 개막	https://www.ngetnews.com/
9/24	문화경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주간 2024 스핀오프’서 현실·문학 사이 경계 탐색	https://weekly.cnbnews.com
9/24	뉴스1	"문학을 통한 삶의 새로운 가능성 탐구"...문학축제 '스핀오프'	https://www.news1.kr/
9/24	뉴스워커	예술위, 현실과 문학 사이의 경계 탐색...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탐구 문학주간2024 ‘스핀오프’ 개최	https://www.newsworker.co.kr/
9/25	연합뉴스	대학로 등 전국서 전시·낭독회·공연...'문학주간' 27일 개막	https://www.yna.co.kr/
9/25	KBS뉴스	문학의 의미 나누는 ‘문학주간 2024’ 이달 27일 개최	https://news.kbs.co.kr/news/
9/25	SBS 뉴스	대학로 등 전국서 전시·낭독회·공연...'문학주간' 27일 개막	https://news.sbs.co.kr/
9/25	머니투데이	전국 곳곳서 '문학축제' 열린다..'문학주간 2024' 27일 개막	https://news.mt.co.kr/
9/25	서울경제	문학 통해 우리 삶도 재구성...전국서 ‘문학주간 2024’ 개최	https://www.sedaily.com/
9/25	아시아투데이	문학의 가치 논하는 ‘문학주간’ 27일 개막	https://www.asiatoday.co.kr/
9/25	울산매일신문	가을 감성 듬뿍, 2024문학주간 행사 다채	https://www.iusm.co.kr/
9/25	뉴시스	문체부, '문학주간 2024' 개최...스핀오프 주제로	https://www.newsis.com/
9/25	아시아경제	문학으로 우리 삶 되돌아본다...'문학주간 2024'	https://view.asiae.co.kr/article/
9/25	뉴스핌	문체부, 10월1일까지 전국서 스핀오프 주제로 '문학주간 2024'	https://www.newspim.com/
9/25	아주경제	마로니에공원 등 전국서 '문학주간' 행사 열려	https://www.ajunews.com/
9/25	핸드메이커	'이야기의 재구성' 문학주간 2024, 9월 27일 개최... 소설가·시인과의 만남	https://www.handmk.com/
9/26	뉴스워커	예술위, 문학주간2024 맞아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학행사' 마련	https://www.newsworker.co.kr/
9/27	KBS뉴스	[잇슈 컬처] 전국 곳곳서 ‘문학주간’ 오늘 개막	https://news.kbs.co.kr/
9/27	동아일보	낭독회 대담 강연 공연... 지금 대학로는 ‘문학의 거리’	https://www.donga.com/
9/27	문학뉴스	올해 '문학주간' '스핀오프' 주제로 개막	https://www.munhaknews.com/

2. 언론 홍보

주요보도 ①

대학로 등 전국서 전시·낭독회·공연... '문학주간' 27일 개막

연합뉴스 | 24.9.25(수)



연합뉴스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마켓+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건강

언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뉴스홈

최신기사

대학로 등 전국서 전시·낭독회·공연... '문학주간' 27일 개막

송고시간 | 2024-09-25 09:46

요약

1143회
오늘 발행분



이은정 기자

올해 주제는 '스핀오프'...강화길·전선란 작가 등 190여명 참여

문학을 기반으로 낭독회, 공연 등을 선보이는 축제가 5일간 서울 대학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원은 '문학주간 2024' 행사를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9회째를 맞은 문학주간은 전국의 문학인이 참여해 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고 관객과 공유하는 축제이다. 이번 주제는 '스핀오프'(원전에서 파생한 작품)다. 문학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다양한 외전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우리 삶 속의 이야기도 재구성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는 190여명의 문학인과 예술인이 참여해 50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식은 27일 오후 7시 대학로 아르코 소극장에서 열린다. 개막 공연으로 강우근·신미나 시인과 가수 하림이 '낮고 가난한 자리에 남아'를 주제로 고(故) 신경림 시인 추모 무대를 꾸민다. 이후 28일부터 소유정 평론가, 강하길·최은미 소설가가 '다들 페이지로, 확장되는 소설', 유혜서·서이재 작가, 가수 아폴이 '침묵하는 사이마당'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쇼와 낭독회 등이 이어진다. 10월 1일 폐막식에서는 소설 '천 개의 파랑'의 천선란 작가와 김태형 연출가, 송문선·서연정 배우, 가수 진호가 이 소설을 뮤지컬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의 고인과 이야기를 나눈다.

서울을 넘어 전국에서도 문학을 활용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부산에서는 '학교에 간 가르르 마녀'를 기초로 한 1인극과 연극치료를, 대구에서는 '문학과 춤의 감정 표현하는 방식 비교 북토크'와 살풀이춤 공연, 청주에서는 '요가를 소재로 한 문학 낭독과 작품 속 요가 동작 수행' 등 9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축제 기간 마로니에공원 지하 다목적홀에서는 올라 토카르추크의 소설 '낮의 집, 밤의 집'에서 영감을 기획한 공간을 전시하고, 주말에는 안무가 고권금과 배우 강혜연의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야외 마로니에공원에서는 문학작품의 구절을 방문객이 완성해보는 '스핀오프 문장 완성하기'와 '북라온지 & 포토존'도 운영한다. 손보미 작가와 관객이 함께 작품을 낭독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 극장', 관객의 사연을 소개하는 '울봄에 헤어진 연인들을 위하여' 등 관객 참여 무대도 마련한다. 네이비 예약을 통해 무료 사전 신청을 하면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신간황 춘혜부 예술정책관은 "내년부터는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협력해 '문학주간'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문학축제로 만들어 나갈것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5046500005?input=1195m>

대학로가 다양한 문학의 색채로 물든다. 문학을 기반으로 한 각종 낭독회, 강연, 공연 등이 잇달ان 다채롭게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주간 2024’ 행사를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문학주간은 문학인이 참여해 독자 및 관객과 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얘기하며 서로 소통하는 축제다. 올해는 190여 명의 문학인과 예술인이 참여해 50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9회째를 맞은 올해 문학주간은 주제는 ‘스핀오프’(원전에서 파생한 작품). 현실보다 더 큰 상상력의 세계인 문학을 우리 가슴속에 품어서, 아직 오지 않는 시간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자는 뜻을 담았다. 개막 공연은 27일 오후 7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열린다. 올 5월 타계한 신경림 시인을 기리는 헌정 낭독공연 ‘낮고 가난한 자리에 남아’가 열리는데 시인 강우근, 신미나의 낭독, 가수 하림의 노래로 꾸며진다. 28일 오후 5시 평론가 소유정, 소설가 강화길, 최은미가 참여하는 ‘다음 페이지로, 확장되는 소설’ 등을 비롯해 여러 이야기쇼와 낭독회가 이어진다. 10월 1일 오후 3시에는 정진새 연출의 낭독공연 ‘역사의 알고리즘’이 펼쳐진다. 코로나 팬데믹과 연극의 종말을 다루며, 로봇 배우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폐막공연 ‘우리 곁의 파랑’이 열린다. 천선란의 소설 ‘천 개의 파랑’을 원작으로 한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의 연출가 김태형과 배우들, 그리고 원작자 천선란이 참여해 텍스트가 공연으로 전환된 화이트 스토리를 나누고, 노래 공연도 이어진다.

축제 기간 마로니에공원 지하 다목적홀에서는 올라 토카르추크의 소설 ‘낮의 집, 밤의 집’에서 영감받아 기획한 공간을 전시한다. 아외 마로니에공원에서는 문학작품의 구절을 방문객이 완성해보는 ‘스핀오프 문장 완성하기’와 ‘북라운지 & 포토존’을 운영한다. 27일 소설가 손보미와 관객이 함께 작품을 낭독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교장’, 10월 1일에는 소설가 배수아와 함께하는 ‘BS 없는 BS낭독회’가 열린다. 행사 기간 ‘예술가의 집’에서는 문학인들이 기획한 낭독, 공연, 토론회 등이 이어진다. 행사 기간 전국 곳곳에서도 공연 등이 이어진다. 27일 부산에서는 ‘Spin-off, 내 안의 급속이’ 공연이, 28일 대구에서는 토크콘서트 ‘Spin-OFF: 동부민요’ 등이 열린다.

이번 축제에 모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매년 신 ‘노쇼(no show)’분에 대해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홈페이지와 문화주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40927/130112657/2>

2. 언론 홍보

주요보도 ③

문학과 예술의 만남, 확장되는 서사..문학주간2024 ‘스핀오프’

파이낸셜뉴스 | 24.9.24(화)

파이낸셜뉴스

문학 > 전사공연

문학과 예술의 만남, 확장되는 서사..문학주간2024 ‘스핀오프’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24.09.24 11:23 | 수정 2024.09.24 11:23

가 가

9월 27일~10월 1일, 아르크 예술극장 및 서울 마로니에공원 일대

40세 이상의 남자들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예술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체부)가 후원하는 ‘문학주간 2024 ‘스핀오프’가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아르크 예술극장, 예술가의 집, 서울 마로니에공원 일대(전시, 야외무대) 및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문학주간에는 190여 명의 문학인과 예술가들이 참여해 △주제스태이지 16개 프로그램 △공모스태이지 20개 프로그램 △협력스태이지 12개 프로그램 △전시 및 참여형 프로그램 2개 등 총 50개의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 문학과 다양한 예술 장르의 결합

이번 문학주간 주제인 ‘스핀오프’는 원작에서 파생된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특히 아르크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6개의 주제스태이지는 공간의 특성을 살려 문학과 다양한 예술 장르가 결합된 형태다. 9월 27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개막공연 ‘낮고 가난한 자리에 남아’는故 신경림 시인을 추모하는 헌정 낭독 공연으로, 시인 강우근, 신미나와 싱어송라이터 하림이 함께 신경림 시인의 시와 정신을 기리는 무대를 선보인다.

9월 28일 오후 7시 ‘침묵하는 사이마다’에서는 낯선 음악적 감각을 선사하는 뮤지션 아들과 소설가 윤해서, 서이제가 함께한다.

이어 9월 29일 오후 3시에는 ‘소설, 역사의 외전’이 열리며, 소설가 박서련과 뮤지션 이정표가 함께하는 북토크 형식의 공연이 진행된다. 박서련은 소설 속에서 역사적 인물과 장소를 어떻게 재구성했는지를, 이정표는 일제강점기 여가수들의 가창법을 계승하고 재해석한 음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인간 외전’이 펼쳐지며, 극작가 김연재와 신효진, 배우 성수연이 참여해 포스트휴먼을 주제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연극 세계를 탐험한다.

10월 1일 오후 3시에는 극작가 정진새의 연출로 진행되는 낭독 공연 ‘역사의 알고리즘’이 펼쳐진다. 이 작품은 코로나 팬데믹과 연극의 종말을 다루며, 로봇 배우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폐막공연 ‘우리 곁의 파랑’이 열린다. 이 공연에는 천선란의 소설 ‘천 개의 파랑’을 원작으로 한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의 연출가 김태형과 배우들 그리고 원작자 천선란이 참여해 작품의 재해석 과정과 텍스트가 공연 예술로 전환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 예술가의 집서 낭독, 공연, 토크, 대담 등 열려

예술가의 집에서 진행되는 주제스태이지에서도 문학인들이 기획한 낭독, 공연, 토크, 대담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스핀오프’의 문학적 의미를 탐구한다.

9월 27일 오후 5시에는 “‘사랑’ 외전 쓰기”가 열리며, 소설가 권혜영, 이희주, 조예은이 서로의 작품을 바탕으로 확장된 소설의 세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서 9월 28일 오후 4시에는 ‘다음 페이지로, 확장되는 소설’이 진행되며, 소설가 최은미가 단편소설 ‘여기 우리 마주’를 장편소설 ‘마주’로 확장한 과정과, 가상의 도시 ‘안진’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소설가 강화길과 함께 소설의 확장된 세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9월 29일 오후 2시에는 ‘극장 외전’이 열리며, 걷는 연극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구자혜 연출가와 ‘0set프로젝트’의 신재 연출가가 참여해, 극장 밖에서 펼쳐지는 연극과 그 속에서 재구성되는 현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 문학 창작자들, 다양한 협력기관과 출판사가 함께하는 문학의 확장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문학 창작자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 소통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공모스태이지’ 20개와 여러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9월 27일 오전 11시 한국문학번역원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극장’은 소설가 손보미와 뮤지컬 배우 김성현이 함께한다. 이어서 9월 28일 오후 3시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글틴 북토크’가 진행되며, 9월 29일 오전 11시에는 ‘2024 상반기 포커스(Focus)’ 북토크에서 올해 주목받은 소설가 김기태의 작품을 심도 있게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 오후 5시에는 소설가 배수아와 함께하는 ‘BS없는 BS낭독회’가 열린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네이버 예약(링크)을 통해 무료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매진 시 현장 노쇼(No show)에 상황에 따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409241105448856>

2. 언론 홍보

주요보도 ④

문학의 의미 나누는 ‘문학주간 2024’ 이달 27일 개최

KBS뉴스 | 24.9.25(수)

재난포털

KBS 뉴스

분야별 뉴스9 TV 뉴스 프리미엄K 스포츠 시사프로그램 지역뉴스

문화

문학의 의미 나누는 ‘문학주간 2024’ 이달 27일 개최

입력 2024.09.25 (09:20) | 수정 2024.09.25 (09:21)

요약

전국 문학인들의 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고 관객과 공유하는 문학축제가 모레(27일)부터 시작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문학주간 2024’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등 전국서 열립니다.

이번 문학주간은 ‘스핀오프’를 주제로 다른 분야와의 융합과 창작 과정에서 있었던 비화, 소설 속 인물에 대한 재해석 등 문학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다양한 외전을 선보입니다. 이러한 외전을 통해 우리 삶 속의 이야기들도 다시 재구성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취지입니다.

개막식은 27일 저녁 아르코 소극장에서 열리며, ‘낮고 가난한 자리에 남아’를 주제로 강우근과 신미나 시인, 가수 하림이 공연을 진행합니다. 행사 주간 동안 문학을 주제로 이야기쇼와 낭독회, 뮤지컬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68677&ref=A>

기획기사

[문학주간2024]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내려 가는 시간: 폐막 공연 <우리 곁의 파랑>

클투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내려 가는 시간

— 문학주간 2024 폐막 공연 <우리 곁의 파랑>

설재원 편집장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문학주간이 ‘스핀오프’라는 주제로 문학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선보이며 5일간의 문학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문학주간은 문학인과 향유자, 매개자들이 소통하며 문학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고 퍼뜨리는 대표적인 문학축제이다. 이번 문학주간 2024는 9월 27일(금)부터 10월 1일(화)까지 아르코 예술극장과 서울 마로니에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올해의 문학주간 2024는 주제 ‘스핀오프’를 내세우며 원작에서 파생된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방식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문학이 주는 직접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문학이 우리 삶에 안겨주는 새로운 시각과 의미까지 두루 살피는 소중한 경험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올해 문학주간 2024의 피날레를 장식한 폐막 공연이 바로 <우리 곁의 파랑> 이다.

1일 (화) 저녁 7시에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열린 <우리 곁의 파랑> 은 기획위원을 맡은 김현 시인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그는 “관객석을 꽉 채워주신 여러분 덕에 성공리에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과 함께 “5일 동안 ‘문학’이라는 이름 아래 5일 동안 맺은 귀한 인연의 소중함”을 전하며 폐막 공연을 열었다.

폐막 공연 <우리 곁의 파랑> 에는 천선란의 소설 『천 개의 파랑』을 원작으로 한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의 연출가 김태형과 배우 진호, 서연정, 송문선이 참여하였으며 원작자인 천선란 작가가 사회를 맡았다. 무대에 오른 5명의 작가와 연출자, 배우는 활자가 공연 예술로 극화되는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 재해석 과정을 나누었다.

2. 언론 홍보

기획기사

[문학주간2024]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내려 가는 시간: 폐막 공연 〈우리 결의 파랑〉

클투라

서울예술단에서 제작한 〈천 개의 파랑〉은 ‘창작가무극’이라는 단어에서 느낄 수 있듯 한국적 소재와 양식을 활용한 작품이다. 그래서인지 뮤지컬’의 양식을 지향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한국적인 움직임과 소리를 개발하고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우리 전통의 가치를 발전시킨 안무와 미술, 그리고 동시에 관객과 소통하는 대중적인 음악과 노래를 결합한 〈천 개의 파랑〉은 수준 높은 무대와 뛰어난 작품성을 자랑한다.

이날 ‘국가대표 연출’이라는 별명이 생긴 김태형 연출가는 원작자인 천선란 작가와의 대화 중에 “몇 년에 한 번 정말 하고 싶은 작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천 개의 파랑〉”이었다며, “작품을 제안받기 전에 소설을 읽어보았고 이 소설을 공연화하면 어떻게 상상해본 적이 있어 아주 흔쾌히 작품을 맡게 된 행복한 기억”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는 ““뮤지컬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로봇이 아닌 인형을 활용했다”며, 비싼 돈을 들여 무대에 로봇을 올렸을 때 로봇이 다른 배우와 교감하거나 혼을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한다. 이어 “콜리는 로봇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다른 캐릭터와 교류하며 만들어 내는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콜리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 덧붙이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스테이지에서만 할 수 있는 작업이 무엇인지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선란 작가는 “〈천 개의 파랑〉 뮤지컬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를 체감했다”며, “이 이야기는 혼자 웅크려서 공모전을 준비하며 쓰던 이야기의 크기보다 훨씬 넓어져 더 이상 내 몫이 아닌, 나에게서 멀리 떠나간 작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멀리 나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특히 그는 “뮤지컬을 보며 ‘왜 내가 마지막에 콜리를 낚아시켰을까’ 처음으로 후회했다”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캐릭터를 잘 소화해준 배우들과 김태형 연출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여기에 “작가는 책을 읽고 있는 진행형의 독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뮤지컬을 보며 관객의 얼굴이 웬지 내가 마주하지 못했던 독자의 얼굴처럼 느껴져 좋았다”는 감상을 덧붙이기도 했다.

콜리 역의 진호 배우는 “원작 소설을 읽고 무조건 작품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며 “로봇 캐릭터를 맡게 돼 ‘내가 얼마나 로봇이어야 할까’를 중점적으로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연이다보니 기술적인 부분이나 준비 과정에서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배우들과 책을 연구하며 서로 대화했던 게 극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미래에는 로봇과 인간이 얼마나 더 가까워져 있을지, 로봇과 AI, 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느껴지는 대로 연기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소회를 전했다.

연재 역을 맡은 서연정 배우는 “책을 읽으며 가장 마음에 갔던 캐릭터가 연재”였으며, “저와는 많이 다른 아이여서 그런지 웬지 모르게 자꾸 생각나고, 꿈에도 나와서 더 잘 이해해 보려고 했다”고 말한다. 그는 “가정 환경 등의 문제로 꿈을 잠시 내려놓은 연재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 차갑고 텅 비어 있는 듯했다”며 그런 연재가 콜리를 만나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 연구했음을 언급했다.

휠체어를 타는 은혜 역할을 맡은 송문선 배우는 “원작 작가님과 연출가, 스태프분들이 은혜라는 인물을 너무 좋게 만들어 주셔서, 캐릭터에 무언가를 덧붙이기 보다는 휠체어와 한몸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 집중했다”며, 연습부터 공연까지 사용한 휠체어가 실제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 꼭 이 너무 좁고 방향 조정이 어려워 익숙하게 움직이는 데 어려웠는데 이를 수동으로 잘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김태형 연출가는 “〈천 개의 파랑〉은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걷는 소수자성을 띤 여러 캐릭터들이 콜리라는 어떤 구심점으로 통해서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는 이야기”라며 “동물권이나 이동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은혜라는 캐릭터를 다루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웠다”고 말한다. 천선란 작가는 “『천 개의 파랑』과 관련하여 영화나 연극, 뮤지컬 제의가 들어오면 늘 ‘실제 동물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대답한다”며, “『천 개의 파랑』은 무엇보다도 동물들의 행복을 바라는 책이기 때문에 촬영을 위해 동물이 사용되는 것은 이 책과 결이 맞지 않을 것 같다고 했더니 더 이상 영화 제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우리 결의 파랑〉의 공연 사이사이에 〈천 개의 파랑〉의 공연 영상이 상영되었고, 배우들이 직접 나서 작품의 넘버를 부르기도 했다. 서연정, 송문선, 진호 배우는 〈외롭지 않길 바라〉, 〈초코 케이크〉, 〈콜리〉 등을 부르며 문학주간 마지막 밤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처럼 문학주간 2024은 ‘스핀 오프’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감각으로 문학을 경험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작가와 독자 등 문학과 향유자, 매개자가 함께 모여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내려 간 올해의 문학주간은 문학을 연결고리로 현실보다 더 큰 상상력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세계를 끌어 안았다. 문학에서 파생된 지금-여기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무궁한 가능성을 살펴본 이번 문학주간 2024는 세상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현실의 ‘스핀오프’를 보여준 시간은 아니었을까.

출처 | <http://www.cultur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9>

3. 온라인 홍보

3-1. SNS 운영

채널	주소	실적	조회수
인스타그램	문학주간	https://www.instagram.com/munhak_week/	콘텐츠발행 : 60건
블로그	문학주간	https://blog.naver.com/arkomunhak	포스팅 : 53건
페이스북	문학주간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94761660540	콘텐츠발행 : 42건
홈페이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content/5445	업데이트
알라딘	알라딘	https://www.aladin.co.kr/events/wevent.aspx?EventId=272820	댓글 이벤트 참여 : 2,995건
온라인 예약	네이버	https://booking.naver.com/booking	40개 프로그램 예약 운영 평균 예약률 약 73% 달성
유튜브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https://www.youtube.com/@arkokorea	콘텐츠발행 : 6건
온라인 커뮤니티			24건 1,620

3. 온라인 홍보

3-2. 인스타그램

- 문학주간 주요 작가프로그램 및 주요 공식 이벤트 피드 발행
- 문학주간 이벤트 및 캠페인 운영
- 문학주간 팔로우 유도



채널 운영	2024. 7. 12. ~ 2024. 11. 30.
팔로워 수	2,210명(2024. 11. 1. 기준) *작년 대비 397명 증가
콘텐츠 발행 개수	게시물 65개, 스토리 195개
추진 성과	도달한 계정 : 17,026 방문한 계정 : 7,900

인스타그램 발행 리스트

N0.	발행일	타이틀	카테고리	도달수 / 참여수
1	8/7	공모스테이지	공지	707/39
2	8/8	키비주얼 오픈 (9분할)	포스트	2,928/149
3	8/9	독서템 자랑하기 이벤트	이벤트	1,117/72
4	8/14	독서템 자랑하기 이벤트 (재업로드)	이벤트	831/30
5	8/14	BS 없는 BS 낭독회 낭독 신청 (보관)	포스트	561/57
6	8/19	BS 없는 BS 낭독회 낭독 신청 (기간 연장) (보관)	공지	440/25
7	8/30	개막식 낮고 가난한 자리에 남아	포스트	4,157/98
8	8/30	주제 스테이지 '사랑' 외전 쓰기	포스트	918/44
9	8/30	주제 스테이지 다시 쓰기에 대하여	포스트	1,048/37
10	8/30	주제 스테이지 침묵하는 사이마다	포스트	1,081/45
11	8/30	주제 스테이지 다음 페이지로, 확장되는 소설	포스트	920/47
12	8/30	주제 스테이지 소설, 역사의 외전: 초선, 카카듀, 강주룡	포스트	870/28
13	8/30	주제 스테이지 인간 외전	포스트	813/34
14	8/30	주제 스테이지 읽고 쓰고 만들기: 영화와 소설	포스트	936/56
15	8/30	주제 스테이지 극장 외전	포스트	803/38
16	8/30	주제 스테이지 가을을 위한 라이너 노트	포스트	2,497/105
17	8/30	주제 스테이지 올봄에 헤어진 연인들을 위하여	포스트	1,664/113
18	8/30	주제 스테이지 소설이라는 세계 안에서	포스트	1,100/62
19	8/30	주제 스테이지 역사의 알고리즘	포스트	1,345/39
20	8/30	주제 스테이지 한 편의 시가 다음 면으로 이어질 때	포스트	1,402/85
21	8/30	주제 스테이지 시 보다, 좋은 것	포스트	1,946/121
22	9/4	협력 스테이지 문학집배원x라운지콘서트 - 조성래 · 윤이안 작가 낭독회	포스트	883/24
23	9/4	협력 스테이지 [한국문학번역원]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극장	포스트	711/22
24	9/4	협력 스테이지 [민음사] 한국여성문학의 목소리	포스트	1,124/65
25	9/4	협력 스테이지 문학광장 - 글틴이 뽑은 2024 오늘의 문학 북토크	포스트	1,376/44
26	9/4	협력 스테이지 [위즈덤하우스/교보문고] 문학외전(外傳) 복다&위픽 이야기	포스트	1,127/47
27	9/4	협력 스테이지 [국립한국문학관] 문학의 울림: 소리로 읽는 문학	포스트	929/46
28	9/4	협력 스테이지 2024 상반기 Focus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북토크	포스트	886/31
29	9/4	협력 스테이지 [문학광장] 문장의소리 특집공개방송 - 백 투 더 퓨처 (with 김민정 시인 · 황정은 소설가)	포스트	1,091/67
30	9/4	협력 스테이지 [안온북스] 영화를 보다, 글을 쓰다	포스트	956/26
31	9/4	협력 스테이지 BS 없는 BS 낭독회 (보관)	포스트	678/26

3. 온라인 홍보

NO.	발행일	타이틀	카테고리	도달수 / 참여수
32	9/4	협력 스테이지 출판과 편집, 그리고 서점 이야기 (보관)	포스트	656/30
33	9/4	기획 전시 낮의집 밤의집	포스트	1,214/45
34	9/4	폐막식 우리 곁의 파랑	포스트	2,071/103
35	9/5	사전 예약 방법 안내	공지	1,522/68
36	9/8	공모 스테이지 [참여형] 소개	이벤트	1,033/50
37	9/8	공모 스테이지 [전국형] 소개	이벤트	1,034/32
38	9/8	아르크X컨택 문학행사 <Talk! Talk! 문학에너지발전소>	포스트	647/12
39	9/11	주제 스테이지 시 보다, 좋은 것 (재업로드)	공지	1,362/68
40	9/11	협력 스테이지 문학의 비하인드: 출판과 편집, 그리고 서점 이야기 (재업로드)	공지	1,006/39
41	9/11	협력 스테이지 문학주간 Classic <BS 없는 BS 낭독회>(재업로드)	공지	1,212/27
42	9/13	문학차림 유형테스트 이벤트	이벤트	804/92
43	9/13	문학주간 2024 티저	티저영상	1,267/39
44	9/23	SPIN-OFF 작품 찾기 이벤트	이벤트	893/179
45	9/23	행사장 오시는 길 안내	공지	720/20
46	9/23	9월 27일 금요일 타임테이블	공지	977/29
47	9/23	9월 28일 토요일 타임테이블	공지	717/21
48	9/23	9월 29일 일요일 타임테이블	공지	1,100/30
49	9/23	9월 30일 월요일 타임테이블	공지	985/21
50	9/23	10월 1일 화요일 타임테이블	공지	819/18
51	9/24	문학주간 2024 라인업 공개 (9.27~28)	공지	1,322/61
52	9/24	문학주간 2024 라인업 공개 (9.29~10.1)	공지	1,018/43
53	9/25	FAQ 안내	공지	720/20
54	9/26	개최 D-1 안내	공지	814/32
55	9/28	굿즈 안내	공지	734/35
56	9/28	인센스페이퍼(굿즈) 샷폼	포스트	662/27
57	9/30	현장 모습 샷폼	포스트	572/23

3-3. 블로그

- 홈페이지형 블로그 개편 및 위젯 추가로 기타 SNS 채널 유입 확보
- 문학주간 전체 프로그램 개별 포스팅
- 홈페이지(문학주간) 각 스테이지 개별 프로그램 클릭 시 블로그 프로그램 상세 페이지로 연동



채널 운영	2024. 8. 9. ~ 2024. 11. 30.
이웃 수	901명(2024. 11. 1. 기준)
콘텐츠 발행 개수	게시물 53개
추진 성과	행사 달 기준 방문자 수 : 2,157 이웃 추가 수 : 32명_11월 기준

3. 온라인 홍보

블로그 발행 리스트

N0.	발행일	타이틀	카테고리	도달수 / 참여수
1	8/9	스핀오프 개최 안내	공지	594
2	8/9	독서템 자랑하기 이벤트	이벤트	69
3	8/29	독서템 자랑하기 이벤트 결과 발표	이벤트	73
4	9/4	개막식 낮고 가난한 자리에 남아	포스트	126
5	9/4	주제 스테이지 '사랑' 외전 쓰기	포스트	164
6	9/4	주제 스테이지 다시 쓰기에 대하여	포스트	106
7	9/4	주제 스테이지 침묵하는 사이마다	포스트	98
8	9/4	주제 스테이지 다음 페이지로, 확장되는 소설	포스트	72
9	9/4	주제 스테이지 소설, 역사의 외전: 초선, 카카듀, 강주룡	포스트	79
10	9/4	주제 스테이지 인간 외전	포스트	54
11	9/4	주제 스테이지 읽고 쓰고 만들기: 영화와 소설	포스트	132
12	9/4	주제 스테이지 극장 외전	포스트	105
13	9/4	주제 스테이지 가을을 위한 라이너 노트	포스트	90
14	9/4	주제 스테이지 올봄에 헤어진 연인들을 위하여	포스트	110
15	9/4	주제 스테이지 소설이라는 세계 안에서	포스트	134
16	9/4	주제 스테이지 역사의 알고리즘	포스트	91
17	9/4	주제 스테이지 한 편의 시가 다음 면으로 이어질 때	포스트	127
18	9/4	폐막식 우리 곁의 파랑	포스트	103
19	9/14	협력 스테이지 [문학광장] 문학집배원x라운지콘서트 - 조성래 · 윤이안 작가 낭독회	포스트	326
20	9/14	협력 스테이지 [한국문학번역원]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극장	포스트	34
21	9/14	협력 스테이지 [민음사] 한국어성문학의 목소리	포스트	22
22	9/14	협력 스테이지 문학광장 - 글틴이 뽑은 2024 오늘의 문학 북토크	포스트	32
23	9/14	협력 스테이지 [위즈덤하우스/교보문고] 문학외전(外傳) 복다&위픽 이야기	포스트	77
24	9/14	협력 스테이지 [국립한국문학관] 문학의 올림: 소리로 읽는 문학	포스트	29
25	9/14	협력 스테이지 2024 상반기 Focus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북토크	포스트	32
26	9/14	협력 스테이지 [문학광장] 문장의소리 특집공개방송 - 백 투 더 퓨처 (with 김민정 시인 · 황정은 소설가)	포스트	60
27	9/14	협력 스테이지 [안온북스] 영화를 보다, 글을 쓰다	포스트	83
28	9/14	협력 스테이지 문학의 비하인드: 출판과 편집, 그리고 서점 이야기 (재업로드)	포스트	32
29	9/14	협력 스테이지 [문학주간 Classic] BS 없는 BS 낭독회	포스트	88
30	9/15	공모스테이지(참여형) fire-ing house - 장소통역사	포스트	51
31	9/15	공모스테이지(참여형) 시 들어보라 - 프로젝트 보라	포스트	28
32	9/15	공모스테이지(참여형) 회전하는 시 - 회전하는 시	포스트	10

블로그 발행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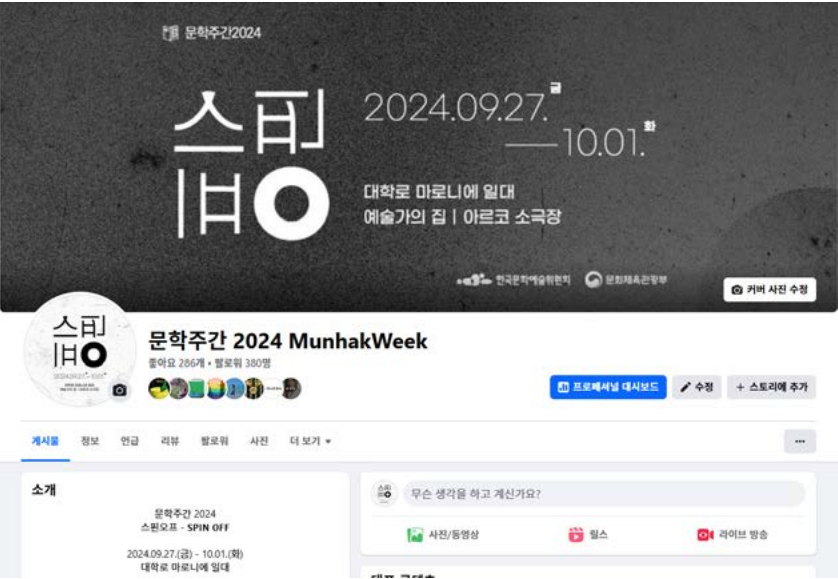
N0.	발행일	타이틀	카테고리	도달수 / 참여수
33	9/15	공모스테이지(참여형) 서남 전라도 서사시 『그라시재라』 입체낭독 - 그라시재라	포스트	150
34	9/15	공모스테이지(참여형) 한시 음악화: 옛 시인과 공명하다 - 기린스튜디오	포스트	15
35	9/15	공모스테이지(참여형) 카프카 여동생이 그랴다 - <변신>속 여동생 그레타의 변(辯) - 낭독의 내심	포스트	43
36	9/15	공모스테이지(참여형) 백 년동안의 백색 - 팀 분리수거	포스트	21
37	9/15	공모스테이지(참여형) 21세기 카프카 사용법 - 창작동인 컴	포스트	24
38	9/15	공모스테이지(참여형) 낱말의 낭독 - 이예진	포스트	29
39	9/15	공모스테이지(참여형) X-파일 멀더와 스킨리의 낭독극 “유리로 만들어진 세상” - T9-H 엔터테인먼트	포스트	64
40	9/15	공모스테이지(전국형) 토크콘서트 Spin-OFF: 동부민요 - (사)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	포스트	10
41	9/15	공모스테이지(전국형) 철. 문. 업(철학, 문학 업고 뛰어!) - 인문ing	포스트	20
42	9/15	공모스테이지(전국형) 현실 속 소설 체험, 그리고 나로 스핀오프(spin-off) - 소년이 온다	포스트	18
43	9/15	공모스테이지(전국형) Spin-off - 내 안의 금쪽이 - 창작동인어흥	포스트	14
44	9/15	공모스테이지(전국형) 이를테면 스핀 오프의 방식으로 - 팀 남향	포스트	11
45	9/15	공모스테이지(전국형) Die zweite Heimat 두 번째 고향 - 호이테 Heute-오늘	포스트	23
46	9/15	공모스테이지(전국형) 소설 잇는 요가 - 정빛그림	포스트	11
47	9/15	공모스테이지(전국형) <연극 in_문학> 부제: 청개구리는 왜 말을 듣지 않는가? - 해우	포스트	13
48	9/15	공모스테이지(전국형) 안톤체홉 <갈매기>의 '니나' 재해석 - 복사골을 떠난 니나를 찾아서 - 이다해	포스트	28
49	9/15	공모스테이지(전국형) 어둠 속에서 꿀꺽! - 기억과 부엌 사이	포스트	105
50	9/19	전시스테이지 낮의집, 밤의집 - 고권금, 강혜련	포스트	93
51	9/26	타임테이블 / 라인업 공개	공지	131
52	9/26	SPIN-OFF 브로슈어 다운로드	공지	76

3. 온라인 홍보

3-4

페이스북

- 문학주간 주요 작가프로그램 및 주요 공식 이벤트 피드 발행
- 문학주간 이벤트 및 캠페인 운영



채널 운영	2024. 8. 9. ~ 2024. 11. 30.
이웃 수	381명(2024. 11. 1. 기준)
콘텐츠 발행 개수	게시물 42개
추진 성과	도달한 계정 : 847 방문한 계정 : 316

페이스북 발행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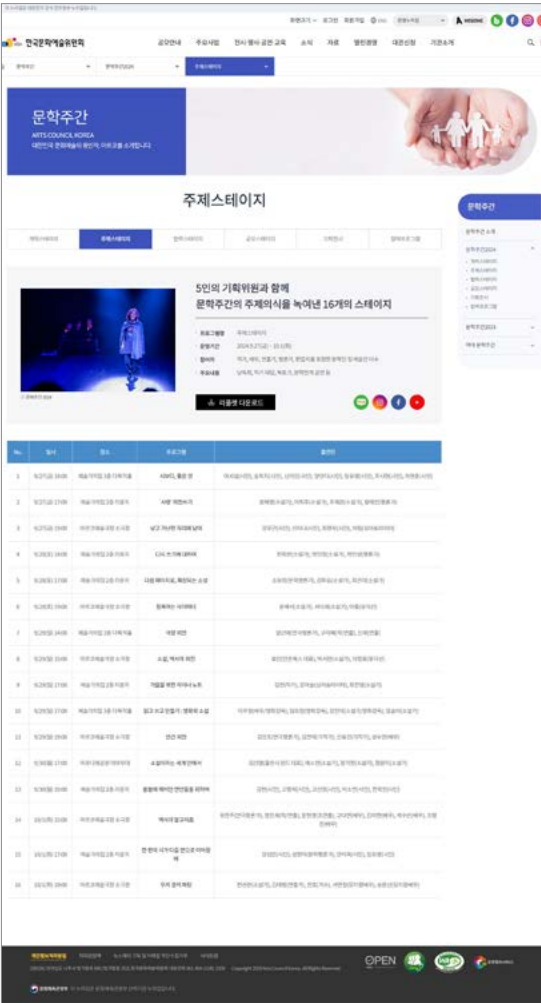
NO.	발행일	타이틀	카테고리	도달수 / 참여수
1	8/9	키비주얼 오픈	포스트	38/3
2	8/12	독서템 자랑하기 이벤트	이벤트	38/1
3	8/14	BS 없는 BS 낭독회 낭독 신청	포스트	299/6
4	9/13	개막식 낮고 가난한 자리에 남아	포스트	13/1
5	9/13	주제 스테이지 '사랑' 외전 쓰기	포스트	14/1
6	9/13	주제 스테이지 다시 쓰기에 대하여	포스트	10/1
7	9/13	주제 스테이지 침묵하는 사이마다	포스트	10/1
8	9/13	주제 스테이지 다음 페이지로, 확장되는 소설	포스트	9/1
9	9/13	주제 스테이지 소설, 역사의 외전: 초선, 카카듀, 강주룡	포스트	11/1
10	9/13	주제 스테이지 인간 외전	포스트	9/1
11	9/13	주제 스테이지 읽고 쓰고 만들기: 영화와 소설	포스트	28/1
12	9/13	주제 스테이지 극장 외전	포스트	20/1
13	9/13	주제 스테이지 가을을 위한 라이너 노트	포스트	13/1
14	9/13	주제 스테이지 올봄에 헤어진 연인들을 위하여	포스트	13/1
15	9/13	주제 스테이지 소설이라는 세계 안에서	포스트	14/1
16	9/13	주제 스테이지 역사의 알고리즘	포스트	15/1
17	9/13	주제 스테이지 한 편의 시가 다음 면으로 이어질 때	포스트	124/2
18	9/13	주제 스테이지 시 보다, 좋은 것	포스트	18/1
19	9/13	폐막식 우리 결의 파랑	포스트	14/1
20	9/13	협력 스테이지 문학집배원x라운지콘서트 - 조성래 · 윤이안 작가 낭독회	포스트	18/1
21	9/13	협력 스테이지 [한국문학번역원]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극장	포스트	15/1
22	9/13	협력 스테이지 [만음사] 한국여성문학의 목소리	포스트	13/1
23	9/13	협력 스테이지 문학광장 - 글틴이 뽑은 2024 오늘의 문학 북토크	포스트	17/1
24	9/13	협력 스테이지 [위즈덤하우스/교보문고] 문학외전(外傳) 복다&위픽 이야기	포스트	15/1
25	9/13	협력 스테이지 [국립한국문학관] 문학의 울림: 소리로 읽는 문학	포스트	14/1
26	9/13	협력 스테이지 2024 상반기 Focus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북토크	포스트	16/1
27	9/13	협력 스테이지 [문학광장] 문장의소리 특집공개방송 - 백 투 더 퓨처(with 김민정 시인 · 황정은 소설가)	포스트	17/1
28	9/13	협력 스테이지 [안온북스] 영화를 보다, 글을 쓰다	포스트	17/1
29	9/13	협력 스테이지 [문학주간 Classic] BS 없는 BS 낭독회	포스트	19/1
30	9/13	협력 스테이지 출판과 편집, 그리고 서점 이야기	포스트	18/1

3. 온라인 홍보

N0.	발행일	타이틀	카테고리	도달수 / 참여수
31	9/13	공모 스테이지 [참여형] 소개	포스트	16/1
32	9/13	공모 스테이지 [전국형] 소개	포스트	16/1
33	9/13	기획 전시 낮의집 밤의집	포스트	18/1
34	9/13	아르크X컨택 문학행사 <Talk! Talk! 문학에너지발전소>	포스트	27/1
35	9/13	사전 예약 방법 안내	공지	24/1
36	9/13	문학차림 유형테스트 이벤트	이벤트	50/2
37	9/25	SPIN-OFF 작품 찾기 이벤트	이벤트	18/1
38	9/25	행사장 오시는 길 안내	공지	14/1
39	9/25	타임테이블	공지	17/1
40	9/25	문학주간 2024 라인업 공개	공지	22/1
41	9/25	FAQ 안내	공지	18/1
42	9/26	개최 D-1 안내	공지	19/1

3-5. 홈페이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문학주간 업데이트 및 상세 정보 노출
- 프로그램 세부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페이지 연동되도록 구현
- 사전 예약 페이지 연동 및 리플렛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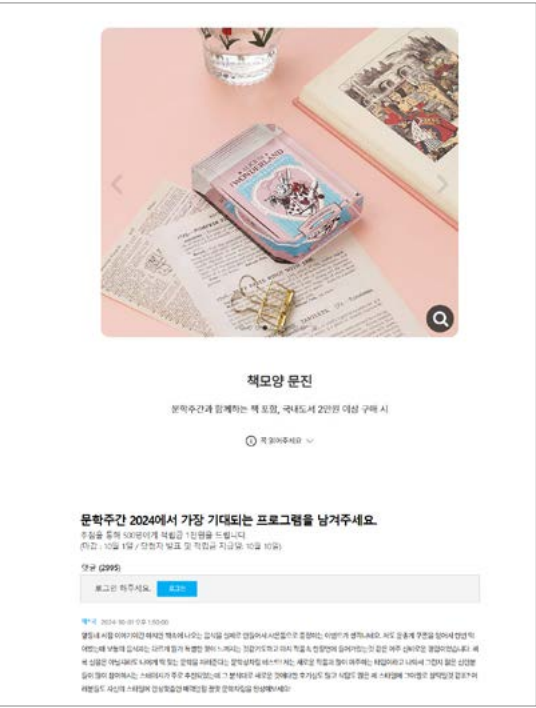
3. 온라인 홍보

3-6. 알라딘

- 문학주간 홍보 및 이벤트 운영
- 이벤트① 문학차림 테스트를 통해 사전 예약까지 연결되도록 운영
- 이벤트② 기대되는 프로그램 댓글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0명 적립금 1천원 지급
- 이벤트③ 문학주간 행사 도서 포함 2만원 이상 구매시 알라딘 굿즈 ‘책모양 문진’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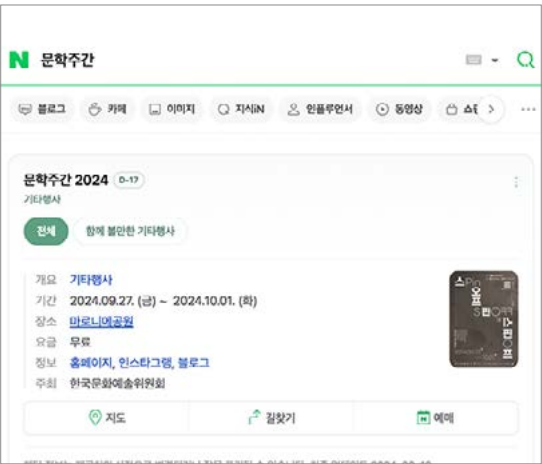


채널 운영	2024. 8. 9. ~ 2024. 11. 30.
참여자 수	2,995명(2024. 10. 29. 기준)
이벤트 운영	문학차림 테스트 기대되는 프로그램 댓글 이벤트 알라딘 굿즈 배포 이벤트



3-7. 네이버 예약

- 사전신청을 위한 네이버 예약페이지 개설,
포털로 키워드 검색시 예약페이지 연결되도록 구현



3. 온라인 홍보

3-8. 영상 홍보

- 콘텐츠 발행 : 티저 영상 1건, 티저 쇼츠 영상 1건, 스케치 영상 6건, 녹화 영상 7건
- 기획의도가 담긴 티저영상물 제작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홍보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르코미술관 옥외홍보 LED)

발행일	제작물	EA	매체명	도달수
9/13	티저영상(90초)	1	인스타그램/유튜브	1,954/115
9/13	티저영상(30초)	1	아르코미술관 옥외 LED	-
9/28	[숏폼]야외부스 이벤트 안내	1	인스타그램	1,125
9/30	[숏폼]현장 프로그램 리뷰	1	인스타그램	929
제작중	스케치영상(120초)	5	인스타그램/유튜브	
제작중	스케치영상 모음(10분)	1	유튜브	
제작중	헤드라이너 녹화영상	7	납품	

• 티저



• 숏폼



• 하이라이트



3. 온라인 홍보

3-9. 커뮤니티 홍보

커뮤니티 홍보 리스트

발행일	구분	매체명	인사이트	링크
7/8	네이버 카페	소통24	조회수: 292	https://me2.do/xv39XmoN
7/16		전대모	조회수 : 71	https://cafe.naver.com/goondae/
7/16		취업뽀개기		https://cafe.naver.com/breakjobnaver/
7/16		아웃캠퍼스		https://cafe.naver.com/outcampus/
7/16		취업대학교		https://cafe.naver.com/bebettergirls/
7/16		공연과문화		https://cafe.naver.com/moolpas/
7/16		책과콩나무		https://cafe.naver.com/booknbeanstalk/
7/16		책사모		https://cafe.naver.com/dramalove21/
7/16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https://cafe.naver.com/readbook/
7/16		컬러랑		https://cafe.naver.com/colorang/
7/16		문화충전200%		https://cafe.naver.com/real21/
7/16		YT문화충전200%		https://cafe.naver.com/ganzyit/
7/17	공모 사이트	대티즌	조회수 : 1,549	https://www.detizen.com/
7/17		씽긔		https://www.thinkcontest.com/
7/17		링크리어		https://linkareer.com/activity/
7/17		공모전인덱스		https://www.contestindex.co.kr/
7/17		위비티		https://www.wevity.com/
7/17	기관	코브랜드	-	https://www.cobrand.co.kr/
8/6		비짓서울		https://korean.visitseoul.net/
8/8		대한민국 구석구석	조회수: 1,800	https://me2.do/GtUtMvMN
8/8		네이버(축제정보 등록)	-	https://search.naver.com/
9/10		주말랭이	발송자 수(명): 65,912 오픈: 29,433 클릭: 622	https://stib.ee/AmGE https://onemoreweekend.co.kr/
9/23	기관	작가정신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akkapub/
9/23		아르코대학교예술극장 네이버 포스트	조회수: 293	https://naver.me/FN7DrWoQ
9/25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cstkorea/

축제정보등록



비짓서울



대한민국 구석구석



주말랭이



아르코대학교예술극장 네이버 포스트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소통24



작가정신 블로그



3. 온라인 홍보

3-10.

이벤트

독서템 자랑하기 이벤트



진행일시	2024. 8. 9. ~ 2024. 8. 14.
참여방식	① 프로필에 효과 탭 클릭 ② 필터를 사용해서 독서템 촬영 ③ 스토리 or 피드에 인증 *문학주간 팔로우 및 태그 필수
선물	1등 네이버페이 30,000원 (1명) 2등 치킨 기프티콘 3등 네이버페이 5,000원 (1명) 4등 커피 기프티콘
참여자	11명

알라딘 협업 이벤트



진행일시	2024. 9. 10. ~ 2024. 10. 1.
참여방식	① 기대되는 프로그램 댓글 ② 문학주간 행사 도서 구매
선물	기대 프로그램 댓글 달기 - 적립금 지급 도서 구매 시 - 문진 증정
참여자	댓글 이벤트 2,995명

독서템 자랑하기 이벤트



진행일시	2024. 9. 13. ~ 2024. 9. 20.
참여방식	① 결과지 캡처해서 스토리 or 피드 인증 ② 댓글에 참여 완료 댓글 달기 *문학주간 팔로우 및 태그 필수
선물	네이버페이 10,000원권 (10명)
참여자	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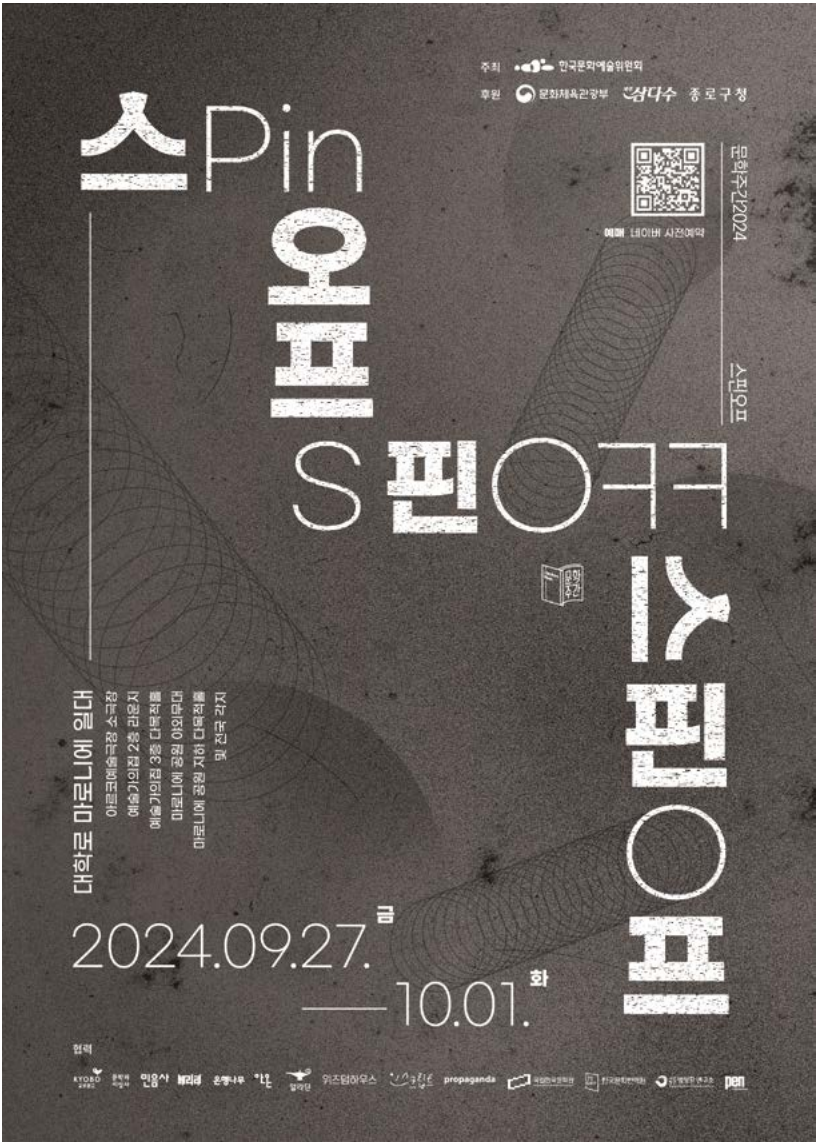
알라딘 협업 이벤트



진행일시	2024. 9. 23. ~ 2024. 9. 27.
참여방식	문학주간2024에 참가 예술가 작품 중에 SPIN-OFF에서 보고 싶은 작품을 댓글달기
선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0명)
참여자	71명

4. 오프라인 홍보

- 4-1. 인쇄 홍보물
- 포스터



지면광고

- 클투라(9월)



- 문학동네(가을호)



4. 오프라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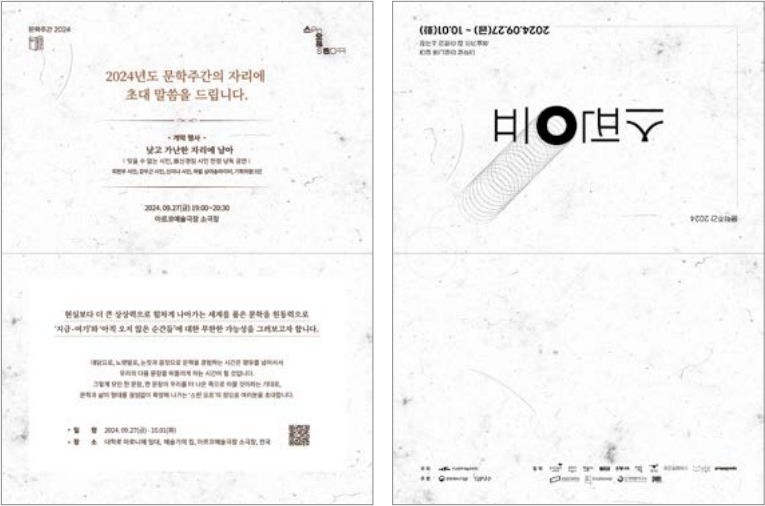
- 4-1. 인쇄 홍보물
- 리플렛



4. 오프라인 홍보

4-1. 인쇄 홍보물

VIP초대장



초대장



온라인 배포 초대장

4-2. 옥외 홍보물

아코미미술관 LED 홍보 티저영상, 메인 포스터 이미지 노출



4. 오프라인 홍보

4-2. 옥외 홍보물

옥외 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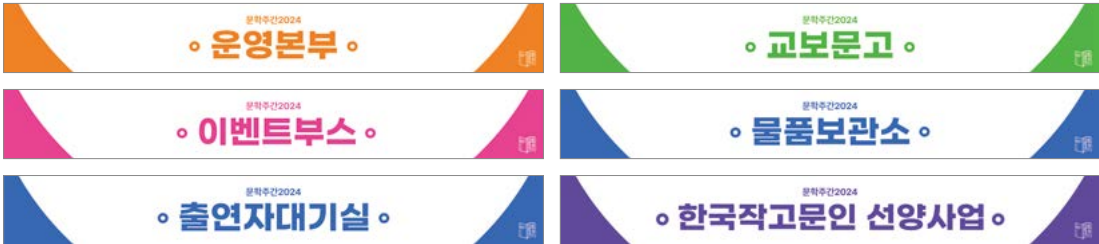


중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현수막



4. 오프라인 홍보

D 4-2.

옥외 홍보물

배너



4. 오프라인 홍보

4-2. 옥외 홍보물

무대



예술가의집 라운지 백월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무대 스키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백월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백월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예술가의집 라운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4. 오프라인 홍보

4-3. 현장 제작물

티켓



큐카드



마이크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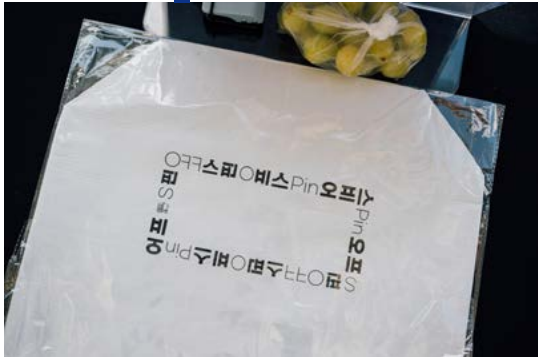
스태프 명찰



4. 오프라인 홍보

4-3. 현장 제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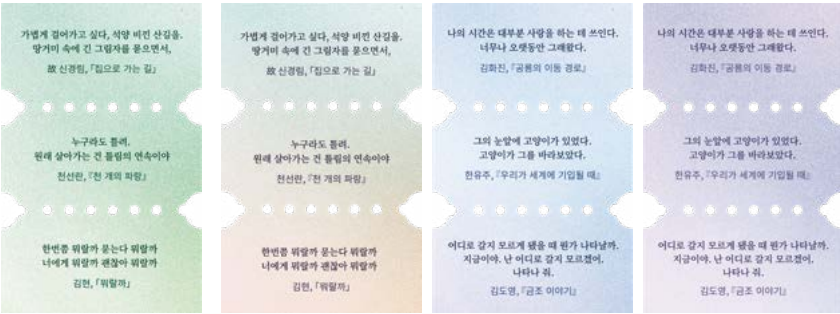
굿즈



리유저블백



볼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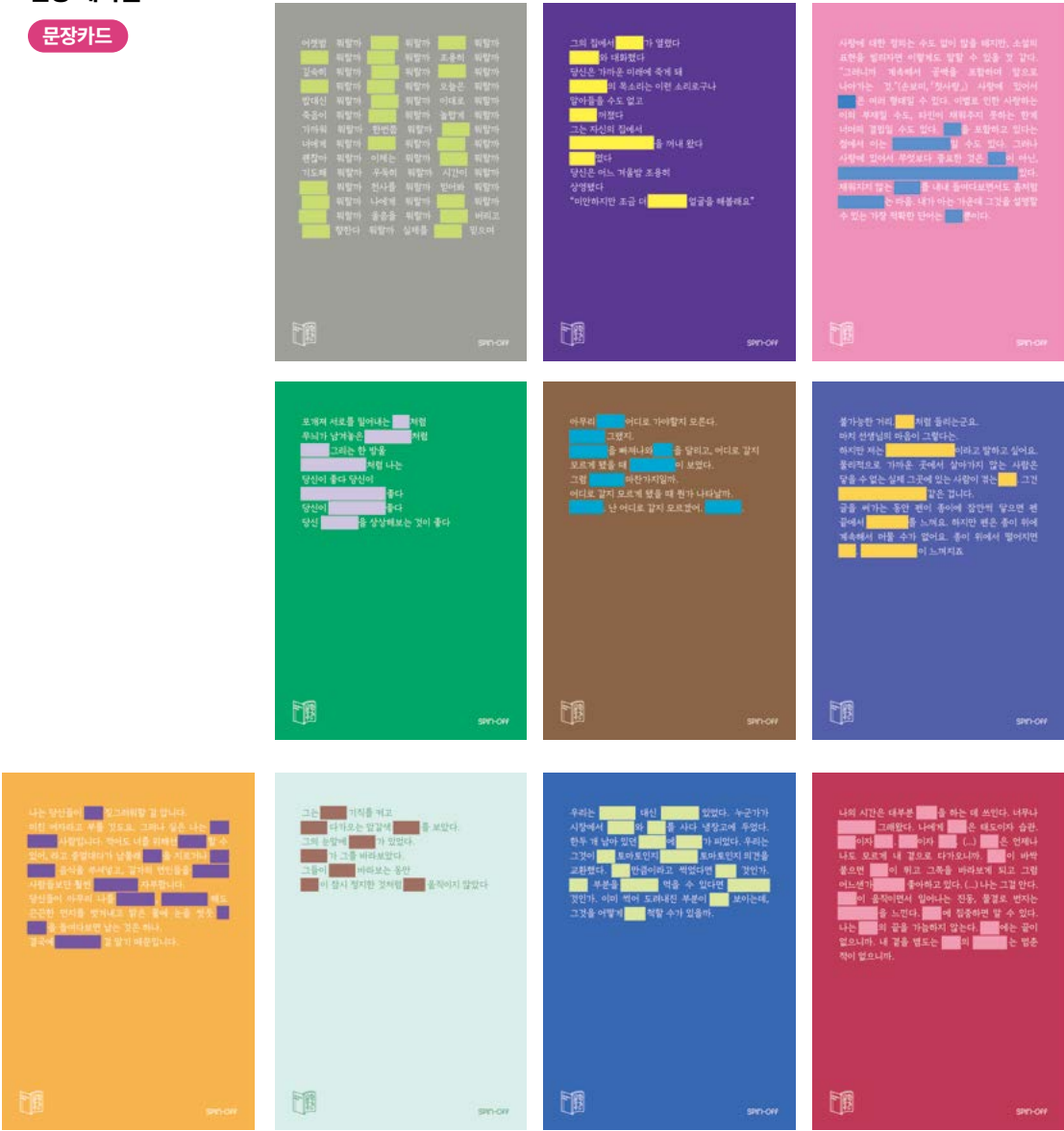


인센스 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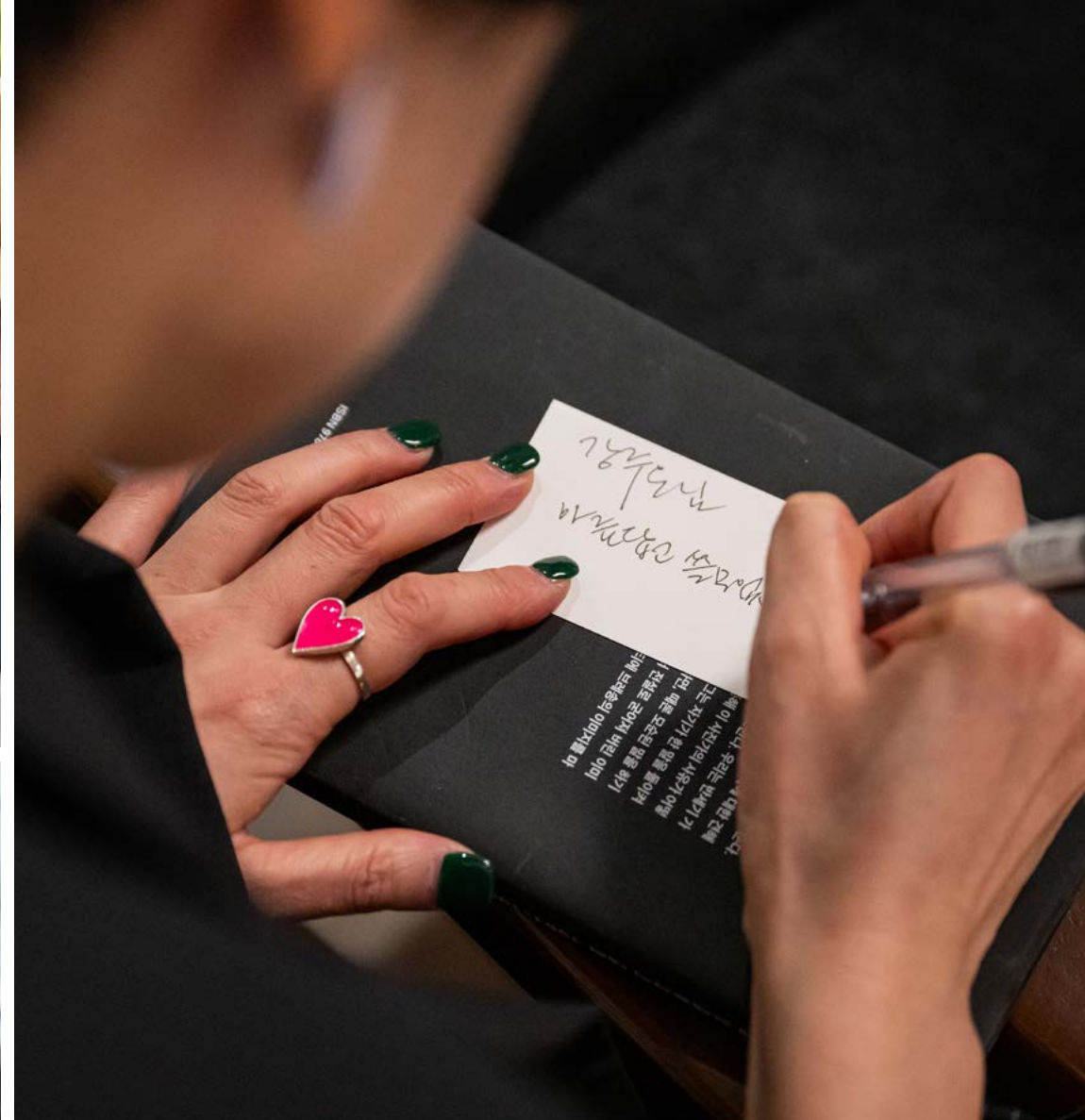
4. 오프라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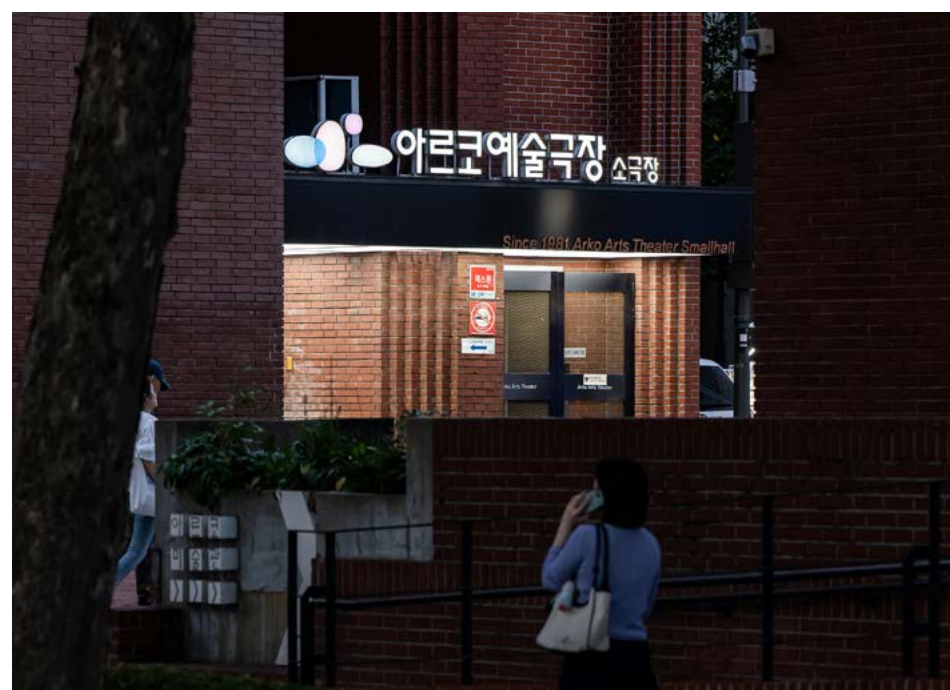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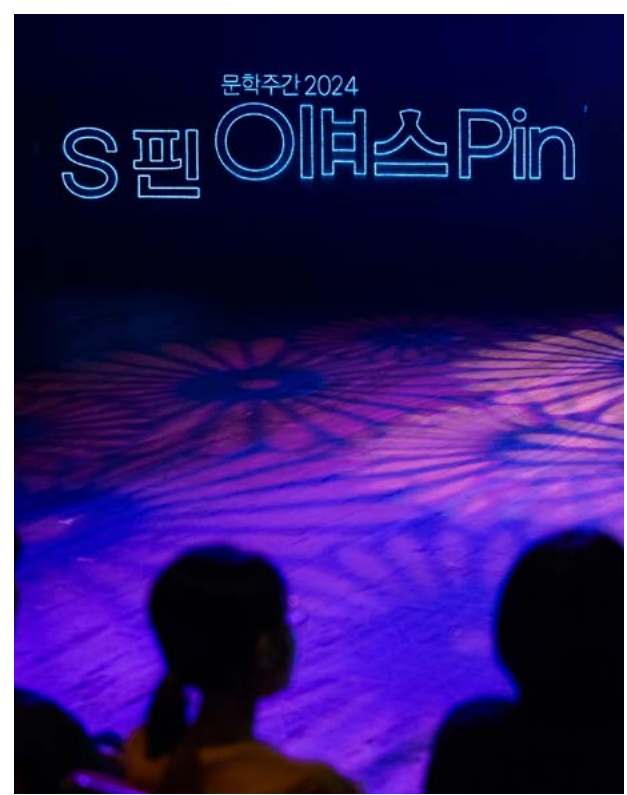
4-3. 현장 제작물

문장카드









문학주간2024 스피노프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제주삼다수, 종로구청
협력	교보문고, 문학과지성사, 민음사, 베리테, 은행나무, 안온북스, 알라딘, 위즈덤하우스, 인스크립트, 프로파간다, 국립한국문학관, 한국문학번역원, (사)방정환연구소, (사)국제PEN한국본부
운영	(사)와우컬처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소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표전화	061-900-2100
홈페이지	www.arko.or.kr



문학주간 2024